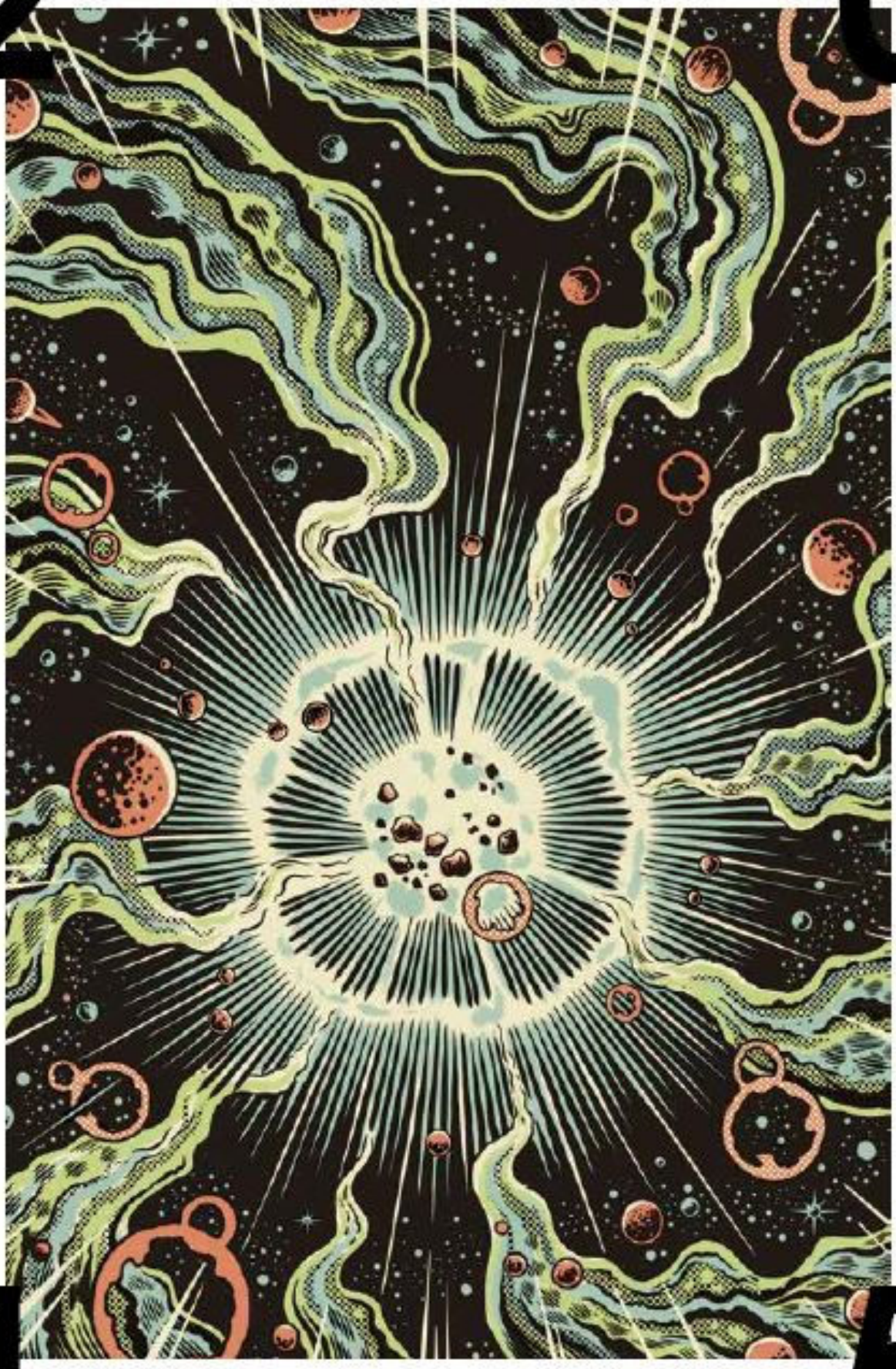
2015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백서

2015



Korean Pavilion at the 5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2015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백서

2015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백서

Korean Pavilion at the 5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la Biennale di Venezia

CONTENTS

FOREWORD 인사말 6

I. INFORMATION
1. 제 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국제전
1) 개요 10
2) 수상 내역 11

2. 2015년 한국관
1) 전시 개요 17
2) 커미셔너 및 큐레이터 소개 19
3) 작가 소개 19
4) 전시 크레딧 21
5) 일별 관람객 수 22
6) 주요 관람객 23
7) 감사의 말 25

II. MANUAL
1. 운영
1) 한국관 운영규정 28
2) 커미셔너 매뉴얼 31
3) 커미셔너 계약서 40
4) 전시추진단 명부 46
5) 전시추진단 정관 46
6) 한국관 도면 49
7) 스태프 티셔츠 도안 50

2. 개막
1) 국가관별 개막식 일정 51
2) 한국관 프리오프닝 기간 일정 55
3) 개막식 초청자 명단 55
4) 한국관 만찬 60
5) 만찬 초청자 명단 62

3. 홍보
1) 웹사이트 68
2) 도록 및 리플릿 70
3) 기념품: 에코백 73
4) 포스터 74
5) 대언론홍보: 기자단, 보도자료 75
6) 유료 광고 88
7) Google Cultural Institute 90

III. FEEDBACK
1. 언론 보도
1) 국내 방송 및 일간지 기사 모음 94
2) 국내 월간지 기사 모음 102
3) 해외 기사 모음 108

IV. SYMPOSIUM
2015년 한국관 전시 성과 보고 심포지엄 118

FOREWORD

2015년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건립된 지 20년을 맞이한 의미있는 해였습니다. 베니스 카스텔로 공원 내에 한국관이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면 마치 험난한 모험과 같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베니스비엔날레에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전시관이 없어 이태리관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아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1993년 독일관 작가로 참여하여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故 백남준 선생께서 한국관 건립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 및 여러 미술계 인사들의 노력을 통해 다른 경쟁국가들을 제치고 26번째이자 마지막 국가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만들어진 한국관은 지난 20년간 우리 미술과 건축을 해외무대에 소개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95년부터 연속 3회에 걸쳐 한국 작가 전수천, 강익중, 이불이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미술계에서 한국 현대미술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2014년 건축전에서는 한국관 전시 〈한반도 오감도〉가 65개 국가관 중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커미셔너 : 조민석)하였습니다. 이 여세를 이어, 2015년 미술전에서는 임흥순 감독의 〈위로공단〉이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본전시 은사자상을 수상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5년 한국관이 선보인 전시 〈축지법과 비행술〉은 실험적인 미학과 혁신적 기술을 접목한 작품으로 전시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평가됩니다. 전시기간 동안 전세계로부터 온 약 37만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며 한국예술을 세계 무대속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이러한 성과는 이숙경 커미셔너, 그리고 문경원 · 전준호 작가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관을 운영하며 지난 20년간 쌓아올린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향후 한국관이 국내 미술의 해외진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맡아주신 이숙경 커미셔너와 문경원 · 전준호 작가, 그리고 전시에 도움을 주신 스태프, 전시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스폰서 등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전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박 명 진

INFORMATION

1.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국제전

1) 개요

장소 | 이탈리아 베니스 아르세날레(Arsenale), 자르디니(Giardini)외 시내 각지

기간 | 2015년 5월 9일 ~ 11월 22일

프리뷰 | 2015년 5월 5일 ~ 8일

총감독 | 오쿠이 엔위저(Okwui Enwezor)

전시 주제 |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

전시 규모 | 엔위저 총감독이 기획한 국제전에는 전세계 53개국의 작가 총 136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작가로는 김아영 작가(1979년생, 여), 남화연 작가(1979년생, 여), 임흥순 작가(1969년생, 남)가 초청되었다.

전시 기간 입장객 수 | 500,875명

오프닝 기간 입장객 수 | 24,065명(2013년도 대비 총 17.83% 증가)

방문 기자 수 | 8,100여명

참여 국가 수 | 총 89개국(2013년도 대비 25개국 증가)

신생 참여 국가 수 | 총 5개국(그레나다, 모리셔스, 몽골, 모잠비크, 세이셸 제도)

병행전시(Collateral Events) | 총 44개

입장료

- 일반: 25유로(전시 기간 중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 각각 1차례씩만 관람)
- 스페셜 2일권: 30유로(연속 이틀간 아르세날레와 자르디니 수시 관람)
- 할인: 22유로(COOP, CTS, ITIC, ISIC, FAI, Touring Club, Cinema Più, Venezia Unica city pass, Rolling Venice Card, Carta Giovani, Trenitalia Frecciargento/Frecciabianca ticket destination Venice – earlier 3 days max and CartaFRECCIA members) / 20유로(만 65세 이상, 군인, 베니스 거주자, 제43회 국제 연극제, 제59회 국제현대음악제, 제72회 베니스 영화제 티켓 소지자 등) / 15유로(골드 혹은 플래티넘 비엔날레 카드 소지자) / 15유로(학생 및 만 26세 미만)
- 단체: 성인 16유로 / 중고등학생 10유로 / 대학생 14유로(최소 10명, 예약 필수)
- 무료: 만 6세 이하, 장애인 동반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초등 및 중등학교

※ 미술전은 원래 6월~11월 동안 열리지만, 2015년 밀라노 엑스포 개최 기념, 두 행사 간의 시너지를 위해 미술전 개막 기간을 5월 초로 앞당김





2) 수상내역

시상식 개최 | 2015년 5월 9일(토) 12시30분 Ca' Giustinian

심사위원 |

1. 나오미 베크윗(Naomi Beckwith, 미국) 현 시카고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2. 사빈 브라이트비저(Sabine Breitwieser, 오스트리아) 현 잘츠부르크 현대미술관 관장
3. 마리오 코도나토(Mario Codognato, 이탈리아) 현 MADRE 나폴리 미술관 수석 큐레이터
4. 란짓 호스코테(Ranjit Hoskote, 인도) 2011년 베니스비엔날레 인도관 큐레이터
5. 이용우(Yongwoo Lee, 한국) IBA (International Biennial Association) 대표

구분

구분	국가/국가관	개인 작가
황금사자상	아르메니아	아드리안 파이퍼(Adrian Piper, 미국)
은사자상	한국	임흥순(한국)
특별언급상	국가관 특별언급: 조안 조나스 (Joan Jonas, 미국)	[1] 하룬 파로키(Harun Farocki, 독일) [2] 아보우나다라 콜렉티브 (Abounaddara collective, 시리아) [3] 마시니사 셀마니 (Massinissa Selmani, 알제리)
평생공로상		[1] 엘 아낫츄이(El Anatsui, 가나) [2] 수잔 게츠(Susanne Ghez, 미국)

국가관 황금사자상 | 아르메니아관

- 전시주제: Armenity / Haiyutioun (Contemporary artists from the Armenian Diaspora)
- 커미셔너: Ministry of Culture of the Republic of Armenia
- 부커미셔너: Art for the World Europa, Mekhitarist Congregation of San Lazzaro Island, Embassy of the Republic of Armenia in Italy, Vartan Karapetian
- 큐레이터: Adelina Cüberyan von Fürstenberg
- 전시장 위치: Monastery and Island of San Lazzaro degli Armeni
- 심사평: "국가관 황금사자상은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있는 작가군을 기반으로 전시를 꾸린 아르메니아관에 수여한다. 참여작가들은 각자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다루었으며, 전시 전체는 마치 팔림세스트(palimpsest)와도 같이 현대의 관점이 역사적인 전시장소의 곳곳에 투영된 형식을 취했다. 아르메니아에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를 기념한 본 전시는 다양한 문화의 합류점과 교류의 힘을 드러내었다."

Photo by Andrea Avezzù







개인작가 황금사자상 | 아드리안 파이퍼

- 작가: 아드리안 파이퍼(Adrian Piper, 미국, 1948년생)
- 작품명: 〈The Probable Trust Registry: The Rules of the Game #1–3〉
- 심사평: "파이퍼는 그녀 자신에 관한, 혹은 그녀의 관객, 더 나아가 대중의 주관을 개념적인 작업에 도입하는 선구적인 실험을 한 작가이다. 작가의 작업은 평생에 걸친 한 개인의 책임에 대한 퍼포먼스에 우리가 관여하도록 유도하며 가치 시스템의 덧없음과 유동성에 주목한다."

개인작가 은사자상 | 임흥순

- 작가: 임흥순(한국, 1969년생)
- 작품명: 〈위로공단(Factory Complex)〉
- 심사평: "임흥순의 작업은 아시아 여성들의 노동 조건과 관계된 불안정성의 본질을 섬세하게 살펴보는 영상 작품을 선보였다. 작품 〈위로공단(Factory Complex)〉은 가볍게 매개된 다큐멘터리의 형태로 그의 인물들과 그들의 근로 조건을 직접적으로 대면한다."

개인작가 특별언급

[1] 하룬 파로키(Harun Farocki, 독일, 1944~2014)
심사평: "파로키는 전후 영화사에 중심이 되는 인물로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소개된 작업은 더 많은 대중이 그의 주요 작업에 다가가기 쉽도록 접근성을 개방 하였다."

[2] 아보우나다라 콜렉티브(Abounaddara collective, 시리아, 2010년도 결성)
심사평: "현재 시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분쟁과 생존을 위한 사투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용기를 높이 산다."

[3] 마시니사 셀마니(Massinissa Selmani, 알제리, 1980년생)
심사평: "평범한 재료를 통해 재료 본연의 역량을 넘어서는 작업을 선보였음을 높게 평가한다."

국가관 특별언급 | 미국관

- 전시명: 〈조안 조나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Joan Jonas: They Come to Us Without a Word)〉
- 커미셔너: 폴 하(Paul C. Ha)
- 부커미셔너: MIT List Visual Arts Center
- 큐레이터: 우테 메타 바우어(Ute Meta Bauer), 폴 하(Paul C. Ha)
- 전시장 위치: 자르디니 내 미국관

Biographies of the Jurors



Naomi Beckwith is the Marilyn and Larry Fields Curator at the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She has curated and cocurated several exhibitions nationally and internationally, including at the Institute of Contemporary Art in Philadelphia and at Cuchifritos, Artists Space, and at the Studio Museum in Harlem, where she was associate curator and managed the Artists-in-Residence program. Conceptual art practices, performance, identity politics in contemporary art, and the work of artists of African descent are central to her curatorial inquiry. In addition to shaping exhibitions, Beckwith has contributed to numerous catalogues and journals. Beckwith received an MA with Distinction from the Courtauld Institute of Art in London, completing her master's thesis on Adrian Piper and Carrie Mae Weems, and she received a BA in history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She was a 2009 grantee of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and was granted the 2015 New Leadership award by ArtTable.



Photo by Maria Ziegelboeck

Sabine Breitwieser is an international curator and museum director and became the Director of the Museum der Moderne Salzburg in September 2013. She previously served as Chief Curator of Media and Performance Art at The Museum of Modern Art in New York, and as Founding Director and Chief Curator of the Generali Foundation in Vienna. For many years she was a board member and served as the Secretary and Treasurer of CIMAM,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ICOM for Museums and Collections of Modern Art. In 2012 Sabine Breitwieser was a recipient of the Yoko Ono Lennon Courage Award.

Breitwieser has curated retrospective and solo exhibitions with artists including: Dan Graham, Hans Haacke, Theresa Hak Kyung Cha, VALIE EXPORT, Harun Farocki, Simone Forti, Andrea Fraser, Isa Genzken, Isaac Julien, Mary Kelly, Christian Marclay, Edward Krasiński, Gordon Matta-Clark, Gustav Metzger, Adrian Piper, Martha Rosler, Allan Sekula. She has also organized thematic exhibitions such as *Art/Histories, Viennese Actionism* (Salzburg, 2014), *Utopia and Monument* (Graz, 2009–2010), *Modernologies* (Barcelona and Warsaw, 2009–2010), and *Designs for the Real World, double life, RE-PLAY, vivencias/life experience*, or *White Cube/Black Box* (Vienna, 1996–2007). *How are we Performing Today?* was the title of a two-day symposium that Breitwieser has organized to discuss current issues of performance and the museum at MoMA in 2012. The *MoMA Media Lounge* designed by Renée Green, also organized by Breitwieser, was the first public platform of its kind in a New York museum that gave access to the collection of video-based works. During her tenure at MoMA Breitwieser has acquired more than six-hundred works for the collection, including some major pan-departmental projects. For the Generali Foundation Breitwieser has built an internationally renowned program and an important collection of more than two-thousand artworks published in the volumes *Exhibitions 1989–2007* (2008) and in *Occupying Space: Generali Foundation Collection* (2003). Under her era the museum building for the Generali Foundation has been constructed and opened in 1995 (Jabornegg/Pálffy architects).

In addition to numerous exhibition catalogues, she recently published "Taking Part in the Museum" in *Afterall* (London, 2013), and "Performance without Curators—Art and the Public Sphere" in *Timing—On the Temporal Dimensions of Exhibitions* (Leipzig, 2013). Breitwieser is a frequent lecturer at conferences, symposia and in the university context; in 2012 she was the Regent Lectur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n Berkeley, USA. At the Museum der Moderne Salzburg she has initiated a series of new rotating collection exhibitions featuring the Generali Foundation Collection that the museum has acquired as permanent loan. Breitwieser is currently working on a large exhibition on E.A.T. – 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and a retrospective of Carolee Schneemann.



Mario Codognato was the first chief curator of MADRE, the 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 in Naples, where he has curated, among others, the retrospectives of the work of Jannis Kounellis (2006), Rachel Whiteread (2007), Thomas Struth (2008) and Franz West (2010). He has previously worked at the contemporary art project at the Archeological Museum in Naples, where he has curated the exhibitions of Francesco Clemente (2002), Jeff Koons (2003), Anish Kapoor (2003), Richard Serra (2004), Anselm Kiefer (2004) and the first ever museum retrospective of Damien Hirst (2004). Since 1999 he has curated the site-specific public projects for Piazza Plebiscito including Robert Rauschenberg (1999), Joseph Kosuth (2001), Sol Lewitt (2005) Jenny Holzer (2006), Jan Fabre (2008) and Carsten Nicolai (2009). He has curated exhibition for other institutions and written their catalogue essays on the work of Alighiero Boetti (1992, 1999), Richard Long (1994 and 1997), Gilbert & George (1998), Jan Fabre (1999), Brice Marden (2001) and Wolfgang Laib (2005). He has curated several thematic exhibitions, including *Barock* at MADRE in 2009 and *Fragile?* at the Cini Foundation in Venice in 2013. In 2014, he was appointed the new chief curator at the 21er Haus in Vienna.



Photo by Nancy Adajania

Ranjit Hoskote is a cultural theorist, curator and poet based in Bombay. He is the author of more than 25 books, including *Vanishing Acts: New & Selected Poems 1985–2005* (Penguin, 2006) and *Central Time* (Penguin/ Viking, 2014), and the monographs *Zinny & Maidagan: Compartment/ Das Abteil* (Museum für Moderne Kunst, Frankfurt/ Walther König, 2010) and *Atul Dodiya* (Prestel, 2014). Hoskote has translated the 14th-century Kashmiri mystic Lal Ded's works as *I, Lalla: The Poems of Lal Ded* (Penguin Classics,

2011). With Ilija Trojanow, he has co-authored *Kampfabsage* (Blessing, 2007; in English as *Confluences: Forgotten Histories from East and West*, Yoda, 2012). With Nancy Adajania, he is co-author of *The Dialogues Series* (Popular, 2011), a cycle of conversations with artists. With Maria Hlavajova, he is editor of *Future Publics: A Critical Reader in Contemporary Art* (BAK/ Valiz, 2015).

Hoskote has been active as an independent curator since 1993. He curated India's first-ever national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Everyone Agrees: It's About to Explode*, 2011). With Artistic Director Okwui Enwezor, Hoskote and Hyunjin Kim co-curated the 7th Gwangju Biennale (2008). Hoskote was a member of the curatorial-artistic core group for *Acts of Voicing* (Württembergischer Kunstverein, Stuttgart, 2012–2013). He was also co-convenor, with Maria Hlavajova, Boris Groys and Kathrin Rhomberg, of the exhibition-conference platform F*ormer West Congress: Documents, Constellations, Prospects*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2013).

Hoskote has been a Fellow of the International Writing Program, University of Iowa (1995), writer-in-residence at Villa Waldberta, Munich (2003), Associate Fellow at Sarai/ CSDS, New Delhi (2006–2007), and researcher-in-residence at BAK/ basis voor actuele kunst, Utrecht (2010; 2013). He sits on the programme advisory board of the Haus der Kulturen der Welt (Berlin), th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f the Bergen Triennial (Norway) and the academic advisory board of the Asia Art Archive (Hong Kong).



Yongwoo Lee is currently the executive director of Shanghai Himalayas Museum and president of IBA (International Biennial Association). He was the founding director of the Gwangju Biennale in 1995 and served as the president and general director of the Gwangju Biennale Foundation from 2008 to 2014. Over the last thirty years, he has worked to present internationally the aesthetics of difference, while curating and reexamining exhibitions related to the discourse of visual culture as social practice. His curated exhibitions include *Electronic Maple* (New York Center for Media Art), *Whitney Biennial Seoul*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Korea), *Flowers of May* (Gwangju Museum of Art), *Nam June Paik Retrospective*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Dansaekhwa* (Palazzo Contarini Polignac, Venice), etc.

He was a professor of aesthetics and critical theory at Korea University and has lectured at several universitie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He did his Ph.D in art history at Oxford University. He has published numerous books including *Information and Reality, Nam June Paik and The Origins of Video Art*, etc.

출처: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보도자료



Photo by Sara Sagui

2. 2015년 한국관

1) 전시 개요

전시제목 | 축지법과 비행술(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출 품 작 | 축지법과 비행술(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2015, HD 영상 설치, 10분 30초
참여작가 | 문경원 & 전준호
커미셔너 & 큐레이터 | 이숙경
주최 및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한국관 전시소개

2015년 한국관 전시인 〈축지법과 비행술〉은 한국관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관의 역사적 맥락과 장소특성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전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총감독 오쿠이 엔위저)에서 제시된 "본질적인 고민으로의 귀환"이라는 주제와의 긴밀한 맥락 속에서 기획되었다. 7채널의 영상설치 신작으로 구성된 본 전시는 한국관의 건축적 특성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건축과 영상의 성공적인 통합을 이루어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의 개최기간(2015년 5월 9일~11월 22일) 동안 37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한국관을 방문하는 기록을 세우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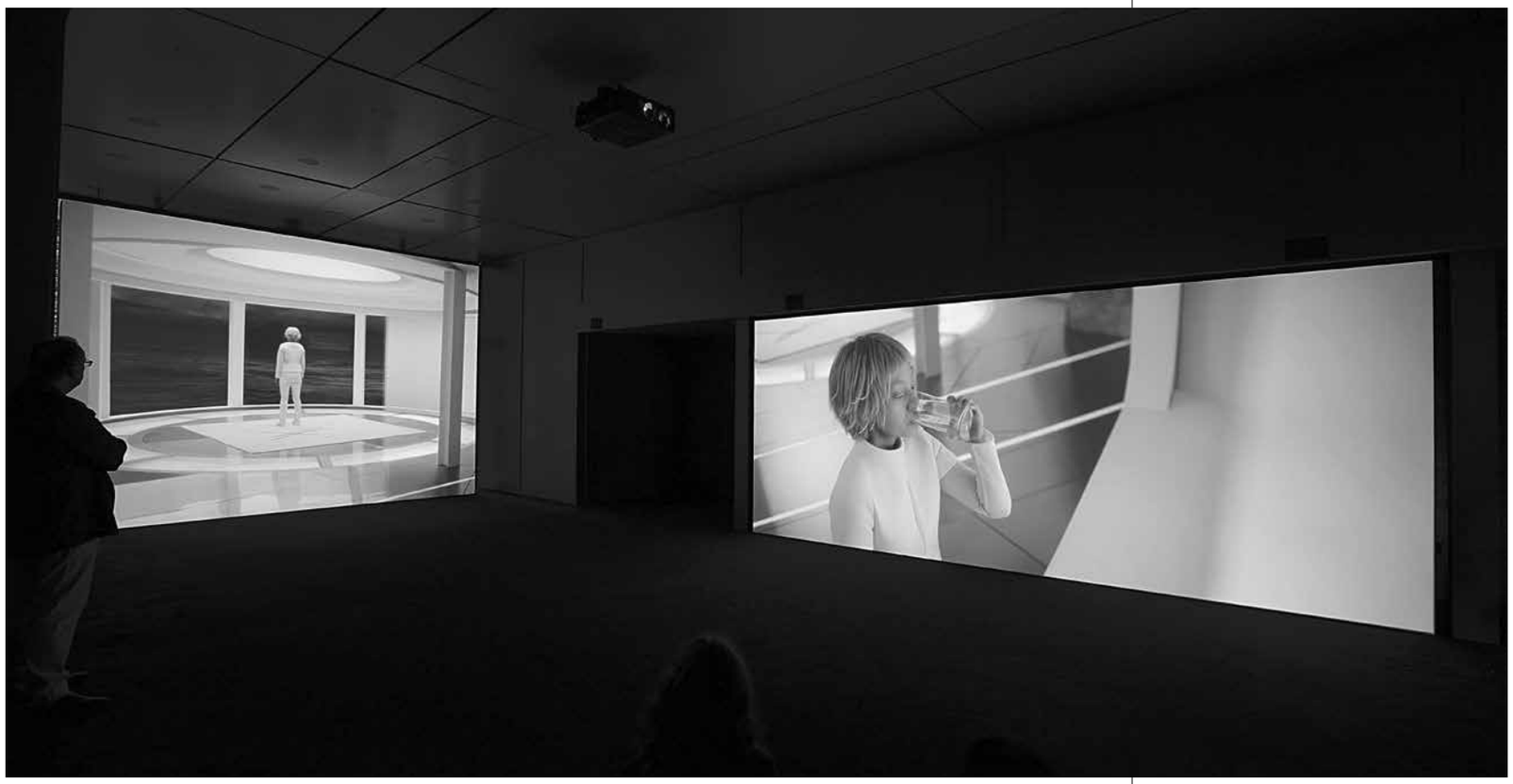
〈축지법과 비행술〉 작품소개

〈축지법과 비행술〉은 문경원, 전준호 작가가 한국관의 구조적 특성을 살려 다채널 영상 설치 작업으로 풀어 낸 작업이다.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돌아보고자한 이 작업은 과거와 미래, 상상과 고고학적 탐구를 씨실과 날실처럼 교차시키는 과정 안에서 새로운 맥락과 가능성을 드러내는 일종의 우회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변모하는 사회적, 정치적 흐름 안에서 현재의 권위적인 위치와 크기로 성장한 베니스비엔날레의 제도적, 역사적 변화의 과정을 재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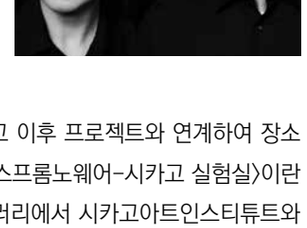
전시의 영문 제목은 '축지법'과 '비행술'에서 영감을 받았다. 축지법이란 도가의 술법에서 비롯된 '땅을 접는 법'이란 뜻으로, 같은 거리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가공의 기술이다. 비행술이란 순간 이동과 공간 이동에 대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축지법과 비행술은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물리적, 인지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내재적 열망에 기인한다.

베니스에서 선보이는 이번 작업은 불확실과 불안정이 팽배하는 현시대에 예술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역할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구해 온 두 작가의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두 작가의 작업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예술과 창의력에 대한 현재의 가치와 정의가 지속 불가능할 수도 있는 미래의 비전을 그려냄으로써 보다 본질적인 차원으로의 접근을 시도한다. 문경원과 전준호 작가에게 예술이란—다소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게 보일 수 있는 축지법과 비행술의 개념과 같이—설명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고, 경탄하며, 또 극복하게끔 하는 인간 욕망의 일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Photo by Hongsoon Park



2) 커미셔너 및 큐레이터 소개



이숙경 큐레이터는 현재 영국 테이트 미술관 아시아 미술 연구소(Tate Research Centre: Asia)의 수석 리서치 큐레이터이자 아시아 태평양 소장품 구입 위원회(Asia Pacific Acquisitions Committee at Tate)의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2007~2012년 테이트 리버풀의 전시 큐레이터를 역임하였다. Tate에서의 주요 기획전으로는 〈백남준〉(2011), 〈Doug Aitken: The Source〉(2012), 〈Thresholds: Liverpool Biennial 2012〉 등이 있다. 이숙경 큐레이터는 홍익대학교에서 예술학 학사와 석사 과정을 거쳐 영국의 University of Essex에서 미술사와 미술이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시 외에도 국제 현대미술에 대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국내외에서 지속해왔다.

3) 작가 소개



문경원 & 전준호 | 공동작업 이력

문경원과 전준호는 2009년부터 지속해 온 공동작업으로 학제간의 경계, 사회와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현 예술의 지향점과 사회 전반을 성찰하고 다가올 미래를 그리는 프로젝트인 〈미지에서 온 소식(News from Nowhere)〉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카셀 도쿠멘타13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장소 특정적 작업으로 확장시키며 시카고에서는 〈뉴스프롬노웨어-시카고 실험실〉이란 타이틀로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의 설리반갤러리에서 시카고아트인스티튜트와 협업이 진행되었다. 2015년 8월에는 〈뉴스프롬노웨어-취리히 실험실〉로 취리히의 미그로스미술관에서 새로운 협업이 소개된 바 있다.

이 외의 주요 참여전시로는 ZKM 카를스루에 〈GLOBALE: Exo-Evolution〉(2015), 후쿠오카 트리엔날레(2014),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10주년 기념전 〈교

감〉(2014), 싱가포르 아트 비엔날레(2013), 베이루트 아트센터 〈Home Works 6〉(2013), 베이징 UCCA 〈Multitude Art Prize〉(2013), 광주비엔날레(2012),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2012) 등이있다.

문경원, 전준호의 공동작업은 2012년 광주비엔날레 〈눈〉 예술상, 국립현대미술관과 SBS 문화재단의 2012년 〈올해의 작가상〉, 2013년 멀티튜드 재단의 〈멀티튜드 아트 프라이즈〉를 수상하였다.

공식 웹사이트: www.newsfromnowhere.kr

문경원 | 주요 전시 이력

문경원은 서울에서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와 미국의 칼아츠(Cal Arts)에서 미술 공부를 하였고 연세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 일본 야마구치 센터 포 아트 앤드 미디어, 2010년 갤러리현대, 2004년 일본 후쿠오카시립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2013년 야마구치 센터 포 아트 앤드 미디어의 〈Art and Collective Intelligence〉, 2009년 터키의 이스탄불 미술관에서 〈A Different Similarity〉, 2008년 백남준미술관의 〈Now Jump〉 등의 단체전에 참여 하였다.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제주도 Genius Loci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하는 한편, 서울 스퀘어의 미디어 캔버스 프로젝트 등 여러 퍼블릭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현재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준호 | 주요 전시 이력

전준호는 부산에서 태어나 동의대학교 미술학과와 영국 첼시 미술대학원에서 미술 공부를 하였다. 2014년 갤러리현대, 2009년 동경의 스카이 더 바스하우스, 2008년 파리의 테디우스 로팩 갤러리와 한국의 아라리오 갤러리 그리고 2007년 뉴욕의 페리 루벤스타인 갤러리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고, 2012년 미국 워커아트센터의 〈Life Like〉, 2011년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2009년 LACMA와 2008년 휴스턴 미술관의 〈YOUR BRIGHT FUTURE〉와 파리의 에스파세 루이비통의 〈Metamorphosis〉, 2007년 동경의 모리 미술관의 〈All About Laughter〉 등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2004년 광주비엔날레 비엔날레 상과 2007년 류불랴나 그래픽 비엔날레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4) 전시 크레딧

주최 및 주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Arts Council Korea)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Fondazione la Biennale di Venezia)

커미셔너 & 큐레이터 | 이숙경(Sook-Kyung Lee)
전시 코디네이터 &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 김은지(Diana E. Kim)

한국관 매니저 & 건축 수퍼바이저 | 김은정(Eun Jeong Kim)
한국관 코디네이터 & 건축 수퍼바이저 | 변준희(Jun Hui Byun)

협찬 및 후원 | Main Sponsor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

Additional Sponsors
아시아나(Asiana Airlines)
베이직테크(Basictech Co. Ltd.)
제일모직(Cheil Industries)
유수홀딩스(Eusu Holdings)
갤러리현대(Gallery Hyundai)
코오롱(KOLON)
라카이샌드파인(Lakai Sandpine)
네이버(NAVER)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SBS미디어그룹(SBS Media Group)

Support
삼성문화재단(Samsung Foundation of Culture)

5) 일별 관람객 수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일별 관람객 수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날짜	요일	인원	요일	인원	요일	인원	요일	인원	요일	인원	요일	인원	요일	인원
1일			월	1,701	수	1,123	토	1,389	화	1,987	목	1,800	일	3,345
2일			화	2,068	목	1,323	일	1,619	수	1,952	금	1,893	월	휴무일
3일			수	1,113	금	1,127	월	휴무일	목	1,925	토	2,800	화	3,863
4일			목	2,176	토	1,531	화	2,537	금	1,964	일	2,315	수	2,543
5일	화	1,705	금	1,625	일	1,145	수	1,868	토	2,014	월	휴무일	목	3,507
6일	수	4,054	토	1,640	월	휴무일	목	1,216	일	2,246	화	2,580	금	3,265
7일	목	3,687	일	1,344	화	1,702	금	1,241	월	휴무일	수	1,982	토	6,310
8일	금	3,051	월	휴무일	수	1,528	토	1,444	화	2,769	목	1,875	일	5,796
9일	토	2,851	화	1,566	목	1,817	일	1,392	수	1,803	금	3,005	월	휴무일
10일	일	2,036	수	1,362	금	1,718	월	휴무일	목	1,923	토	3,788	화	3,396
11일	월	882	목	1,337	토	1,892	화	2,194	금	2,014	일	3,193	수	2,418
12일	화	2,017	금	1,239	일	1,731	수	1,950	토	3,237	월	휴무일	목	3,076
13일	수	1,098	토	1,423	월	휴무일	목	1,551	일	2,367	화	2,639	금	2,250
14일	목	1,178	일	1,153	화	1,979	금	1,755	월	휴무일	수	2,252	토	5,871
15일	금	1,119	월	휴무일	수	1,375	토	1,111	화	1,898	목	2,566	일	5,380
16일	토	1,465	화	1,723	목	1,582	일	1,961	수	1,385	금	2,138	월	2,401
17일	일	1,234	수	859	금	1,322	월	휴무일	목	1,666	토	3,750	화	2,398
18일	월	휴무일	목	996	토	1,662	화	2,391	금	3,239	일	3,643	수	2,351
19일	화	1,177	금	1,191	일	1,188	수	1,559	토	3,266	월	휴무일	목	2,003
20일	수	793	토	1,331	월	휴무일	목	1,911	일	2,740	화	3,361	금	3,725
21일	목	1,027	일	1,914	화	2,181	금	1,673	월	휴무일	수	2,421	토	4,121
22일	금	929	월	휴무일	수	1,459	토	1,753	화	2,407	목	2,657	일	4,512
23일	토	1,144	화	1,734	목	1,297	일	1,493	수	1,456	금	3,420		
24일	일	1,772	수	1,529	금	1,359	월	휴무일	목	1,796	토	4,550		
25일	월	휴무일	목	1,207	토	1,478	화	2,453	금	2,726	일	3,626		
26일	화	1,470	금	1,393	일	1,638	수	1,967	토	3,602	월	휴무일		
27일	수	1,262	토	1,681	월	휴무일	목	1,721	일	2,811	화	3,972		
28일	목	1,075	일	1,383	화	1,894	금	1,534	월	휴무일	수	2,334		
29일	금	1,041	월	휴무일	수	1,356	토	1,925	화	2,620	목	1,898		
30일	토	1,491	화	1,571	목	1,318	일	1,769	수	1,731	금	2,825		
31일	일	1,611			금	1,559	월	휴무일			토	4,060		
합계		41,169		38,259		41,284		45,377		58,544		77,343		72,531
총계								374,507명						
일평균 (전시기간 총 177일)								2,116명						

6) 주요 관람객

프리뷰 기간 주요 관람객 명단(해외인사 위주)

Marina Abramovic, artist
El Anatsui, artist
Tobias Berger, Head of Art, Tai Kwun: Central Police Station, Hong Kong
Iwona Blazwick, Director, White Chapel Gallery, UK
Richard Chang, Co-chair of Tate International Council
Melissa Chiu, Director,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USA
Chris Dercon, Director, Tate Modern, UK
Massimiliano Gioni, Associate Director & Director of Exhibitions, New Museum, USA
Simon Groom, Director, Scottish National Gallery of Modern Art, UK
Peter Gorschlüter, Deputy Director, MMK Frankfurt am Main, Germany
Christoph Grunenberg, Director, Kunsthalle Bremen, Germany
Director of Hauser & Wirth Gallery
Representatives of Maya Hoffman Foundation
Isaac Julien, artist
Anish Kapoor, artist
Jean de Loisy, President of Palais de Tokyo
Jessica Morgan, Director, DIA Art Foundation, New York
Yoshiko Mori, Founder, Mori Art Museum, Tokyo
Heike Munder, Director and Founding Members of Migros Museum für Gegenwartskunst, Switzerland
Lars Nittve, Founding Director of Tate Modern & Executive Director of M+, Hong Kong
Hans-Ulrich Obrist, Co-director, Serpentine Gallery, UK
Julia Peyton-Jones, Co-director, Serpentine Gallery, UK
Sir Nicholas Serota, Director, Tate, UK
Esther Schipper, Director of Esther Schipper Gallery, Germany
Nick Simunovic, Director of Gagosian Gallery, Hong Kong
Bettina Steinbruegge, Director, Kunstverein in Hamburg, Germany
Julia Stoschek, Founder, Julia Stoschek Collection
Amanda Wilkinson, Co-director of Wilkinson Gallery, UK

전시 기간 주요 단체 관람

FACT (Foundation for Art & Creative Technology)
Guggenheim New York, Trustees & Patrons(45명)
Guggenheim Venice, Board Members(20여명)
Hirshhorn Museum and Sculpture Garden, Board Members(20여명)
M+, Hong Kong Art Council VIP(10여명)
Tate International Council & Acquisitions Committees(50여명)
White Chapel Gallery, Board Members(10여명)

전시기간 주요 관람객 명단

5월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6월
윤재옥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외

7월
하태경 국회의원
임동락 부산 비엔날레 운영위원장
광주 시장 및 광주 비엔날레 관계자

8월
박민권 문화제육관광부 1차관

9월
Paul Allen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이진원 벨기에 & 유럽 연합 한국문화원원장
John Whittingdale 영국 문화부 장관

10월
뉴질랜드 문화부 장관
안홍준 국회의원

7) 감사의 말

이번 한국관 전시에서 문경원 & 전준호 작가는 현재까지의 공동작업 중에 가장 야심찬 작업을 선보였으며 이는 많은 분들의 지지와 후원, 협업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우선 한국관 전시의 주최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권영빈 위원장님, 류재수 국제교류부 부장님, 임기현 대리님 외 많은 예술위 관계자분들께서 전시의 준비 및 개막 전과정에 기탄없는 조언과 지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베니스 현지에서 전문적인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큰 도움을 주신 김은정 매니저님, 변준희 코디네이터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시의 실질적인 구현에 현지 사정과 한국관의 역사를 잘 아시는 이 두 분의 기여가 컸습니다.

작품의 정교함과 스케일에서 감지되듯 실로 많은 분들께서 작품의 제작과정에 있어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미 도록과 별도의 개별 인사를 통해 감사를 표한 바 있지만, 특별히 영화사 봄의 오정완 PD님, 배우 임수정 님, 영상작품의 의상과 한국관 홍보 가방을 디자인하신 정구호 님, 사운드 제작에 함께 해 주신 강기영, 장영규, 오영훈 님, CG를 담당하신 윤재훈 님,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작업 해 주신 윤종현 님외 많은 분들께 저희들의 감사를 전합니다.

영문으로 발간된 한국관의 전시 도록 출간에도 많은 분들이 애써주셨습니다. 작가분들의 과거 작품에 대한 심도있는 글을 기고 해 주신 Mary Jane Jacob (The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작품의 기반이 된 논지를 보다 깊이 있는 대화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인터뷰에 응해주셨던 Hans Ulrich Obrist (Serpentine Gallery), Amit Sood (Google Cultural Institute), 그리고 각각의 연구 분야에서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개념을 해석하는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대식 교수님, 유재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도록의 디자인과 편집 작업에 도움을 주신 영국 Culture Shock Media 관계자분들, Sarah Goddard, Andrew Fairclough 님과 한국에서의 디자인 작업에 참여해 주신 강경탁 님, 임경용 님, 박수미 님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시가 성황리에 개최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현대자동차, 삼성문화재단, 아시아나, 베이직테크, 복순도가, 제일모직, 유수홀딩스, 갤러리현대, 코오롱, 라카이샌드파인, 네이버, 삼성전자, SBS 미디어그룹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한 페이지에 언급하기에는 부족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협력과 노고를 통해 이루어진 전시였던 만큼 향후 각각의 행보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과 도약의 계기가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 추진단

MANUAL

1. 운영

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

제정 2005.12.26
개정 2008. 1.11
개정 2009.11.20
개정 2013. 1.24
개정 2015.12.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베니스비엔날레한국관(이하 '한국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재지)
한국관은 이태리 베니스시의 카스텔로공원(the Castello Gardens) 내에 둔다.

제3조 (사업)
한국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을 한다.

1.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 작가의 작품 전시
2.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 작가의 작품 전시
3. 국제전(본 전시) 참가 한국작가 지원, 한국관 귀국전, 전시 아카이브 사업 등 한국관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5.12.24〉

제4조 (준수사항)
한국관은 베니스비엔날레조직위원회(The Ente Autonomo La Biennale di Venezia)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2장 예술감독선정위원회

제5조 (선정위원회)

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관 전시 및 운영을 총괄하는 커미셔너의 역할을 하며, 한국관의 전시를 위한 예술감독 선정을 위하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미술전과 건축전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5.12.24〉

② 선정위원회는 사계 전문인사 7인 내외와 당연직 위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또는 예술국장) 2인을 포함하여 총 9인 내외로 구성하며 담당부서장은 간사가 된다. 〈개정 2009.11.20〉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사계 전문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9.11.20〉 〈개정 2015.12.24〉

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및 예술감독, 혹은 참가작가 경력이 있는 인사 〈신설 2009.11.20〉 〈개정 2015.12.24〉
2. 미술 · 건축 분야에서 작품 · 기획 · 비평 · 이론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활동하였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문화예술 국제교류에 대한 식견이 있는 인사 〈신설 2009.11.20〉

⑤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⑥ 선정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베니스비엔날레 개최 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⑦ 예술감독의 정식 영문명칭은 비엔날레 재단 규정에 따라 Artistic Director가 아닌 Cur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한다. 〈신설 2015.12.24〉

제6조 (회의)

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선정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5.12.24〉

1.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및 건축전 예술감독 선정
2. 예술감독이 작성 · 보고하는 전시 기획안에 대한 자문
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자문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④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사계 전문인사 선정위원은 미술, 건축 등 해당 분야 위원회에만 참석한다.

⑥ 제2항 제1호의 예술감독 선정회의는 익년도 해당 분야 전시의 총감독이 선정된 이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7조 (사무 및 수당)

① 선정위원회의 사무는 사무기구운영규정에서 규정한 소관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8.1.11〉

② 선정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한국관 관리

제8조 (관리 인원의 파견 및 고용)
한국관의 관리를 위하여 이태리 현지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현지인 또는 현지 거주 한인을 일시 고용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파견 직원 또는 현지 고용직원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
현지 사무는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베니스비엔날레 참가

제11조 (예술감독) 〈개정 2015.12.24〉

① 예술감독는 해당 연도 베니스비엔날레 주제 등을 감안하여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② 선정된 예술감독는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 통보한다.

③ 예술감독는 다음 업무를 각호의 1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베니스비엔날레 참가 작가 선정
2. 전시 기획 및 작품 전시와 관련한 업무
3. 참가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홍보 활동
4.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제12조 (작가 선정)

참가 작가는 예술감독이 선정하되, 선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필요시 선정위원회는 작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2.24〉

제13조 (전시 기획안)

예술감독은 전시 기획안을 작성하여, 선정위원회에 보고 및 자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전시 기획안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제14조(해촉)〈신설 2013.1.24〉

① 한국관의 전시를 총괄하는 예술감독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전시운영과 관련한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24〉〈개정 2015.12.24〉

② 해촉시 예술감독선정위원회의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해촉한다.
〈신설 2013.1.24〉〈개정 2015.12.24〉

제15조 (사무) 〈개정 2015.12.24〉

① 베니스비엔날레 참가에 따른 업무는 커미셔너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감독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5.12.24〉

② 베니스비엔날레 개최 기간 중의 현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약간 명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커미셔너 매뉴얼

베니스비엔날레 개요

* 베니스비엔날레는 1895년 이탈리아 국왕부처의 제25회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여 베니스시가 창설한 미술전시회로 세계 현대미술계에서 휘트니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와 함께 가장 영향력 있는 미술행사로 꼽힘
* 베니스비엔날레는 휘트니비엔날레, 상파울로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미술행사로서 세계 미술계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영향력 있는 국제 미술전임
* 베니스비엔날레는 베네치아시의 남동쪽 카스텔로 공원 내 10만평의 부지위에서 펼쳐지고 제2회 파리박람회의 운영방식을 차용해 국가관별로 전시를 개최하는 게 특징임. 또한 미술 뿐 아니라 영화 · 건축 · 음악 · 연극 등5개 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시각에 독립된 행사를 벌이고 있음
* 베니스비엔날레의 미술전은 크게 '국가관전시(자르디니)', '이탈리아관(파비용 이탈리안)', 젊고 실험적인 작업을 소개하는 '아르세날레전'으로 구성됨
* 베니스비엔날레의 상은 국가관에 수여하는 황금사자상(Golden Lion for Best National Participation), 작가에게 수여하는 황금사자상(Golden Lion for the best artist), 35세 미만의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은사자상(Silver Lion for a promising young artist), 그리고 특별상(Special Mentions)이 있음. 심사는 세계적 권위를 가진 미술관장이나 미술사가, 평론가들 4-5명이 초청돼 심사위원을 맡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1986년 42회 때 고영훈, 하동철 작가가 베니스비엔날레에 최초로 참가하였음. 이후 백남준이 1993년 독일관 대표로 참가해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받은데 이어 1995년 전수천, 1997년 강익중, 1999년 이불이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음
* 우리나라는 1986년에 첫 참가 이후 전시관이 없어 이태리관의 작은 공간을 배정받아 참가하던 중, 1995년 26번째로 독립된 국가관인 한국관을 건립 우리 미술의 해외 소개를 위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수행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요

위치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Giardini di Castello, Venezia)

주소 Il Padiglione Coreano Biennale di Venezia Giardini di Castello 30122 Venezia, Italy

전화 +39-41-277-0990

팩스 +39-41-71-0506

현지 코디네이터 +39-338-1715-270

* 층 수: 지상 1층 (트랜스패런트홀, 히스토리컬홀, 실린더홀 등 3개 전시장)
* 건축면적: 219.7㎡
* 연면적: 242.6㎡ (약 73평)

* 구조: 철골조
* 착공연월일: 1994. 11. 8
* 준공검사일: 1995. 5. 30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의 역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정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는 익년도의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건축)전 한국관 전시를 총괄하기 위하여 한국관 운영주체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미술(건축) 전문가를 말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기획과 운영의 권한을 갖고, 우리나라 미술(건축)과 작가들을 세계에 소개하는 임무를 맡게 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수행 업무

[1] 전시 기획 및 총괄
- 커미셔너는 미술전(건축전)의 주제를 해석하여, 전시 기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관의 주제, 설명, 전시도면 등 전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2] 작가 및 작품의 섭외, 선정
- 커미셔너는 전시 기획에 따른 참가 작가를 선정해야 하고, 참가작가의 작품 제작 및 전시 지원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총괄함
- 커미셔너는 참가 작가 등 전시 내용을 포괄하는 전시 기획서를 작성하고,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3] 도록 등 인쇄유인물 제작
- 커미셔너는 전체행사 주최인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라 한국관 전시 내용에 대한 각종 자료와 원고를 제출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행사를 위한 도록 등 각종 인쇄유인물을 제작하여야 함. 인쇄유인물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자임을 명시하여야 하고,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귀속됨
- 도록은 최소 500부 이상 제작하여야 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보관용100부를 제출하여야 함

[4] 전시 디자인
- 커미셔너는 작품의 배치, 공간 분할, 조명, 관객의 동선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한국관의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여야 함
- 한국관 개관 최소 3개월 이전까지 전시 디자인(도면)을 완성하고, 베니스 현지 공간매니저와 협의하여야 함
- 한국관 건물의 구조 및 내부변경과 관련된 작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전 합의를 얻어야 함

[5] 전시 준비
- 커미셔너는 전시공간 조성을 총괄하며, 전체 행사 일정을 고려하여 차질이 없도록 전시를 추진하여야 함
- 전시공간 조성, 작품 운송, 작품 보험, 전시 종료 후 철거 공사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전시지원금에 포함하여야 함

[6] 개막식 및 개막식 만찬
- 한국관 개막식 및 개막식 만찬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커미셔너 공동주최로 개최하고, 커미셔너는 동행사를 주관하여야 함
- 초청대상, 개최장소, 진행식순 등 행사내용을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7] 홍보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의 국내 및 해외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관의 홍보 활동을 위해 개최하는 기자회견 및 각종 홍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현지에서 프리뷰 기간에 배포할 프레스 킷(국/영문, 작품사진을 담은 CD포함)을 제작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별도의 한국관 전시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하여야 하며 수록 내용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함

[8] 문화예술진흥기금 교부 및 정산
-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신의성실하게 한국관 전시를 위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운용지침 및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금 관리규정 을 준수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전시지원금에 다음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추진단 구성 및 운영경비
  -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 종료 후 철거 공사비
  - 작가의 작품제작비
  - 도록,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비 및 각종 홍보비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관련 홈페이지 제작
  - 작품 운송경비
  - 작품 운송, 보관, 전시 관련 보험경비
  - 커미셔너와 작가의 출장경비
  - 커미셔너 사례비
  - 통역 및 번역, 실무진 운용 등 관련 경비
  - 개막식, 개막식 만찬, 기타 부대행사 경비
  - 세무사 기장 및 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경비
  - 기타 업무추진 운영경비 등 커미셔너와 작가의 제반 활동경비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증을 취득하여야 함. 추진단의 대표는 커미셔너가 수행하며, 사무국 내 1인 이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로 선임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지원금 신청 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안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항목별 지원금액을 조정 지급할 수 있음

- 커미셔너는 전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기업체 등의 협찬을 유치하여 미술전 경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추후 후원 및 사용내역을 사업성과보고서에 포함시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사업성과보고서 제출 시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업무흐름도

차례	구분	내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계약체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신임커미셔너 계약체결
2	커미셔너 선정 기자회견 참석	예술 위원회 주최 '커미셔너 선정 기자회견' 참석
3	고유번호증 발급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추진위원회' 임의법인 설립
4	전시지원금 신청, 수령	국가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교부신청
5	전시계획 수립	참여작가 선정 및 전시 계획 수립
6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자문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에 전시계획 보고 및 자문
7	전시기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	예술위 주최 '전시기획 발표 기자회견'에 참여작가와 함께 참석
8	전시 추진	전시 공간 조성 및 전시 추진
9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운영	웹디자이너를 고용하여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제작 후 예술위 제출
10	도록 및 인쇄물 제작	도록, 포스터, 브로셔 등 인쇄물 제작
11	한국관 개막 기자간담회 개최	프레스 킷 제작, 베니스 현지 개막식 전 기자간담회 개최
12	한국관 개막식 추진	한국관 개막식 및 리셉션 추진
13	전시 성과 보고회	한국관 전시 중 한국에서 '전시 성과보고회' 개최
14	한국관 전시 종료 후 철거	전시 종료 후 전시장 철거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성과보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업무 세부내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계약 체결

-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익년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가 확정된 후, 신임커미셔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건축)전 한국관 전시 계약서'를 체결함
- 계약 체결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임커미셔너에게 계약서 내용을 제공하고, 신임커미셔너는 계약내용의 검토 가능

- 세부 내용은 본 백서에 첨부된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전시계약서' 참조

[2] 커미셔너 선정 기자회견 참석

- 신임커미셔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건축)전 한국관 전시 계약서'를 체결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건축)전 한국관 커미셔너 선정 기자회견'을 개최함(주요일간지, 월간지 미술전문기자 20~30여명 참석)
- 신임커미셔너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홍보를 위해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야 함
- 이 기자회견은 신임커미셔너의 선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자회견으로 전시계획과 참여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임커미셔너로서의 포부와 소감, 전시를 위한 구상 등을 밝히는 자리임

[3] 고유번호증 발급

- 개인에게 문예진흥기금 전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원천세 등 세금문제, 해외송금 상한액 제한 등 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신임커미셔너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추진 위원회'라는 별도의 임의법인을 설립하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함
-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한 필요서류
  - 단체규약 (정관 혹은 회의록)
  - 대표자선임 관계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무실이 임대일 경우)
  - 단체 도장
  -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지로 등록하면 별도 필요 없음

  ※ 커미셔너가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으로 갈음 가능

[4] 전시지원금 신청, 수령

-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 전시 지원금은 총 4억원임
- 4억원 중 전시 전년도에 전시준비금으로 4천만원을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3억 6천만원을 지원함
- 전시지원금을 수령을 위해 커미셔너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교부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교부 및 정산 관련 세부내용은 별도의 '201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보조사업 매뉴얼' 참조
- 지원금 교부조건 특이사항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지원사업은 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자부담을 면제하고, 약정서에 명시된 항목을 포함하여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경비에 대한 지원금 집행을 인정함
  - 전시 관련 출장경비: 숙박비를 제외한 체재비(식비, 일비)의 경우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한 금액에 한해서는, 입금증 등 계좌 이체 관련 자료, 해당 기간

내 현지 체류 증빙 자료(여권 사본, 항공권 등)로 집행 증빙을 갈음함

· 숙박비의 경우 베니스 현지의 높은 물가 및 비엔날레 성수기 숙박비 급등 현실을 고려하여 실비 집행하고 영수증으로 증빙하도록 함

· 해외에서 지출하는 경비의 경우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시 현금 집행을 할 수 있음 (증빙 필수)

[5] 전시계획 수립

- 신임커미셔너는 위촉된 이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위하여 전시주제, 참여작가, 전시내용 등이 수록된 전시계획을 수립함
- 전시 계획에는 한국관 공간배치 도면 및 제안서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
- 작가 선정은 커미셔너 고유권한이나, 전시 컨셉 및 사회적인 반향을 고려하여 예술위원회와 상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1999년 이불작가 작품 운송 시 작품이 일부 파손되어 매우 곤란한 일이 발생했음. 2001년에는 이에 대비, 작가와 최초로 약정을 체결, 이러한 사고에 대해 책임과 소재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음

※ 커미셔너가 요청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커미셔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자문회의'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 (마케팅 전문가, 건축 전문가, 인테리어 전문가, 인문학자, 공연 전시 연출가 등)

[6] 커미셔너 선정위원회 자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에 따라 커미셔너 선정위원회는 커미셔너가 작성 보고하는 전시기획안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음
- 커미셔너는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전시 기획안을 설명하고, 선정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함

[7] 전시기획 발표 기자회견 참석

- 커미셔너의 전시 기획안이 확정된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기획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에는 커미셔너, 참여 작가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고, 전시기획을 프리젠테이션하여야 함
- 커미셔너는 별도의 웹하드를 개설하여 전시기획안, 작가 약력, 전시관련 이미지를 업로드하여야 함

※ 웹하드를 통해 전시 관련 보도자료 및 그림 파일을 공유하게 되므로 전시 종료시까지 관리 필요

[8] 전시추진

- 한국관 개막식 일정 확정

· 베니스비엔날레 프리뷰 기간이 3일 내외이기 때문에 한국관 주변에 소재한 러시아관, 일본관, 독일관, 캐나다관, 영국관 등의 일정과 겹치지 않게 일정 확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현지 김은정 매니저와 상의하여 일정 확정

- 유관기관 및 각계 관계자 초청: 전시개막 최소 2개월 전부터

· 비엔날레 측에서 제공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초청장 신청

※ 엑셀 양식으로 되어 있음. 영문 성명,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등 기재

※ 국가관 별로 초청장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예술위원회의 협의 필요

· 신청 리스트에 따라 비엔날레 측에서 해당자 이메일로 온라인 초청장 발송. 초청장 미보유시 입장 불가

- 한국관 전시공간 조성

· 미술전/건축전 시 전시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작가의 작품이 한국관에서 가장 잘 전시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조성하는 작업

※ 2015년 미술전 주제는 'All the World's Futures'로 커미셔너의 해석을 통해 한글화 작업 필요

- 현지자문건축가, 한국관 코디네이터와 상의하여 현장 실측, 총괄계획 작성 및 확정 (확정 이후 변동은 최소화해야 함)
- 현지 업체 선정

· 통상 공사 추진 시 공개입찰보다는 이태리 현지에서 추진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동 공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시장 시공실적 및 한국관의 세부 구조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업체의 견적을 접수, 현지 자문건축가의 감리를 통해 결정함

- 공사 완료 후 자문건축가의 감리 보고서 접수

· 전시 공간 조성은 한국관 내외공간을 기본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시 공간 조성을 수용해야 함

- 작품 운송

· 작품설치를 위한 작품 운송은 항공편을 원칙으로 함. 단, 통관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소 열흘 전에는 발송이 되어야 함

· 작품 철수 시 반송교통은 선편으로 함

- 작품 보험가입

· 작가에게 작품산정가를 물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9]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운영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의 홍보를 위해 별도의 웹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전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홈페이지를 개막 최소 2개월 전에 제작하여야 함
-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목차는 '한국관 전시소개', '커미셔너 소개', '참여작가 소개', '전시 사진', '자료실', '보도자료', '연락처' 등으로 구성함
-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 홈페이지 디자인 및 수록내용을 담은 HTML자료를 CD로 제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10] 도록 및 인쇄물 제작

- 도록/인쇄유인물은 한국관과 작가 소개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야 함
- 스폰서 및 예술위원회 로고 배치, 도록 내 문구 등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제작 초기부터 작가, 스폰서, 예술위원회 요구사항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제작하여야 함
- 도록인쇄 직전 마지막 사진배치, 텍스트 등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오탈자나 배치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도록의 표지 및 판권 부분 등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가

정확하게 표기되었나 확인 필요. 특히 주최(Organize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후원(Sponsors)이 분명히 구분되도록 작성 필요

- 제작된 포스터의 경우 베니스 현지 홍보를 위해 베니스 시내에 부착하여야 하는데, 베니스 시내에 공식적으로 포스터를 부착할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에 베니스 현지매니저와 협의 추진 필요

[11] 한국관 개막 기자간담회 개최 (베니스 현지)

- 언론용 프레스 킷 제작
  - 한국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프레스 킷 200-300부 제작 필요
  - 프레스 킷은 한/영문 전시 설명 및 작가 약력자료(2-4 page), 투명 플라스틱 클리어 파일, 도록, 슬라이드 및 사진(CD나 USB), 간단한 선물, 부직포 가방을 한 세트로 함
  - 프레스 팩도 중요한 홍보수단이므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함. 2011년 한국관의 경우 가방에 프레스 킷을 담아 좋은 호응을 얻었음
  - 작가관련 영문기사 스크랩하여 전시관에 배치하면 홍보에 많은 도움
- 기자간담회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국제적인 홍보를 위해 개막식 당일 행사 직전 '한국관 전시 홍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였음 (장소는 한국관 옥상이나 건물 내부에서 개최함)
  - 기자간담회 개최는 베니스비엔날레 전체 홍보 브러셔에 게재되어야 하므로 시간, 장소 확정 후 베니스비엔날레 재단에 통지 필요

[12] 한국관 개막식 추진

- 사전 준비
  - 커미셔너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는 개막식 추진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의 필요: 개막식 캐터링, 보도자료 초안, 식순
  - 개막식은 더운 날씨를 감안해 선선해지는 오후 5시 무렵에 개막식을 진행하고 연이어 리셉션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음 (장소는 한국관 앞뜰이나, 옥상에서 개최)
  - 개막식의 경우 가능한 한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하고 예술위 임원은 시작할 때 축사(3분 이내), 주이탈리아한국대사 혹은 유관부처 관계자의 경우 건배 제의 정도로 마무리함

  ※ 사회(예술위원회 담당부장) → 개회사(예술위 임원) → 축사(주이탈리아 한국대사 등 주요참석인사 중 섭외) → 사회변경(담당부장 커미셔너) → 커미셔너 인사 → 주요참석인사 소개 → 커미셔너 전시 소개 → 작가 소개 → 축배 → 개막식 종료 → 다과 → 커미셔너 전시장 안내 → 개막식 종료

  - 개막식 총 진행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자연스럽게 전시장 투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
- 리셉션
  - 개막식 후 별도의 공간(구겐하임미술관, 인근 음식점, 퀘리니 스탐팔리아 등)을 예약하여 리셉션을 추진하여야 함 (간단한 케터링 준비 포함)
  - 리셉션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커미셔너가 공동 주최하는 형식이며, 행사 준비 및 진행은 커미셔너가 추진함
  - 커미셔너는 초청대상, 개최장소, 진행식순 등 행사내용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13] 전시 성과 보고회

- 전시 성과 보고회
  - 한국관 전시의 국내 홍보를 위해 '성과공유 간담회' 또는 '귀국 보고 프로그램' 실시 필요(Film 상영, ppt 등)

[14] 한국관 전시 종료 후 철거

- 커미셔너는 전시 종료 후 현지매니저와 협의하여 전시장을 철거하여야 함
- 전시 종료후 3개월 이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산 및 지원사업성과보고를 완료하여야 함

※ 성과보고 일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담당자와 협의 필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전시 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이숙경(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 이하 "커미셔너"라 한다)은 2015년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전시행사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이하 "미술전"이라 한다) 한국관 전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회"와 "커미셔너"의 상호 역할을 명백히 하여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행사 개요)
① 행 사 명 :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② 행사기간 : 2015.5.9 ~ 11.22
③ 행사장소 : 이탈리아 베니스시 카스텔로 공원
④ 주　　제 : <모든 세계의 미래>(All the World's Futures)
⑤ 총 감 독 : 오쿠이 엔위저
⑥ 주　　최 : 베니스비엔날레 재단(the Venice Biennale Foundation)
⑦ 한국관 전시행사
1.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ts Council Korea/ ARKO)
2. 커미셔너 : 이숙경

제3조(계약 기간) 공식 계약 기간은 "위원회"가 "커미셔너"에게 한국관 커미셔너로 통보한 날로부터 미술전 행사 종료 후 한국관 참가 작품 대여인에게 작품 반환 및 사업성과 보고서 제출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4조(수행 업무)
① 전시 기획 및 총괄
1. "커미셔너"는 미술전 주제를 해석하여 한국관의 전시기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커미셔너"는 한국관 주제, 설명, 사진자료 등 전시 관련 확정 자료를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베니스 비엔날레 재단에서 정한 기한까지 동 재단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작가 및 작품의 섭외, 선정
1. "커미셔너"는 전시 기획에 따른 작가를 선정하고 전시기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2014년 12월까지 미술전 커미셔너 선정위원회에서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커미셔너"는 참가작가의 작품 제작 및 전시 지원 등 제반 관련 사항을 총괄한다.

③ 도록 등 인쇄유인물 제작
1. "커미셔너"는 미술전 전체 도록에 게재되는 한국관 전시 내용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원고를 미술전 주최 측의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커미셔너"는 한국관 전시행사를 위한 도록 등 각종 인쇄유인물을 기획, 제작하며, 인쇄유인물에는 "위원회"가 주최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커미셔너"가 기획·제작한 각종 인쇄유인물에 대한 저작권은 "위원회"에게 귀속한다. 단, 현지 판매분 및 국내 판매분에 대한 수익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커미셔너"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또한 인쇄 및 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커미셔너"에게 위임하되, 최종결정은 "위원회"와 "커미셔너"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커미셔너"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초판이외에 재판을 찍을 시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진행하여야 한다.
5. "커미셔너"는 제작된 도록에서 "위원회"에게 보관용 100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의 분량은 전시 기간 동안 기자용 배포분과 일반인을 위한 현지 판매 혹은 무상 배포분을 구분하여 적절히 운용하되, 현지 배포용 도록은 최소 500권으로 한다. 유무상의 결정은 "위원회"의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전시 디자인
1. "커미셔너"는 작품의 배치 및 공간 분할, 조명, 관객의 동선 및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한국관의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되, 한국관 건물의 구조 및 내부변경과 관련된 작업은 "위원회"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커미셔너"는 전시 3개월 이전까지 베니스 현지 한국관 직원에게 완성된 전시공간 도면(디자인)을 보내 그 내용을 협의해야 한다.
3.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 종료 후의 철거 공사는 "커미셔너"가 수행하며, 소요경비는 제5조 1항의 전시지원금에 포함된다.
4. "커미셔너"는 전시 디자인과 관련하여 미술전 주최 측이 정한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관련 사항 발생 시 미술전 주최 측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작품 운송

1. 작품 보관 및 운송은 "커미셔너"가 수행하며, 소요경비는 제5조 1항의 전시지원금에 포함된다.

⑥ 작품 보험

1. 작품 보관, 운송, 전시 등 일체의 작품에 대한 보험은 "커미셔너"가 수행하며, 소요경비는 제5조 1항의 전시지원금에 포함된다.

⑦ 전시 설치·철수

1. "커미셔너"는 작품의 설치 및 철수에 대하여 감독 및 지휘의 의무가 있고, "위원회"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커미셔너"는 작품 운송(반출·반입), 개막 일정 등 행사 일정을 고려하여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개막식

1. "위원회"는 한국관 개막식 및 개막식 만찬을 주최하고, "커미셔너"는 동 행사를 주관하되, 행사 사회 진행은 "위원회"가 하도록 한다.
2. "커미셔너"는 초청대상, 개최장소 및 진행식순 등 행사내용을 "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⑨ 홍보

1. "위원회"와 "커미셔너"는 동 행사의 국내 및 해외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소 1회 이상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2. "커미셔너"는 "위원회"가 홍보 활동을 위해 개최하는 기자회견 및 각종 홍보 관련 행사에 참석하여야 한다.
3. "커미셔너"는 미술전 현지에서 프리뷰 기간에 사용할 프레스 킷(국·영문, 작품사진을 담은 CD, USB 등 포함)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4. "커미셔너"는 개막식, 프리뷰 기간에 방문한 기자, 이후 전시 기간 중 한국관을 방문한 주요인사 명단을 확보하여 개막식 직후 및 프리뷰 기간 직후, 폐막 이후 각 시기에 따른 명단을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커미셔너"는 미술전 한국관 전시 관련 홈페이지를 제작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위원회"의 홈페이지 서버에 업로드하여 운영한다. 단, 전시와 관련된 내용의 업데이트와 관리는 "커미셔너"가 수행한다.

⑩ 전시 진행

1. "위원회"는 프리뷰 기간부터 개막식 이후 전시기간 동안 한국관을 관리하는 전시장 요원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들에 대한 임금을 부담한다.
2. "커미셔너"는 1항의 요원들에게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 안내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① "위원회"는 전시지원금으로 사억원을 "커미셔너"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 체결일 현재 2015년 문예진흥기금사업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며, 이러한 심의 과정에서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지원 예산 삭감 등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2014년 12월말 최종 예산 승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 혹은 증액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커미셔너"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은 2015년 문예진흥기금 최종 승인 예산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② "위원회"는 전시지원금 사억원 중 사천만원은 2014년 "커미셔너"와의 계약서 체결 이후 지급하고, 나머지 삼억육천만원은 2015년에 지급한다.

③ 전시지원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ㅇ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추진단 구성 및 운영경비
- ㅇ 전시공간 조성 및 전시 종료 후 철거 공사비
- ㅇ 작가의 작품제작비
- ㅇ 도록,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비 및 각종 홍보비
- ㅇ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관련 홈페이지 제작
- ㅇ 작품 운송경비
- ㅇ 작품 운송, 보관, 전시 관련 보험경비
- ㅇ 커미셔너와 작가의 출장경비
- ㅇ 커미셔너 사례비 (삼천만원 이내)
- ㅇ 통역 및 번역, 실무진 운용 등 관련 경비
- ㅇ 개막식, 개막식 만찬, 기타 부대행사 경비
- ㅇ 세무사 기장 및 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경비
- ㅇ 기타 업무추진 운영경비 등 커미셔너와 작가의 제반 활동경비

④ "커미셔너"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전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전시 추진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추진단의 대표는 "커미셔너"가 수행하며, 사무국 내 1인 이상은 대한민국 거주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⑤ "커미셔너"는 "위원회"에게 지원금 신청 시 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예산안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해 항목별 지원금액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⑥ "커미셔너"는 지원금 집행 시 "문예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은 지정된 계좌로 반납한다.

⑦ "커미셔너"는 전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업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커미셔너"는 기업체 등의 협찬을 유치하여 미술전 경비로 집행할 수 있으며 추후 후원 및 사용내역을 사업성과보고서에 포함시켜 "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커미셔너"는 사업성과보고서 제출시 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⑩ 전시지원금에 포함되는 '커미셔너 사례비'는 전체지원금 사억원의 7.5%인 삼천만원 이내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위원회"는 "커미셔너"가 한국관을 대표하는 커미셔너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전시운영과 관련한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경우 "커미셔너"를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계약 조항의 해석) 이 계약 조항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와 "커미셔너"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증명)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한국어로 작성하여 "위원

회"와 "커미셔너"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6-1	주 소 :
위원장 : 권 영 빈 (인)	성 명 : 이 숙 경 (인)

4) 전시추진단 명부

추진위원장 | 이숙경
사 무 국 장 | 김은지
감　　사 | 류재수

5) 전시추진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단체는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 추진단'이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이 단체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예술가의 집 1층 스마트워크센터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이 단체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을 해외에 소개하여 문화 강국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이 단체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비영리사업을 추진한다.

1. 해외에서의 한국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전시회 개최
2. 시각예술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소개
3. 국제 문화교류 활동
4. 해외 문화예술 단체의 베니스비엔날레 내 초청 행사 개최
5. 기타 단체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2장 조직 구성

제5조 본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관리 감독 하에 조직을 구성하고, 임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임한다.

제6조 (징계) 이 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1.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
2. 단체의 위신과 제반 질서를 혼란케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및 조직 구성

제7조 (임원) 이 단체의 이사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추진단장 (대표): 1명
2. 사무국장: 1명
3. 자문위원: 2명 이상
4. 감사: 1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장 당연직)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추진단장은 단체를 대표하여 이 단체의 모든 계획과 안건을 자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사무국장은 단체의 업무를 총괄 처리한다.
3. 자문위원은 단체의 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한다.
4. 감사는 본 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추진사업별로 감사한다.

제9조 (자문위원회 구성) 이 단체는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단체의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방향 설정과 문화콘텐츠 구성에 관한 발전적 의견을 제시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총회)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결의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12월 중에 추진단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1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자문회의) 자문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추진사업별로 총 2회 이상의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진단장이 소집한다.
2. 자문회의는 단체의 사업운영 및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5장 재정 및 경리

제13조 (재정)

1. 본 단체의 운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금을 세입으로 하여 그 세출에 충당한다.
2.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금은 위 4조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비와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한다.
3. 본 단체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경리)

1. 본 단체의 문예진흥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 및 정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의거하여 추진한다.
2. 본 단체의 사업비 집행은 문예진흥기금 사업 운용 방침에 의거하여 관리 및 집행하고 정산토록 한다.

제6장 보칙

제15조 (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단체의 관리 감독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단체를 해산할 때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잔여 재산을 반납한다.

제7장 부칙

1. 본 규약의 불미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관례 또는 조례에 따른다.
2. 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고유번호증

고 유 번 호 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본점)

고유번호 :

단 체 명 :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 추진단

대표자 성명 : 이숙경 생 년 월 일 : 69**********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동숭동,예술가의집1층스마트워크센터)

교 부 사 유 :

(유의사항)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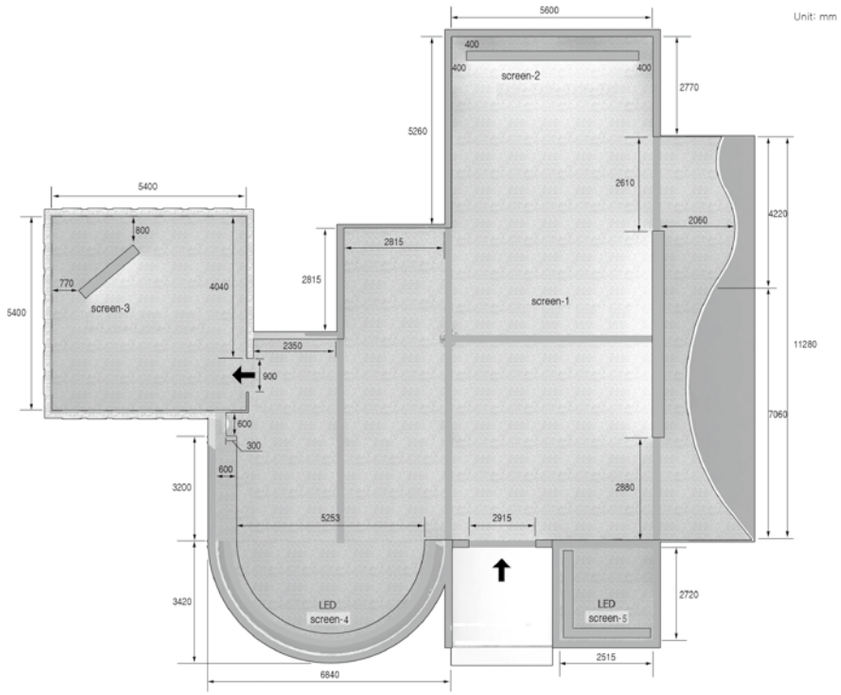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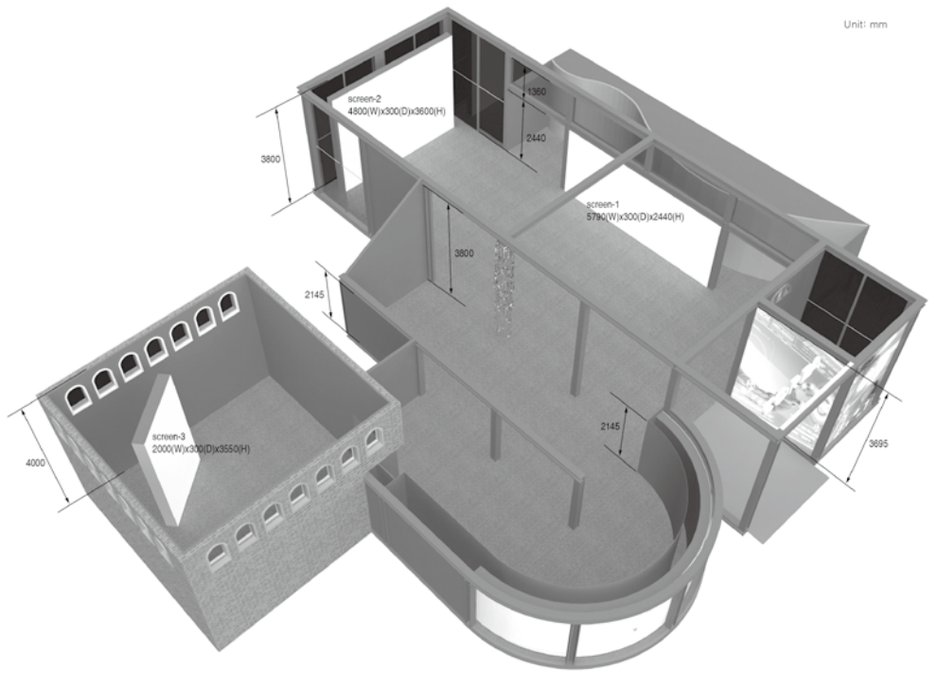
2014 년 09 월 16 일

종로 세무서장 (인)

NTS 국세청

6) 한국관 도면





7) 스태프 티셔츠 도안

티셔츠 제작 세부 내역

티셔츠 디자인 및 색상: 라운드 면티 반팔, 진회색

로고 인쇄 방법: 나염인쇄

제작 수량: 60 개 (사이즈: 성인 M×15개, L×20개, XL×20개, 2XL×5개)

앞면 중앙 로고

텍스트 2컬러: 검정, 노랑



앞면



뒷면 하단 로고

텍스트 1컬러: 연회색



뒷면



2. 개막

1) 국가관별 개막식 일정

Paese	Data	Ora	Indirizzo	Luogo	Tipo
Australia	6 maggio 2015	10,3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e Inaugurazione
Polonia	6 maggio 2015	11,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Spagna	6 maggio 2015	11,3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Angola	6 maggio 2015	12,00	Conservatorio Benedetto Marcello – Palazzo Pisani, San Marco 2810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ussia	6 maggio 2015	13,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Belgio	6 maggio 2015	13,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Canada	6 maggio 2015	13,3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Tuvalu	6 maggio 2015	14,0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Repubblica di Corea	6 maggio 2015	14,0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PAESI NORDICI (NORVEGIA)	6 maggio 2015	14,3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Repubblica di Corea	6 maggio 2015	15,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Repubblica del Kosovo	6 maggio 2015	15,0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Singapore	6 maggio 2015	15,0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Danimarca	6 maggio 2015	15,15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Gran Bretagna	6 maggio 2015	15,3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Uruguay	6 maggio 2015	16,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Canada	6 maggio 2015	16,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Paese	Data	Ora	Indirizzo	Luogo	Tipo
Repubblica di Armenia	6 maggio 2015	17,00	Monastero e Isola di San Lazzaro degli Armeni	Padiglione in Venezia	Conferenza Stampa
Repubblica di Armenia	6 maggio 2015	18,00	Monastero e Isola di San Lazzaro degli Armeni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pubblica di Belarus	6 maggio 2015	18,00	Riva San Biagio, Castello 2145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pubblica dell'Azerbaijan	6 maggio 2015	18,00	Palazzo Lezze, Campo Santo Stefan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Portogallo	6 maggio 2015	18,00	Palazzo Loredan, campo S. Stefan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pubblica dell'Azerbaijan	6 maggio 2015	19,00	Palazzo Ca'Garzoni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Francia	7 maggio 2015	13,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Stati Uniti d'America	7 maggio 2015	13,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Perù	7 maggio 2015	13,3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Repubblica Ceca e Repubblica Slovacca	7 maggio 2015	14,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Grecia	7 maggio 2015	14,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Ungheria	7 maggio 2015	14,3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Messico	7 maggio 2015	15,0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Serbia	7 maggio 2015	15,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Austria	7 maggio 2015	15,00		Padiglione ai Giardini	Conferenza Stampa
Danimarca	7 maggio 2015	15,15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Giappone	7 maggio 2015	15,3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Austria	7 maggio 2015	16,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Irlanda	7 maggio 2015	16,0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Paese	Data	Ora	Indirizzo	Luogo	Tipo
Estonia	7 maggio 2015	17,00	Palazzo Malipiero, campo San Samuele, San Marco 3199, second floor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Emirati Arabi Uniti	7 maggio 2015	16,3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Thailandia	7 maggio 2015	16,30	Bar Paradiso Giardini di Castell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epubblica di Cipro	7 maggio 2015	17,00	Palazzo Malipiero campo San Samuele, San Marco 3198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Romania	7 maggio 2015	17,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Montenegro	7 maggio 2015	18,30	Palazzo Malaipiero, piano terra , San Marco 3078–3079/A Ramo Malipiero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Venezuela	8 maggio 2015	11,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Istituto Italo Latino Americano	8 maggio 2015	12,00		Padiglione all'Arsenalei	Inaugurazione
Cile	8 maggio 2015	13,00		Padiglione all'Arsenale	Conferenza Stampa e Inaugurazione
Filippine	8 maggio 2015	15,00	Palazzo Mora, strada Nuova 3659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Guatemala	8 maggio 2015	15,30	Officina delle ZattereFondamenta Nani, Dorsoduro 947	Padiglione in Venezia	Inaugurazione
Lettonia	8 maggio 2015	16,30		Padiglione all'Arsenale	Inaugurazione
Svizzera	8 maggio 2015	17,00		Padiglione ai Giardini	Inaugurazione











2) 한국관 프리오프닝 기간 일정

날짜	시간	장소	내용	인원수
2015.5.4(월)		한국관	베니스비엔날레 심사위원단 국가관 방문	
2015.5.6(수)	13:00	한국관 앞마당 및 내부	프레스 오프닝(한국 기자단)	30여명
	14:00		프레스 오프닝(외신 기자단)	220여명
	15:00	한국관 앞마당	개막식 - 권영빈 위원장 개막사 - 이숙경 커미셔너 전시 및 작가 소개 - 전시 관람 - 다과	400여명
	20:00	호텔 모나코	만찬	200여명

3) 개막식 초청자 명단

Team and Organizers

Exhibitor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1	Ms	Moon	Kyungwon	Artist	
2	Mr	Jeon	Joonho	Artist	

Commissioner / Curator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1	Ms	Lee	Sook-Kyung	Commissioner & Curator	Korean Pavilion 2015

Deputy Commissioner / Curator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1	Ms	Kim	Diana	Exhibition Coordinator	Korean Pavilion 2015

Organizer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1	Ms	Kim	Eun Jeong	Manager	Arts Council Korea
2	Mr	Byun	Jun Hui	Coordinator	Arts Council Korea
3	Mr	Kwon	Young-Bin	Chairman	Arts Council Korea
4	Mr	Lee	Han Shin	Director General	Arts Council Korea
5	Mr	Ryu	Jaesoo	Director	Arts Council Korea
6	Mr	Yim	Kihyun	Manager	Arts Council Korea
7	Ms	Jeon	Hyunhee	Staff	Arts Council Korea
8	Ms	Hyen	Jungyoon	Assistant Coordinator	Korean Pavilion 2015
9	Mr	Kang	Ki Young	Sound Effects Supervisor	
10	Mr	Oh	Young Hoon	Sound Effects Supervisor	
11	Mr	Yoon	Jaehun	Visual Effects Supervisor	AliceFX
12	Mr	Yoon	Jonghyeon	LED Supervisor	Basictech Co., Ltd
13	Ms	Choi	Heejung	Artist Assistant	
14	Ms	Oh	Jungwan	Producer	Bom Film Productions
15	Mr	Do	Hyung-teh	Director	Gallery Hyundai
16	Ms	Cho	Jeongyeol	CEO	Gallery Hyundai
17	Ms	Chang	HeeJeong	Manager	Gallery Hyundai
18	Mr	Lee	Patrick	Director	One & J Gallery
19	Mr	Imamura	Yusaku	Director	Tokyo Wonder Site
20	Ms	Imamura	Kayoko	Director	Tokyo Wonder 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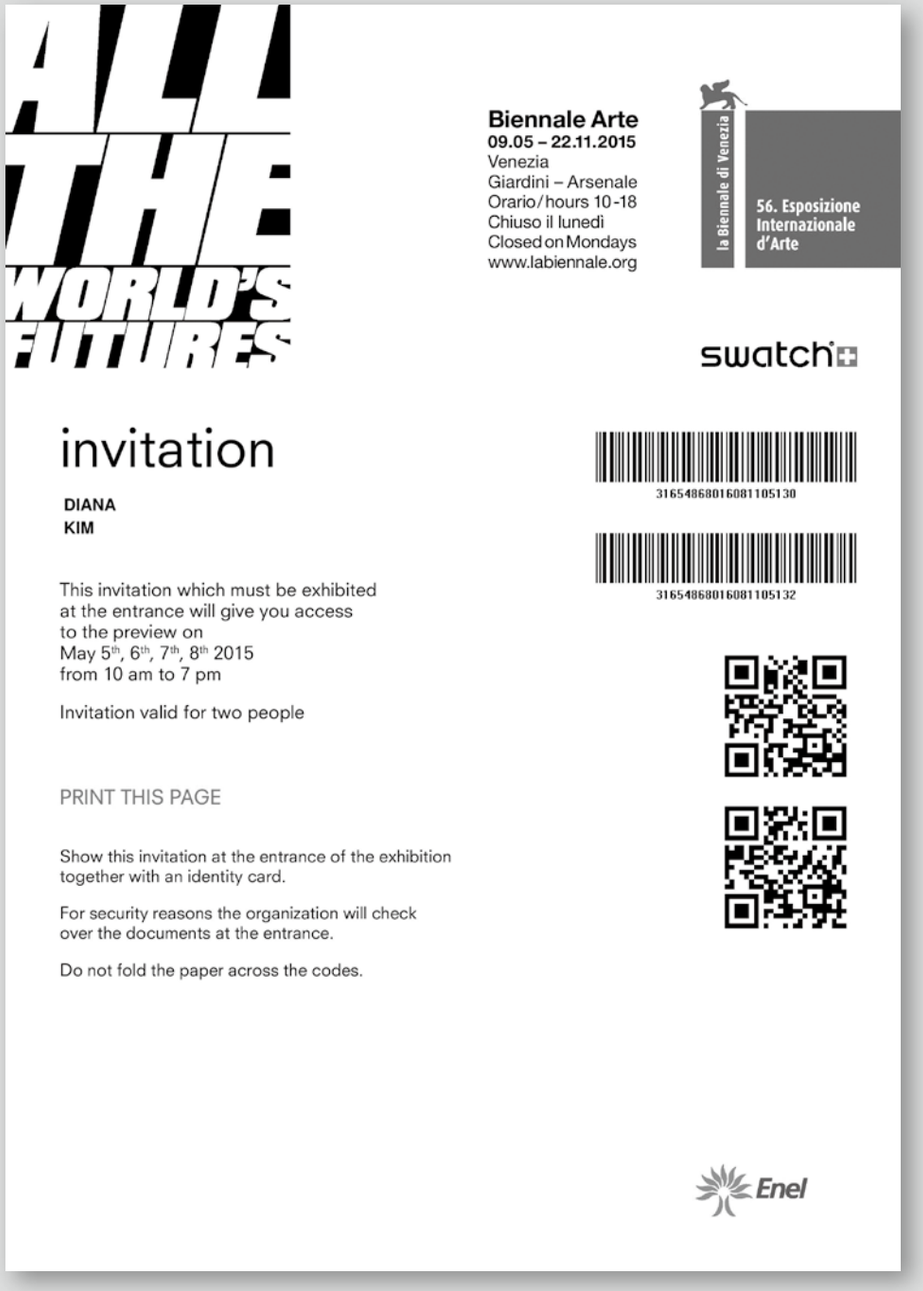
Authoritie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Body
1	Mr	YOO	JINRYONG	Minist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	Mr	CHO	HYUNJAE	Vice-ministe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3	Mr	KIM	TAEHOON	Director Genera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4	Mr	CHO	HYUN-RAE	Direct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5	Mr	LEE	SANG-MOO	Deputy Direct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6	Ms	OH	JINSOOK	Deputy Director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7	Ms	KIM	HYUNJIN	Director/ ARKO Art Center	Arts Council Korea
8	Ms	KIM	JINKYUNG	Manager	Arts Council Korea
9	Ms	LIM	JAEYEON	Manager	Arts Council Korea
10	Mr	LEE	SUNG-JIN	Staff	Arts Council Korea
11	Mr	BAIK	SUN KI	Deputy Director	Arts Council Korea
12	Mr	BAE	JAE-HYUN	Ambass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taly
13	Mr	SHIN	HOSEOK	Counselle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taly
14	Mr	CHANG	JAE-BOK	Consul General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15	Mr	LIM	JAE-JIN	Consul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

Sponsors

n.	Title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Company
1	Mr	Cho	Wonhong	Executive Vice President, Marketing Division	Hyundai Motor Company
2	Mr	Lee	Daehyung	Art Director, Brand Communication Team	Hyundai Motor Company
3	Mr	Jung	Cheol	Manager, Brand Communication Team	Hyundai Motor Company
4	Mme	Hong Lee	RaHee	Director General	Leeum Samsung Museum of Art
5	Ms	Hong	RaYoung	Senior Deputy Directo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6	Ms	Lee	JeongJin	Manage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7	Ms	Woo	Hyesoo	Chief Curato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8	Ms	Kim	Soo Hyun	SBS Media Holdings Brand Management&Communication, Executive Director	SBS Media Group
9	Ms	Kwack	Sang Eun	Senior Manager	SBS Media Group
10	Ms	Kim	Lee Jeung	Project Manager	SBS Media Group
11	Mr	Huh	Yong Soo	Executive Vice President	Seungsan
12	Ms	Huh	In Young	CEO/Executive Vice President	Seungsan
13	Mr	Lee	Woong Yeul	Chairman	Kolon
14	Ms	Suh	Chang Hee		Kolon
15	Mr	Park	Sechang	Senior Executive Vice President	Kumho Tire
16	Mr	Kim	Soo-Cheon	President & CEO	Asiana Airlines

프리오프닝 초청 티켓



4) 한국관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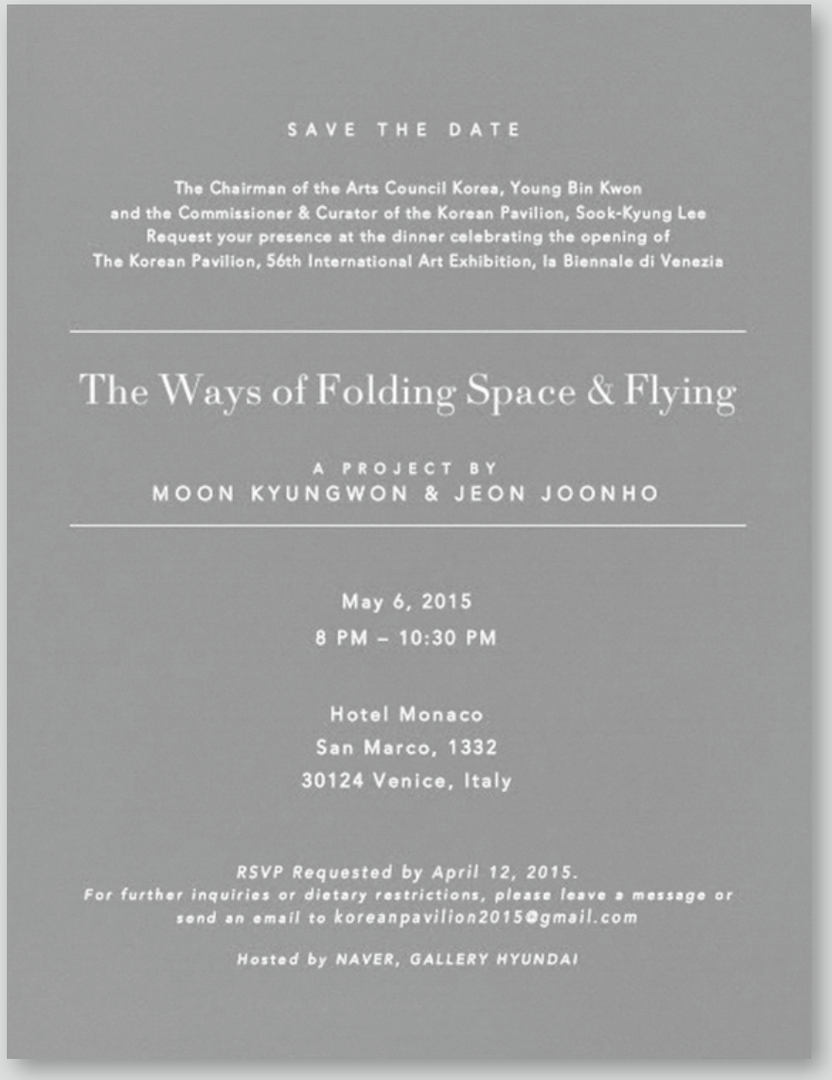
장　　소 | 호텔 모나코_Hotel Monaco, San Marco 1332, 30124, Venezia, Italy
일　　시 | 2015년 5월 6일 오후 8시~10시30분
주　　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　　찬 | 네이버(주), 갤러리현대
참석인원 | 200여명
형　　식 | standing cocktail reception & seated gala dinner(기명식 원형 테이블 배치)







한국관 만찬 온라인 초청장



5) 만찬 초청자 명단

LAST NAME	FIRST NAME	POSITION	ORGANIZATION
Ahn	Mihee	Policy Planning Team	Gwangju Biennale
Allison	Phil	Director	Culture Shock Media
Al-Senussi	Alia	Patron & Trustee	
Antonelli	Silvia		
Armleder	John	Artist	
Baas	Jacquelynn	Director	UC Berkeley Art Museum and Pacific Film Archive
Bae	Jae-Hyun	Ambassad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taly
Berger	Tobias	Head of Art	Central Police Station in Hong Kong
Borchardt-Hume	Achim	Director of Exhibitions	Tate Modern
Brillembourg	Alfredo	Founding Partner	Urban Think Tank
Browne	Josephine		NTU CCA Singapore
Byeon	Jihye	Curator	Seoul Museum of Art
Byun	Hongchul	Director	Gray Wall
Byun	Jun Hui	Coordinator	Arts Council Korea
Cha	Seungjoo	Curator	Arko Art Center
Chang	HeeJeong	Manager	Gallery Hyundai
Chang	Richard	Co-Chairman	Tate International Council
Cheon	Minjeong	Curator	Seoul Museum of Art
Cho	Jeongyeol	CEO	Gallery Hyundai
Cho	Wonhong	Executive Vice President, Marketing Division	Hyundai Motor Company
Choi	Eunju	Direct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Choi	Heejung	Artist Assistant	
Chong	Doryun	Chief Curator	M+
Chong	Jaeho	Guest of Sooja Kim	
Colard	Jean-Max	Curator	
Condon	Bill	Chairman	Multitude Foundation
Corrias	Pilar	Director	Pilar Corrias Gallery
Costinas	Cosmin	Curator	
Cruz	Juan	Dean	Royal College of Art
Delvoye	Wim	Artist	
Dercon	Chris	Director	Tate Modern
Do	Hyung-teh	Director	Gallery Hyundai
Eu	Emi	Director	STPI
Fong	Stella		Pavilion of Hong Kong
Fryer	Martin	Director	British Council Korea
Gold	Joanne		
Ha	Chong-Hyun	Artist	
Hara	Rurihiko	Researcher	Yamaguchi Center for Arts and Media
Hara	Toshio	Director	Hara Museum
Hasegawa	Yuko	Chief Curator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Hegyi	Lóránd	Director	Musée d'art moderne de Saint-Etienne
Ho	Jacky		Sotheby's
Ho	Kyoung-yun	Editor in Chief	Art in Culture
Hong	RaYoung	Senior Deputy Directo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Hong Lee	RaHee	Director General	Leeum Samsung Museum of Art
Hoskote	Ranjit	Poet, Former Curator	Pavilion of India (2011)
Hughes	Vicky	Patron & Trustee	
Hilty	Greg	Director	Lisson Gallery
Hwang	Kyujin		
Hyen	Jungyoon	Assistant Coordinator	Korean Pavilion
Im	Heung Soon	Artist	
Imamura	Yusaku	Director	Tokyo Wonder Site
Imamura	Kayoko	Director	Tokyo Wonder Site
Itaka	Kumiko		
Jacob	Mary Jane	Executive Director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Jeppesen	Travis	Journalist, Writer	Art in America

Jeon	Hyunhee	ARKO	Arts Council Korea
Jeon	Joonho	Artist	
Joo	Esra Elaine		
Jun	Kwang Mee	PR & Marketing Team	Gwangju Biennale
Jung	Cheol	Manager, Brand Communication Team	Hyundai Motor Company
Kan	Hayley	Chairman' spouse	Hong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Kang	Kiyoung	Music Director	
Kataoka	Mami	Chief Curator	Mori Art Museum
Kee	Joan	Professor	Michigan University
Khattar	Shareen		STPI
Ki	Haekyung	Curator	MMCA, Korea
Kim	Airyung		
Kim	Ayoung	Artist	Artist
Kim	Charles	CEO	Kukje Gallery
Kim	Diana	Exhibition Coordinator	
Kim	Eunjeong	Manager	Arts Council Korea
Kim	Honghee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Kim	Hyunjin	Former Director	Arko Art Center
Kim	Lee Jeung	Project Manager	SBS Media Group
Kim	Minjung	Collector, Artist	
Kim	Minkyu	CEO	Boksoondoga
Kim	Minkyung	Guest of Im Heung Soon	
Kim	Soo Hyun	Brand Management & Communication, Executive Director	SBS Media Group
Kim	Sooja	Artist	
Kim	Stephanie	Independent Curator	
Kim	Sunghwan	Artist	
Kim	Sunjung	Artistic Director	Sonje Art Center
Kim	Tae Chol	Council Member	Arts Council Korea
Kim	Tina	Director	Tina Kim Gallery

Kim	Yongho	Photographer	
Kim	Yu Yeon		
Kim	Yung Hee	Member	Tate Asia Pacific Aquisitions Committee
Koo	Jeong A	Artist	
Kwon	Young-Bin	Council	Arts Council Korea
Lee	Daehyung	Art Director, Brand Communication Team	Hyundai Motor Company
Lee	Eunha	Exhibition Team	Gwangju Biennale
Lee	Eunmi	Guest of Lorand Hegyi	
Lee	Jeongjin	Manage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Lee	Patrick	Director	One & J Gallery
Lee	Simon	Director	Simon Lee Gallery
Lee	Sook-Kyung	Commissioner	
Lee	Ufan	Artist	
Lee	Yongwoo	Curator	
Lee	Youjin	Head of PR	Boksoondoga
Lee	Yunjung	Artist	
Ligyung		Artist	
Lim	Jade	Curator	Seoul Museum of Art
Lin	Evelyn	Specialist	Sotheby's
Lo	Kay-yin	Member	Tate Asia-Pacific Acquisitions Committee
Mak	Betty	Director, Planning and Development	Hong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Marlow	Tim	Director	Royal Academy
Meyer	Jochen	Director	Galerie Meyer Riegger
Moon	Kyungwon	Artist	
Morgan	Jessica	Director	DIA Art Foundation
Mori	Yoshiko	Founding Director	Mori Art Museum
Morris	Frances	Director of Collection	Tate Modern
Munder	Heike	Director	Migros Museum
Munroe	Alexandra	Curator	Guggenheim

Nam	Hwayeon	Artist	
Nanjo	Fumio	Director	Mori Art Museum
Nasar	Hammad		Asia Art Archive
Nesbitt	Judith	Head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ate
Ng	Elaine	Journalist	AAP Magazine
Nordenhake	Claes	Director	Galerie Nordenhake GmbH
Obrist	Hans-Ulrich	Co-Director	Serpentine Gallery
Oh	Jungwan	Executive Producer & Founder	Bom Film Productions
Oh	Shi-Ne	Curator	Esther Schipper
Ooi	Adeline	Director	Art Basel Hong Kong
Park	Kyung-Mee	President	PKM Gallery
Park	Manu	Former Director	NJP Artcenter
Park	Seo-Bo	Artist	
Park	Yang Woo	Foundation President	Gwangju Biennale
Peyton-Jones	Julia	Co-Director	Serpentine Gallery
Pickard	Katherine		
Pirotte	Philippe	Director	Stadelschule, Frankfrut
Placuzzi	Maurizio	Collector	
Presenhuber	Eva	Director	Galerie Eva Presenhuber
Raspail	Thierry	Director	Musee d'art contemporain de Lyon
Rawling	Ashley	Director	Blum & Poe
Rossi	Fabio	Director	Rossi & Rossi
Ryu	Jaesoo	Director, International Exchange Division	Arts Council Korea
Ryu	Hanseung	Curator	MMCA, Korea
Schipper	Esther	Director	Esther Schipper
Schwartz	Daniel		Urban Think Tank
Shin	Hoseok	Counsellor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taly
Shin	Regina	Curator	Seoul Museum of Art
Shiobara	Masashi		Art Office Shiobara

Sirmans	Franklin	Curator	LACMA
Sirmans	Jessica	Guest of F. Sirmans	
Smith	John		Tate Asia Pacific Aquisitions Committee
Stout	Katharine	Head of Programme	ICA
Suh	Jinseok	Director	NJP Artcenter
Sun	Alex	Guest of Bill Condon	
Taguchi	Miwa		Taguchi Art Collection
Taylor	Rachel	Exhibition Director	Victoria Miro
Teasdale	Paul	Editor	Frieze Magazine
Teerlinck	Hilde	Curator	
Tiampo	Ming	Art Historian	
Trevor	Tom	Independent Curator	
Tseng	Rudy	Patron & Trustee	
Uematsu	Yuka		National Museum of Osaka
Vine	Richard	Senior Editor	Art in America
Weiss	Erich		
Welter	Judith	Collection Curator	Migros Museum
Wong	Wilfred	Chairman	Hongkong Arts Development Council
Woo	Hyesoo	Chief Curator	Leeum Samsung Museum of Art
Yi	Wong Kit	Guest of Richard Vine	
Yim	Ki Hyun	International Exchange Division	Arts Council Korea
Yoo	Jinsang	Critic, Curator	
Yoon	Jaehun	Visual Effects Supervisor	AliceFX
Yoon	Jonghyun	LED Supervisor	Basictech Co., Ltd

3. 홍보

1)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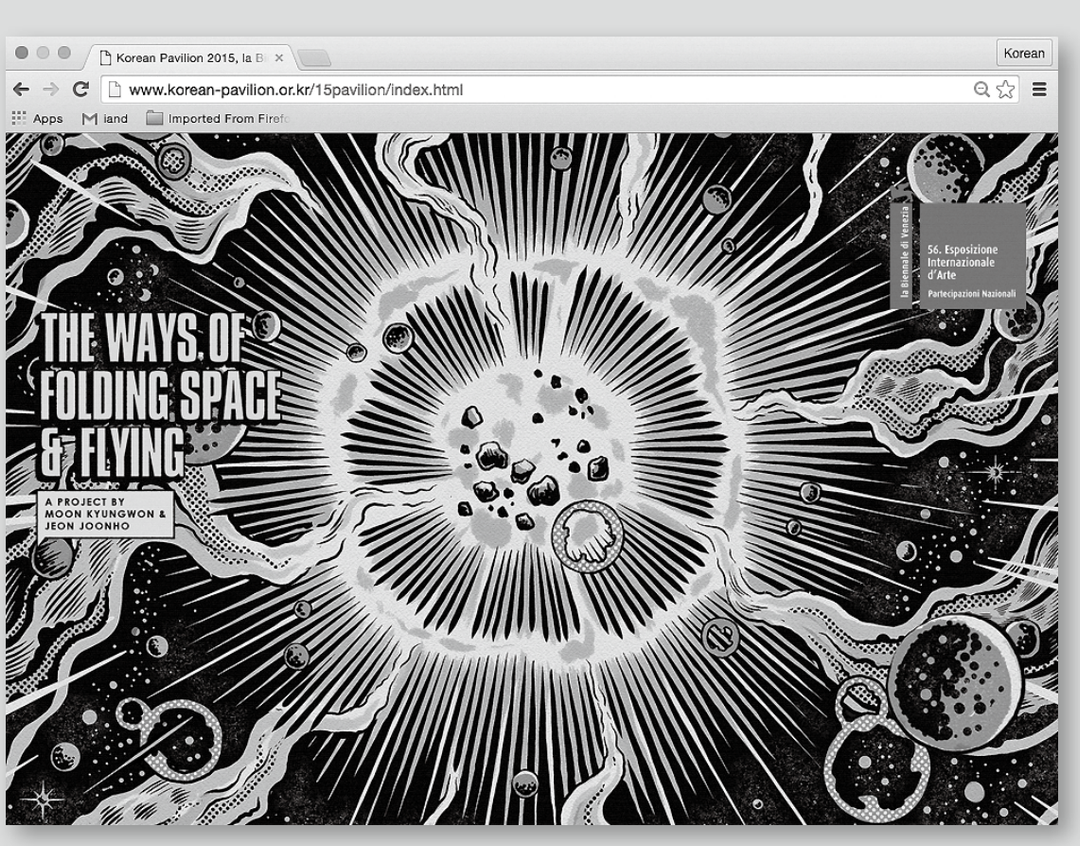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홈페이지

www.korean-pavili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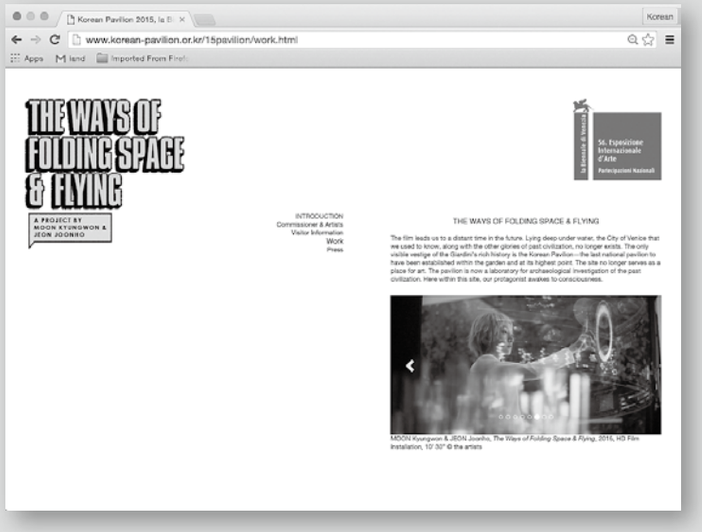
2015년 한국관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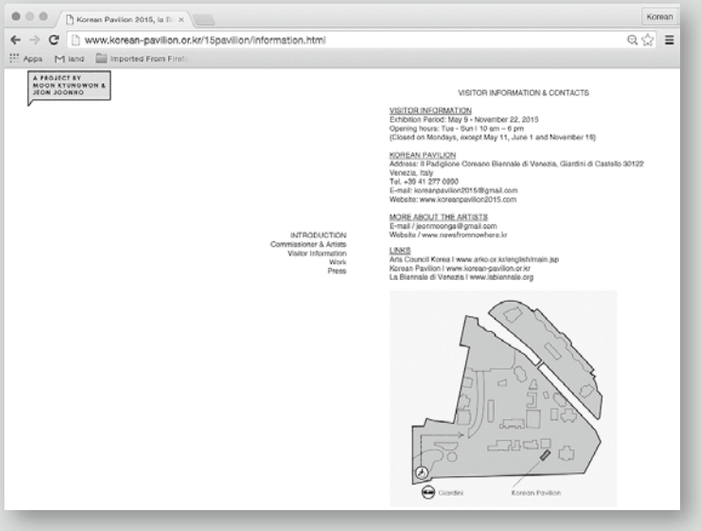
www.koreanpavilion2015.com

* 2015년 한국관 전용 도메인(유효기간: 2015년 3월~11월말) 을 생성하여 국제적 접근성 확보
* 전시 컨셉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작업된 공상과학적인 이미지를 도록, 리플릿, 홈페이지 등 디자인물 전체에 사용하여 통일감을 주고자 함 (일러스트레이션 by Andrew Fairclough of Kindred Stud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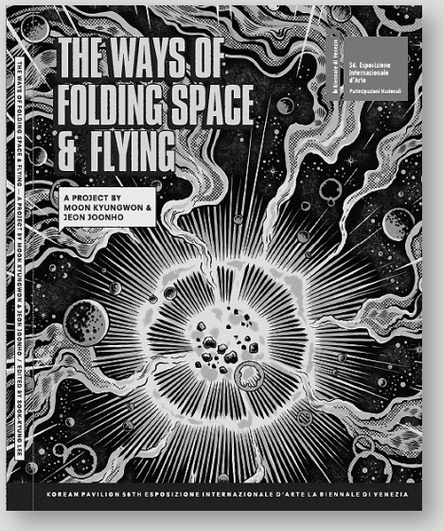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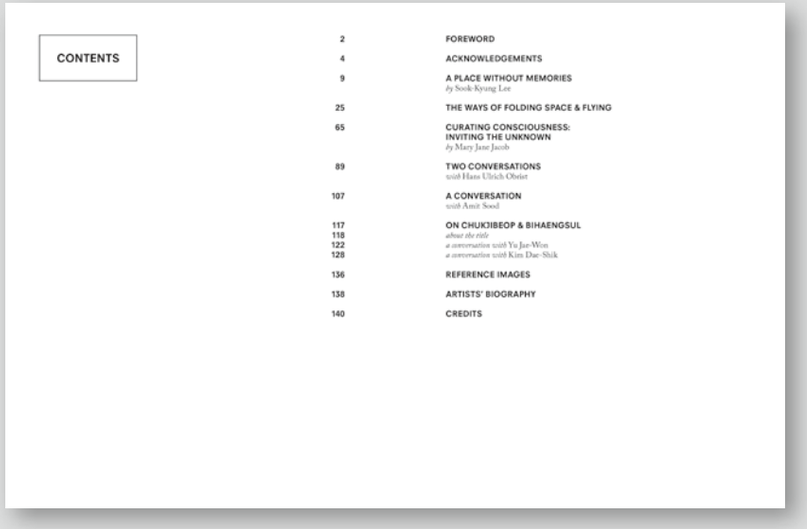


2) 도록 및 리플릿

도록 제작정보 | 240×185mm, 144pg, 풀컬러, 영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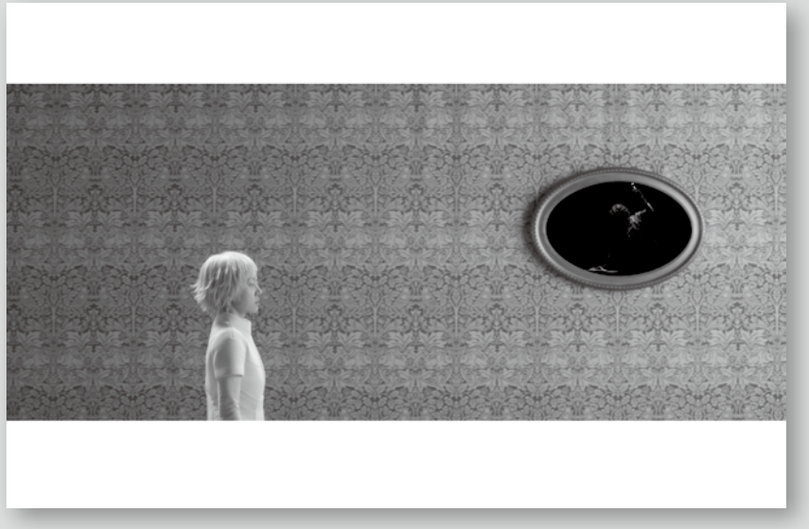
출판사 | Culture Shock Me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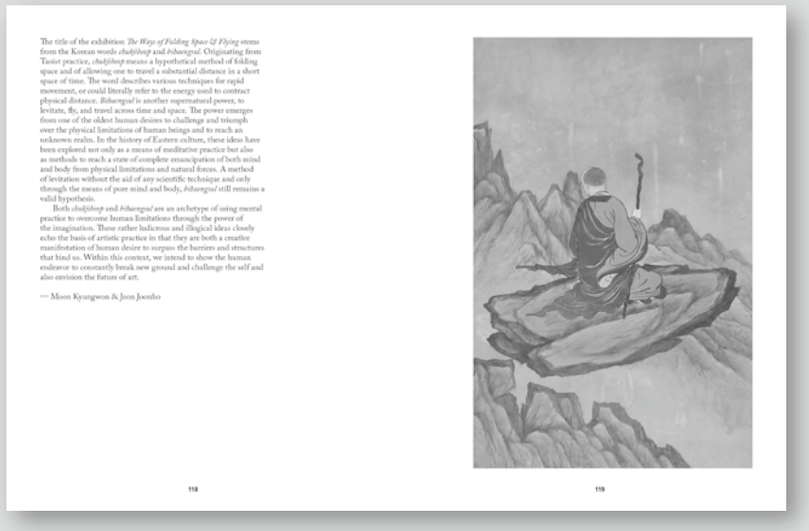




CONTENTS

2 FOREWORD
4 ACKNOWLEDGEMENTS
9 A PLACE WITHOUT MEMORIES
by Sook-Kyung Lee
25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65 CURATING CONSCIOUSNESS: INVITING THE UNKNOWN
by Mary Jane Jacob
89 TWO CONVERSATIONS
with Hans Ulrich Obrist
107 A CONVERSATION
with Amit Sood
117 ON CHUKJIBEOP & BIHAENGSUL
118 *about the title*
122 *a conversation with* Yu Jae-Won
128 *a conversation with* Kim Dae-Shik
136 REFERENCE IMAGES
138 ARTISTS' BIOGRAPHY
140 CREDITS





The title of the exhibition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stems from the Korean words *chukjibeop* and *bihaengsul*. Originating from Taoist practice, *chukjibeop* means a hypothetical method of folding space and of allowing one to travel a substantial distance in a short space of time. The word describes various techniques for rapid movement, or could literally refer to the energy used to contract physical distance. *Bihaengsul* is another supernatural power, to levitate, fly, and travel across time and space. The power emerges from one of the oldest human desires to challenge and triumph over the physical limitations of human beings and to reach an unknown realm. In the history of Eastern culture, these ideas have been explored not only as a means of meditative practice but also as methods to reach a state of complete emancipation of both mind and body from physical limitations and natural forces. A method of levitation without the aid of any scientific technique and only through the means of pure mind and body, *bihaengsul* still remains a valid hypothesis.

Both *chukjibeop* and *bihaengsul* are an archetype of using mental practice to overcome human limitations through the power of the imagination. These rather ludicrous and illogical ideas closely echo the basis of artistic practice in that they are both a creative manifestation of human desire to surpass the barriers and structures that bind us. Within this context, we intend to show the human endeavor to constantly break new ground and challenge the self and also envision the future of art.

— Moon Kyungwon & Jeon Joonho

REFERENCE IMAGES



p. 8
Sun Sajeong (1707–1769), Detailed view of *Road to Mu* (部), Light colors on scroll paper, 818 × 35 cm ©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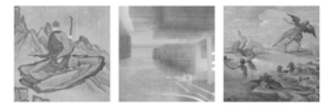
Painted in the moments before his death, *Road to Mu* embodies the artist's last remaining outpouring. A true masterpiece from Southern School Painting (*namjonghwa* 南宗畵) of the Joseon Dynasty, it famously adopts the techniques of deep-distancing (*simyuandeep* 深遠法) and level-distancing (*pyeongyuandeep* 平遠法).

p. 24
Toshi Ichiyanagi, *Music for Electric Metronome*, 1968
© C. F. Peters Corporation

My music does not order listeners to move in a certain way. In fact, there is a kind of non-directionality to my music. Music allows us to go anywhere we want.
— Toshi Ichiyanagi

p. 64
Edwin J. Houston, *The Elements of Physical Geography*, for the use of Schools, Academies, and Colleges, (Philadelphia: Eldredge & Brother, 1891) U © University of South Florida. Courtesy the private collection of Roy Winkelman

If the earth were flat, as soon as an object appeared on the horizon we would see the upper and lower parts at the same time; but if it were curved, the top parts would first be seen.



p. 88
Kim Hongdo (1745–ca. 1806), *A Buddhist sailing across the Sea on the Leaf*, Light colors on paper, 58.3 × 105.1 cm © Kansong Art and Culture Foundation

Kim, a painter from the Joseon Dynasty, depicted Dharma sailing across the sea on strands of reeds. The painting reflects the idea of withstanding all kinds of challenges to propagate the principle of truth and that the purpose of life is to seek salvation for all mankind.

p. 106
White Porcelain Placenta Jar (*cowa*), 17th century, Joseon Dynasty ©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porcelain jar is representative of ceramic works from the Joseon Dynasty. Despite the crude finish, the finely rendered shape and polishing reflects a very modern sensibility and it is said to embody the paradigm of beauty.

p. 116
Navigation Chart from the Marshall Islands, Micronesia, 19th–early 20th century AD, Collection of the British Museum, Gift of Mrs. H.G. Beasley © The Trustees of the British Museum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ticks are intended as supports to the chart, while diagonal and curved ones represent wave swells. The information was memorized and the charts would not be carried on voyages.

p. 119
Altar Portrait of Buddha (A wall painting from Haeinsa Temple in Korea), Artist & year unknown © Haeinsa

Painted on the wall of Haeinsa, one of the three most significant Buddhist temples in Korea, the image depicts the scholar monk Uisang (ca. A.D. 625) flying on a rock. Uisang was known for his propagation of Avatamsaka Sutra.

p. 120
Moon Kyungwon & Jeon Joonho,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film still), 2015, HD Film Installation, 10'30" © the artists

The image, a superimposition of hundreds of maps of Venice from the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captures the layers of changing space through the passage of time.

p. 127
Unknown Venetian or Flemish artist, *Icarus' Fall*, ca. 1550-1599, Oil on canvas, 63.5 × 45 cm
© Paolo e Federico Mussondi/Electa/Mondadori Portfolio via Getty Images

Icarus is depicted falling from the sky, while Daedalus, his father, is still flying.

리플릿 제작정보 |
210×150mm, 3단, 풀컬러, 국문 · 영문 · 이탈리아어

3) 기념품: 에코백

에코백 제작정보 | 디자인 by 정구호

* 가방의 외부는 제일모직에서 남성복 제작 후 남은 자투리 모직 원단을 협찬받아 재활용하였으며, 내부는 밝은 주황색의 폴리옥스포드 소재로 제작하여 양면으로 사용 가능하였음
* 다양한 종류의 모직을 사용하여 제작된 가방으로 각각의 색과 원단이 달랐음. 또한 넉넉한 수납공간과 시선을 끄는 색의 배합으로 전시 오프닝 기간에 큰 홍보효과를 가져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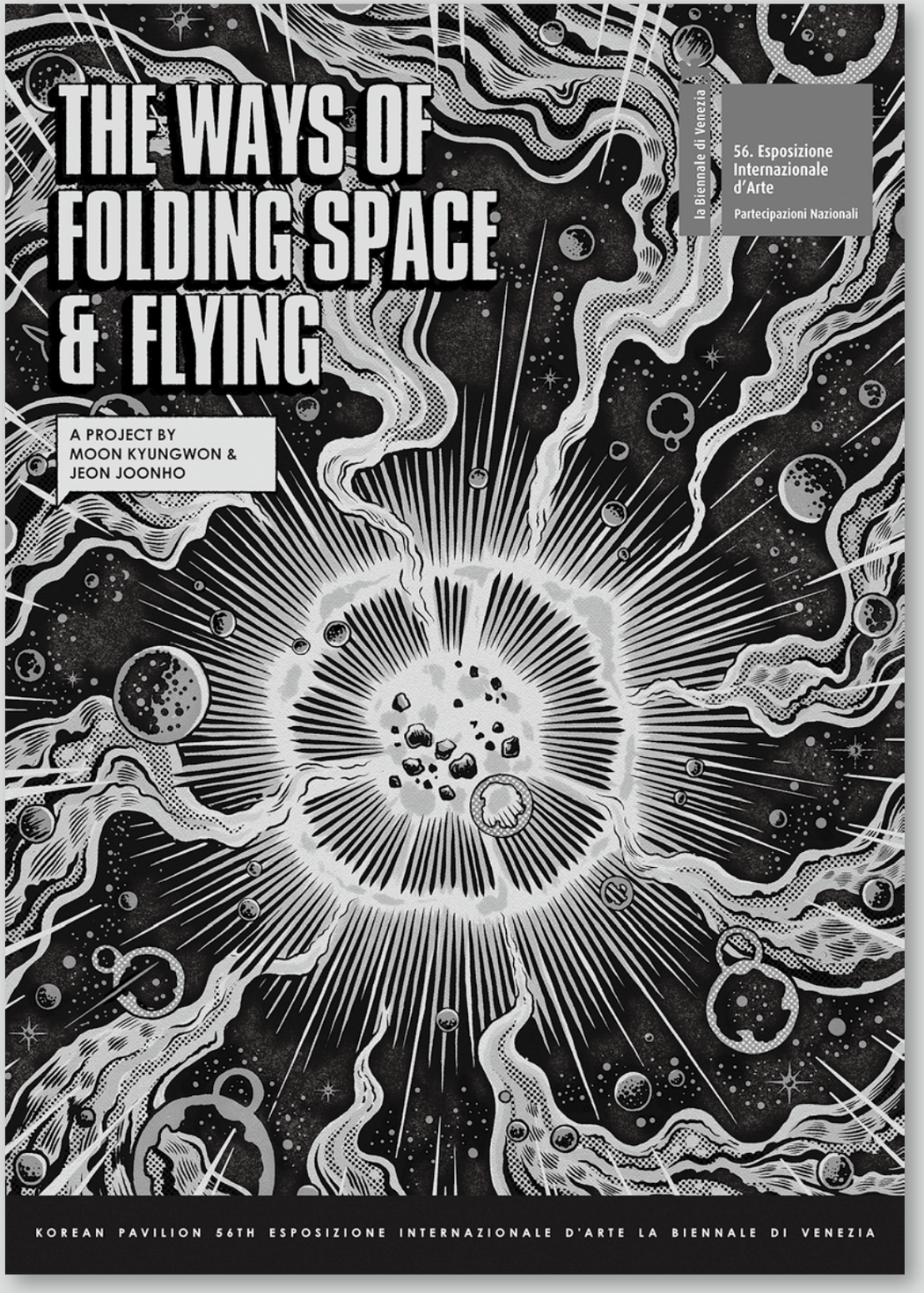






4) 포스터

포스터 제작정보 | 71×505 mm, 풀컬러



5) 대언론홍보: 기자단, 보도자료

현지 프레스 오프닝 참석 한국 기자단 명단

일간지 | 국민일보(손영옥 기자), 매일경제(이향휘 기자), 서울신문(함혜리 기자), 세계일보(박태해 기자), 연합뉴스(김정선 기자), 조선일보(허윤희 기자), 중앙일보(권근영 기자), 한겨레(노형석 기자), 헤럴드경제(김아미 기자)

월간지 및 미술 전문지 | 아트인컬쳐(호경윤 편집장, 채연 기자), 월간미술(황석권 기자), 퍼블릭아트(정일주 편집장), W매거진(황선우 기자)

기타 | SBS 다큐멘터리 제작팀





현지 프레스 오프닝 참석 외신 기자단 명단

번호	매체명	직책	도시	국가
1	ADACI	EXECUTIVE DIRECTOR	COLLAZZONE (PG)	ITALY
2	AIDANEWS	EDITOR	TREVISO	ITALY
3	APA AUSTRIA PRESSE AGENTUR	JOURNALIST		AUSTRIA
4	ARA	ART WRITER	BARCELONA	SPAIN
5	ARCHITECTURAL HISTORIAN	JOURNALIST AND TRANSLATOR	BERLIN	GERMANY
6	ARKESIS SAS		TREVISO	ITALY
7	ART BEOGRAD KUTAK	JOURNALIST	BERLGRADE	SERBIA
8	ART CITY TV	FILM DIRECTOR	PARIS	FRANCE
9	ART CITY TV AND LADYBIRDS FILM	FILM DIRECTOR		
10	ART MONTHLY	WRITER	LONDON	UK
11	ART RADAR ASIA	STAFF WRITER		
12	ART REVIEW			
13	ART VIVANT			
14	ART4D		AMSTERDAM	THE NETHERLANDS
15	ARTE	DIRECTOR	PARIS	FRANCE
16	ARTE E ARTI MAGAZINE	DIRECTOR	FLORENCE	ITALY
17	ARTE E CRITICA	COLLABORATOR	BERLIN	GERMANY
18	ARTEXPO		BRUXELLES	BELGIUM
19	ARTEXT.IT			
20	ARTFORUM	EDITOR IN CHIEF	NEW YORK	USA
21	ARTFORUM	WRITER		
22	ARTLINE	EXECUTIVE DIRECTOR	ADELAIDE	AUSTRALIA
23	ARTMAP, ART PLUS	EXECUTIVE DIRECTOR		
24	ARTNEWS N2		AUCKLAND	NEW ZELAND
25	ARTREVIEW ASIA	PUBLISHER	LONDON	UK
26	ARTREVIEW.COM	EDITOR	LONDON	UK
27	ARTRIBUNE	EDITORIAL BOARD	TODI (PG)	ITALY
28	ARTVISIVE		ZURICH	SWITZERLAND
29	ASIAN ART NEWSPAPER	CORRESPONDENT	STRASROUPE	FRANCE
30	ASKANEWS	EDITOR	MILAN	ITALY
31	ASSOCIATED PRESS ITALIA	PHOTO EDITOR	ROME	ITALY
32	ATLANTIC FILM		FRANKFURT AM MAIN	GERMANY
33	BERLIN ART LINK	EDITOR IN CHIEF	BERLIN	GERMANY
34	BERLINER ZEITUNG	PHOTOGRAPHER	BERLIN	GERMANY
35	BIOARCHITETTURA		TRIESTE	ITALY
36	C MAGAZINE			
37	CARTE D’ARTE	EDITOR	MODENA	ITALY
38	CASCA	EDITOR	BELGRADE	SERBIA
39	CENTRO MARE RADIO		ROME	ITALY
40	CHIARA GIOIA PHOTOGRAPHY	PHOTOGRAPHER	MILAN	ITALY
41	CLASSEDITORI	PHOTO EDITOR	MILAN	ITALY
42	COMUNITA	EDITOR IN CHIEF	ROME	ITALY
43	CONDE NAST			
44	CONSTRAINT MAGAZINE			
45	CONTEMPORARY ART FERNELMONT	ART DIRECTOR		
46	CONTESSANALLY		TREVISO	ITALY
47	CORRIERE VIAGGI			
48	COSMO.KZ	JOURNALIST		KAZAKHSTAN
49	COTTONFIOCC+ ARTE.IT			
50	DARS MAGAZINE	CONTRIBUTOR	VENICE	ITALY
51	DAS ARTS MAGAZINI			
52	DAZEBAO NEWS	CONTRIBUTOR	ROME	ITALY
53	DECO MAGAZINE	EDITOR IN CHIEF	BEIRUT	LEBANON
54	THE ART NEWSPAPER	DIRECTOR	LONDON	UK
55	DER ARCHITEKT B.D.A.	CORRESPONDENT		
56	DESIGNBOOM	FOUNDER	MILAN	ITALY
57	DEUTSCHLANDFUNK	EDITOR	COLOGNE	GERMANY
58	DIE ZEIT	EDITOR	BERLIN	GERMANY
59	DOVE	JOURNALIST	VENICE	ITALY
60	EFFETTO ARTE	ART HISTORIAN, CRITIC	TREVISO	ITALY

61	EL COMENTARIO	EDITOR		MEXICO
62	ELZEVIRO ARTE	DIRECTOR	TREVISO	ITALY
63	EQUILIBRIARTE.NET	EDITOR	CUNEO	ITALY
64	ESPOARTE	CONTRIBUTING EDITOR	MARINA	ITALY
65	EXIBART			
66	FACADES			
67	FINANCIAL TIMES	CHIEF ART CRITIC	LONDON	UK
68	FLASH ART	EDITOR	MILAN	ITALY
69	FOGLESS	ART JOURNALIST/ WRITER	LONDON	UK
70	FONDAZIONE LA BIENNALE DI VENEZIA	PHOTOGRAPHER		ITALY
71	FREE PRESS AGENCY 2000	BLOGGER	VENICE	ITALY
72	FRIEZE, MONOPOL	SENIOR DIRECTOR	BERLIN	GERMANY
73	FRUIT OF THE FOREST	EDITOR	MILAN	ITALY
74	GAZETEE DROUOT	JOURNALIST	PARIS	FRANCE
75	GAZZETTINO	EDITOR IN CHIEF	VENICE	ITALY
76	GQ ITALIA		MILAN	ITALY
77	GRAZIA CASA			
78	HANDELSBLATT	ART EDITOR		
79	HARA MUSEUM FUND	EXECUTIVE DIRECTOR	NEW YORK	USA
80	HH TIME / LONDRA SERA	ART EDITOR	LONDON	UK
81	HRT	JOURNALIST EDITOR		CROATIA
82	HUFFINGTON POST			
83	ICT	JOURNALIST	PARIS	FRANCE
84	IL BORGHESE	CONTRIBUTOR		
85	IL GAZZETTINO			
86	IL GIORNALE DELL'ARCHITETTURA	CORRESPONDENT	MILAN	ITALY
87	IL GIORNALE DELL'ARTE	SENIOR PRESS OFFICER	PALERMO	ITALY
88	IL GIORNALE DI VICENZA ARENA	CHIEF SECTOR	VICENZA	ITALY
89	IL PICCOLO			
90	IL PROGETTO	DIRECTOR	TRIESTE	ITALY

91	IL SECOLO XIX	CONTRIBUTOR	GENOVA	ITALY
92	IL SOLE 24 ORE	EDITOR	MILAN	ITALY
93	IL TIRRENO	EDITOR		
94	INSIDEART	EDITOR		
95	JOURNAL AC+E	CURATOR / WRITER	VIENNA	AUSTRIA
96	KALEIDOSCOPE	ONLINE EDITOR		
97	KULTUR DIPLOMAT MAGAZIN	CO EDITOR		
98	KULTUR SPIEGEL	REDATTRICE	HAMBURG	GERMANY
99	KULTURKORRESPONDENTIN	EDITOR		
100	KUNSTFORUM INTERNATIONAL	CORRESPONDENT	COLOGNE	GERMANY
101	KYODO NEWS	STAFF REPORTER	VENICE	ITALY
102	L AMBIENTE	EDITOR IN CHIEF EURONEWS	MILAN	ITALY
103	LA PROVENCE \ MAGAZYN SZTUK	CORRESPONDENT		
104	LA PROVINCIA DI COMO	CONTRIBUTOR		
105	LA REPUBBLICA	EDITOR		
106	LABROUGE	CONTRIBUTING EDITOR		
107	LAVANGUARDIA		BARCELONA	SPAIN
108	LE CARRÉ BLEU		NAPOLI	ITALY
109	LE COURRIER DE L'ARCHITECTE		MILAN	ITALY
110	LEAP	DEPUTY CHIEF EDITOR	BEIJING	CHINA
111	LES COMPTOIRS	SENIOR DIGITAL CONSULTANT	MILAN	ITALY
112	LOCUS+	DIRECTOR		
113	LOFT ACHT	ARTNETWORKING PRESS		
114	MAG ART		MADRID	SPAIN
115	MAGASIN		PARIS	FRANCE
116	MAINPOST	REDATTORE		
117	MEDIASET		MILAN	ITALY
118	MELBOURNE ART NETWORK		MELBOURNE	AUSTRALIA
119	MONDADORI, GRAZIA CASA	EDITOR		
120	MONOPOL	EDITOR IN CHIEF	BERLIN	GERMANY

121	MOUSSE MAGAZINE			
122	NEUE KUNST ART SERIES	EDITOR		
123	NOI DONNE			
124	NOMAD	CORRESPONDENT		
125	NOVUM MAGAZINE (D)		ROME	ITALY
126	NRC HANDELSBLAD	EDITOR	AMSTERDAM	THE NETHERLANDS
127	NUMERO CIVICO		ROVERETO (TN)	ITALY
128	NY TID			NORWAY
129	NYUGAT MAGYARORSZAGI EGYETEM		BUDAPEST	HUNGARY
130	NZZAMSONNTAG	EDITOR	ZURICH	SWITZERLAND
131	O CLUSTER		RIO DE JANEIRO	BRASIL
132	OLDNEWS			
133	OPELVILLEN NEWS	DIRECTOR		
134	OSTASIATISCHE ZEITUNG			
135	PAESAGGIO URBANO	JOURNALIST	FERRARA	ITALY
136	PAGE MAGAZINE	PHOTOGRAPHER		UK
137	PANEACQUA CULTURE.NET	CONTRIBUTOR	GENOVA	ITALY
138	PAPERMAG.COM	JOURNALIST		
139	PARISIANLAUNDRY.COM	DIRECTOR	MONTREAL	CANADA
140	PHOTOART MAGAZINE THAILAND		BANGKOK	THAILAND
141	POLARIS IMAGES NY			
142	POLITIS / PARATHIRO	FREELANCE	NICOSIA	CYPRUS
143	PRATICHI	CORRESPONDENT	ROME	ITALY
144	PRINT	FREELANCE	LONDON	UK
145	QUANTAS IN FLIGHT MAGAZINE	WRITER		AUSTRALIA
146	RADI RADIO3 / LA STAMPA		ROME	ITALY
147	RADIO CAPITAL	EDITOR		
148	RAI	DIRECTOR	ROME	ITALY
149	REAL KYOTO	WRITER		JAPAN
150	RED STAR	JOURNALIST		
151	STRINGERINITALY.COM	PRESS AGENT	ROME	ITALY

152	SETTE		MILAN	ITALY
153	SPEAR'S			
154	STUDIOINTERNATIONAL.COM	CONTRIBUTOR		
155	STYLEPARK NEWS + STORIES, ART MAGAZIN	EDITOR AT LARGE	FRANKFURT AM MAIN	GERMANY
156	SUDDEUTSCHE ZEITUNG	FEUILLETON	MUNCHEN	GERMANY
157	SUPERVIZUELNA.COM	COEDITOR		
158	SUTTON		LONDON	UK
159	SWISS PUBLIC RADIO	FREELANCE		
160	TA NEA	JOURNALIST	ATHENS	GREECE
161	TAR MAGAZINE	DIRECTOR		
162	THE ART NEWSPAPER			
163	THE ASAHI SHIMBUN	STAFF WRITER	OSAKA	JAPAN
164	THE GUARDIAN			
165	THE SKINNY	EDITOR IN CHIEF		
166	TVA VICENZA			
167	UBI–CINÉMA INTERNATIONAL	REVIEWER / CRITIC	PARIS	FRANCE
168	UNTITLED – STATE OF THE ART		HEIDELBERG	GERMANY
169	UOMO VOGUE	JOURNALIST	PARIS	FRANCE
170	VANITY FAIR	EDITOR IN CHIEF	MILAN	ITALY
171	VENEZIA NEWS	COORDINATING EDITOR	VENICE	ITALY
172	VIDEOBRASIL	EDITOR	SAO PAULO	BRASIL
173	VISIONI FUTURE	PRESIDENT	POTENZA	ITALY
174	W MAGAZINE	ARTS AND CULTURE DIRECTOR	NEW YORK	USA
175	WALL STREET JOURNAL	PROFESSOR	TORONTO	CANADA
176	WARTIST.ORG	CURATOR AND CRITIC		
177	WDR (WESTDEUTSCHER RUNDFUNK)	CORRESPONDENT	BERLIN	GERMANY
178	WHITEWALL	CHIEF EDITOR CHINA	BEIJING	CHINA
179	AUSTRIAN JOURNALIST CLUB	JOURNALIST		
180	WWW.OUTOFSYNC.DK	EDITO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보 도 자 료

[총 4 매]

배포 : 2014년 4월 7일(월)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임기현 02-760-4749 / khy@arko.or.kr
사업평가부 홍보팀 이재일 과장 02-760-4538 / news@arko.or.kr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에 이숙경 큐레이터 선정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 이하 위원회)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커미셔너로 이숙경 씨(영국 테이트 미술관 큐레이터)와 참가 작가로 전준호·문경원 작가를 선정하였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를 총괄할 커미셔너 선정 과정에서 미술계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 1월, 미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커미셔너 추천위원회와 커미셔너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다.

□ 커미셔너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16명의 커미셔너 후보가 결정되었고, 선정위원회에서는 이 후보들 중 4명을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커미셔너 후보들의 전시계획안과 전시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숙경 큐레이터를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로, 전준호·문경원 작가를 2015년 한국관 참가작가로 최종 선정하였다.

□ 이숙경 커미셔너는 홍익대학교, 영국 에섹스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영국 테이트 리버풀의 전시 큐레이터로 활동하면서 백남준, 더그 에이트킨(Doug Aitken) 전 등 대규모 기획전을 큐레이팅하였다. 2012년 말부터는 테이트 아시아 태평양 리서치 센터(Tate Research Centre: Asia-Pacific)의 책임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2014년 하반기에 열릴 테이트 모던 백남준 신소장품 전시를 준비 중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보 도 자 료

[총 13매, 세부자료 붙임]

배포 : 2015년 4월 9일(목)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임기현 061-900-2211/ khy@arko.or.kr
전현희 061-900-2214/ hhjeon@arko.or.kr
보도자료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접속하여
[ID : koreanpavilion2015] / [PW : 2015] 입력후
guest폴더/내리기전용 폴더/20150409 기자간담회 폴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전시 계획 발표

이숙경 커미셔너, 문경원 & 전준호 작가, 개관 20주년 기념 한국관 전시 주제 《축지법과 비행술》 공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권영빈)는 9일(목) 오전 11시 서울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1층 스페이스 필룩스에서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의 전시 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2015년 전시의 커미셔너인 이숙경(영국 테이트 미술관 큐레이터) 큐레이터와 문경원, 전준호 참여 작가가 참석하여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의 전시 계획을 발표했다.

□ 한국관 전시 및 개막 일정
- 한국관 기자 간담회(현지) : 2015년 5월 6일 오후 2시
- 한국관 개막식 : 2015년 5월 6일 오후 3시
-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 기간 : 2015년 5월 9일–11월 22일 (프리뷰 6일–8일)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축지법과 비행술》 미리보기

작품의 배경

● 한국관 개관 20주년 기념, 국가관으로서의 경계를 넘어 바라본 한국관과 베니스의 과거, 현재, 미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보 도 자 료

[총 4매, 세부자료 붙임]

배포 : 2015년 5월 7일(목)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평가부 이재일 과장 02-760-4714 / news@arko.or.kr
국제교류부 임기현 대리 061-900-2211 / khy@arko.or.kr

보도자료는 웹하드(www.webhard.co.kr)에 접속하여
[ID : koreanpavilion2015] / [PW : 2015] 입력 후
guest폴더/내리기전용 폴더/20150506 개막식 폴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 한국관 전시 〈축지법과 비행술〉 개막

- 한국관의 건축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영상 선보여
- 실험적인 미학과 혁신적 기술을 접목한 영상 작품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
- 해외 언론 및 주요 미술계 인사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신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 미술 비엔날레인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미술전의 한국관 전시를 2015년 5월 6일 베니스 현지에서 개막했다.

<u>설립 20주년 맞은 한국관의 건축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한 영상 선보여</u>

☐ 1995년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 안에 마지막 국가관으로 설립된 한국관은 유리벽과 곡선형 벽 구조, 여러 개의 다면체로 구성된 전체 공간 등 건축적 특수성이 크게 부각되는 대신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서는 상당히 도전적인 건물이었다.

☐ 문경원 & 전준호 작가는 한국관 건물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완전히 다른 기능과 외형으로 탈바꿈한 한국관 공간을 영상 언어를 통해 구현해냈다.

☐ 한국관의 건물 내부와 외부를 총체적으로 재해석한 신작은 외부에서 관람하는 두 개의 고화질 LED 스크린과 내부에 설치된 프로젝터 및 모니터를 이용한

KOREAN PAVILION

At the 5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 la Biennale di Venezia

la Biennale di Venezia
56.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A PROJECT BY MOON KYUNGWON & JEON JOONHO
COMMISSIONED & CURATED BY SOOK-KYUNG LEE

AT GIARDINI IN VENICE, ITALY
EXHIBITION: MAY 9 – NOVEMBER 22, 2015
PRESS CONFERENCE: MAY 6, 2pm | VERNISSAGE: MAY 6, 3pm

www.koreanpavilion2015.com

Venice, May 6, 2015 – The Korean artist duo **Moon Kyungwon & Jeon Joonho** will present a new site-specific work in the **Korean Pavilion** at the 5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of la Biennale di Venezia from **9 May to 22 November 2015**. Working in collaboration since 2009, the duo has developed a critically acclaimed body of work, including the film installation ***News from Nowhere***, which was first shown at the **dOCUMENTA (13)** in Kassel in 2012.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2015)**, a **new multi-channel film installation** (duration 10'30"), explores an **archaeological quest** into human civilization that interweaves history with visions of the future as told through a **future-retrospective** narrative. It also alludes to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historic evolution of la Biennale di Venezia itself, the scale and influence of which have been acquired within a shifting socio-political landscape.

The title of the project stems from the Korean words *chukjibeop* and *bihaengsul*. Originating from Taoist practice, *chukjibeop* means a hypothetical method of contracting physical distance and of allowing one to travel a substantial distance in a short space of time. *Bihaengsul* refers to another supernatural power, based on one of the oldest human desires, to levitate, fly and travel across time and space. In the history of Eastern culture, these ideas have been explored not only as means of meditative practice but also as methods to reach a state of complete emancipation of both mind and body from physical limitations and natural forces. **They reflect the human desire to surpass the physical and perceived barriers and structures that bind us, despite the apparent absurdity of such imaginings**. While some scientific theories and hypotheses have supported the possibility of realising such ideas, they remain largely in the realms of parable and fantasy, epitomising our intrinsic yearning to transform the world around us.

Moon and Jeon's previous projects, such as ***News from Nowhere*** (2012), focused on creating an

[3차 보도자료 | 이탈리아어] 한국관 전시 개막 (총 3매 중 1면)

PADIGLIONE COREANO

Alla 56.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 la Biennale di Venezia

la Biennale di Venezia
56.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Partecipazioni Nazionali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UN PROGETTO DI MOON KYUNGWON & JEON JOONHO
COMMISSARIO E CURATRICE: SOOK-KYUNG LEE

GIARDINI DI CASTELLO
APERTURA: 9 MAGGIO – 22 NOVEMBRE 2015
CONFERENZA STAMPA: 6 MAGGIO, ORE 14 | VERNISSAGE: 6 MAGGIO, ORE 15

www.koreanpavilion2015.com

Venezia, 6 maggio 2015 – Il duo di artisti coreani **Moon Kyungwon & Jeon Joonho** presenterà una nuova opera creata ad hoc per gli spazi del **Padiglione Coreano** alla 56.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 la Biennale di Venezia **dal 9 maggio al 22 novembre 2015**. Attraverso la collaborazione avviata nel 2009, il duo ha sviluppato una serie di opere che ha ottenuto il plauso della critica, tra le quali l'installazione cinematografica ***News from Nowhere,*** proiettata per la prima volta in occasione di **dOCUMENTA (13)** a Kassel nel 2012.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2015), una **nuova installazione cinematografica multicanale** (durata 10'30''), costituisce una **ricerca archeologica** all'interno della civiltà umana, che intreccia storia e visioni del futuro in una **narrativa a ritroso**. Vi si ritrovano anche allusioni alla struttura istituzionale e all'evoluzione storica della Biennale di Venezia stessa, la cui portata e influenza sono state acquisite sullo sfondo di un panorama socio-politico mutevole.

Il titolo del progetto deriva dalle parole coreane *chukjibeop* e *bihaengsul*. *Chukjibeop* trova origine nella pratica Taoista e indica un metodo ipotetico di ridurre la distanza, consentendo di coprire un lungo percorso in breve tempo. *Bihaengsul* fa riferimento a un altro potere sovrannaturale, basato su uno dei più antichi desideri dell'uomo, ovvero levitare, volare e viaggiare nel tempo e nello spazio. Nella storia della cultura Orientale, queste idee sono state esplorate non solo come strumenti di pratica meditativa ma anche come metodi per raggiungere uno stato di completa emancipazione della mente e del corpo dai limiti fisici e dalle leggi della natura. **Questi due termini rappresentavano il desiderio dell'uomo di superare le barriere fisiche e quelle percepite, nonostante l'apparente assurdità di un tale immaginario**. Sebbene alcune teorie e ipotesi scientifiche abbiano sostenuto la possibilità di realizzare tali idee, esse rimangono in gran parte appannaggio del mondo della fantasia e dei miti, come incarnazioni del nostro bisogno innato di

[4차 보도자료] 전시 성과 보고 심포지엄 개최 (총 3매 중 1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보 도 자 료

(총 2매, 세부자료 붙임)

배포 : 2015년 12월 7일(월)
문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변서영 대리 061-900-2215 / sybyeon@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 성과 보고 심포지엄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12월 9일(수)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에서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 성과 보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올해 한국관 전시가 이루어 낸 성과를 되돌아보고 한국관의 미래를 조망하기 위한 발제와 대담의 장으로 구성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4부로 진행된다. 1부 <예술인간의 탄생>에서는 과거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뉴스 프롬 노웨어(News from Nowhere)>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는 조정환 문학평론가 · 정치철학자를 초청하여 누구나 예술가이기를 요구받는 시대에 예술, 예술가, 그리고 비예술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이는 2009년부터 예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질문하며 학제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지속 해 온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업의 연장선에 있으며 예술과 사회,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시간으로 마련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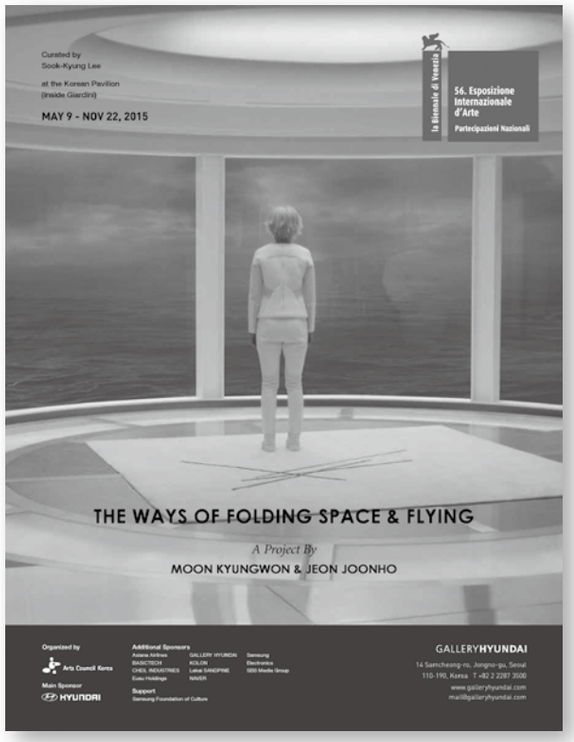
□ 2부 <매개와 교류의 플랫폼>에서 이숙경 커미셔너 · 큐레이터는 베니스비엔날레의 독자적 역할과 위상을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올해 한국관 전시를 위해 장소 특정적 신작을 기획하게 된 배경, 시각 중심의 미술작품을 통한 인문학적, 사회학적 테마의 해석 등 전시 기획의 시작부터 프로젝트의 완성 단계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의 베니스비엔날레가 예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특색을 보였으며 국제 미술계에서 어떻게 평가되었는

6) 유료 광고

아트포럼(Artforum) | 2015년 5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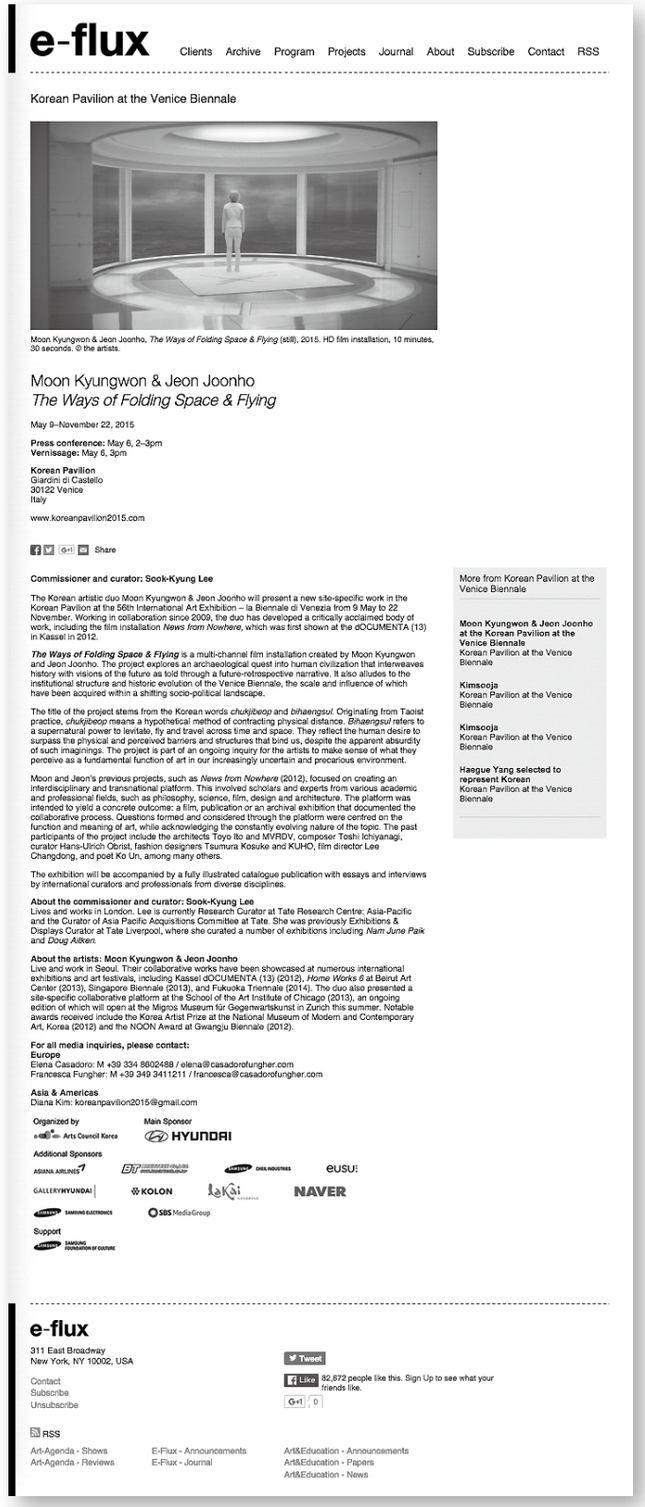


프리즈(Frieze) | 2015년 5월호



아트아시아퍼시픽(artasiapacific) | 2015년 5-6월호

이플럭스(e-flux) | 2015년 4월 14일자



7) Google Cultural Institute

구글 컬쳐럴 인스티튜트(Google Cultural Institute)는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 미술전과 손을 잡고 국제전과 국가관 전시의 일부를 구글의 온라인 플랫폼에 아카이브화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1년 창설된 비영리 기관인 구글 컬쳐럴 인스티튜트는 전 세계 문화예술 컨텐츠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구글의 혁신적인 플랫폼과 아카이브 기술을 도입하고 개발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0여 곳의 문화예술 기관들과의 협력 하에 약 17만 점의 예술작품과 600만 점의 사진, 영상, 기록물 등의 관련 자료를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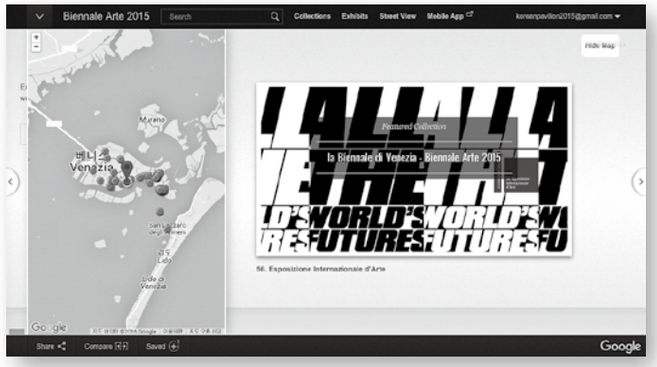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조직위원회와 이탈리아의 문화관광부는 전시의 관람객층을 넓히고, 보다 지속적인 관람객과의 소통을 도모하고자 구글 컬쳐럴 인스티튜트와의 첫 협력 작업에 동참하였으며 각 국가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반으로 약 80개국의 전시를 360도 파노라마 뷰로 촬영하고 4,000여 점의 작품과 사진을 취합하였다. 완성된 웹사이트는 2015년 11월부터 아래의 해당 웹사이트에서 공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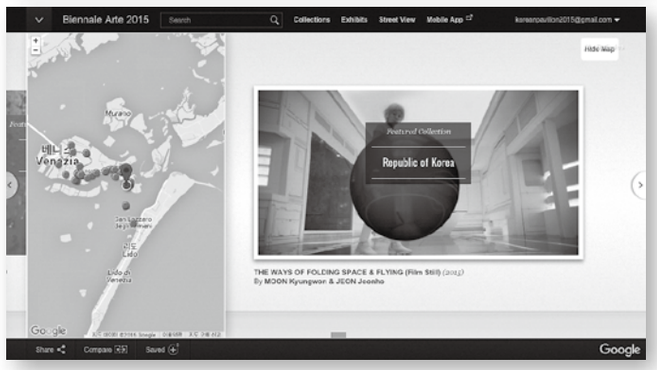
2015년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관람 U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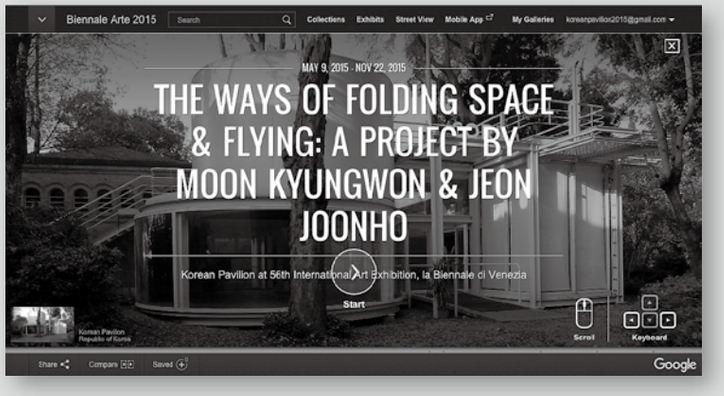
g.co/biennalearte2015
www.labiennale.org/en/art/online-2015exhibition/

한국관 전시 URL

https://www.google.com/culturalinstitute/exhibit/the-ways-of-folding-space-flying-a-project-by-moon-kyungwon-jeon-joonho/AgKid4a01wpFLg?projectId=la-biennale-di-venezia&hl=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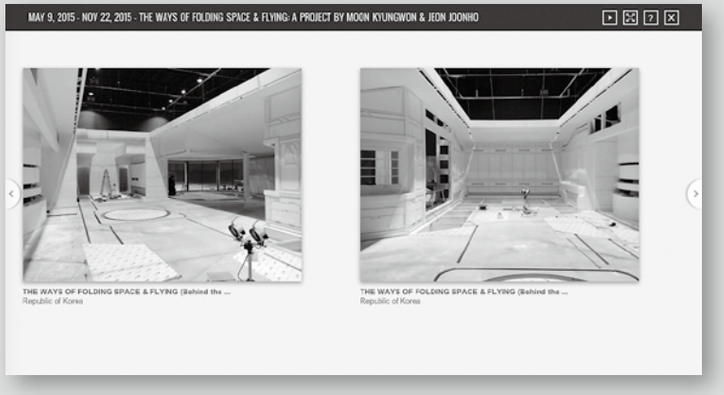












FEEDBACK

1. 언론 보도

1) 국내 방송 및 일간지 기사 모음

[MBN]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축지법과 비행술'
보도일자 | 2015-4-10
링　　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293728



〈앵커〉 다음 달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에서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제목의 영상 설치작품이 전시됩니다. 이번 한국관 전시작은 한국관의 과거, 현재, 미래뿐 아니라 국가관이라는 경계 너머의 베니스 비엔날레의 역사적 서사를 담은 10분 30초 분량의 영상 설치작품으로 구성됩니다. 작품은 특히 전시관의 특성을 살려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7개 채널의 영상 설치작업으로 재앙 이후 육지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한국관이 부표처럼 떠돈다는 전제 속에서 시작합니다.

[이숙경 / 영국 테이트 미술관 큐레이터: '축지법과 비행술'은 사실 인간의 비논리적인 열망이랄까, 그런 것을 아주 오랜 역사적인 시간을 가지고 보여준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논리적이면서도 희망이 있고 이상적인 것이 담겨 있는 개념이라는 점 때문에….]

(취재: 박상곤 기자)

[SBS뉴스] 베니스비엔날레…임흥순 다큐멘터리로 '은사자상'
보도일자 | 2015-5-11
링　　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69663&plink=ORI&cooper=NAVER#sns



〈앵커〉 '현대미술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작가 임흥순이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현대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베니스 비엔날레 현장으로 곽상은 기자가 안내합니다.

(중간생략)

고풍스러운 건축물들 사이 외벽이 LED로 둘러싸인 한국관은 '올해의 작가상' 수상자 출신 전준호, 문경원 작가의 영상 설치 작품으로 꾸며졌습니다.

[문경원 · 전준호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참여 작가: '나는 누구지, 왜 여기 서 있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이 영화는 끝나게 돼요. 그럼 지점이 예술이 줄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람객들은 전시관 안팎을 오가는 독특한 영상에 시종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앤드류 앤더슨/호주 건축가 (관람객): 건물의 외부에서도 내부 전시내용을 알 수 있게 하다니 아이디어가 무척 좋아요.]

(취재: 곽상은 기자)

2015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기사모음

(방송사, 일간지 온라인 및 지면)

번호	날짜	매체명	기사제목	링크
1	2015-04-09	경향신문	축지법으로 세상 잇고, 인류의 염원 묻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092132515&code=960202
2	2015-04-09	국민일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영상물 임수정 캐스팅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323336&code=61171111&cp=nv
3	2015-04-09	국제신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20주년… 전시는 '축지법과 비행술'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50409.99002142938
4	2015-04-09	글로벌이코노믹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관 20주년 기념 '축지법과 비행술' 영상설치	http://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1504091510050140483_1/article.html
5	2015-04-09	뉴스1	문경원 · 전준호 영상설치작 '축지법과 비행술'전시…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http://news1.kr/articles/?2178185
6	2015-04-09	뉴스토마토	베니스에서 예술의 본질을 묻다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전시, 내달 6일 개막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47957
7	2015-04-09	서울경제	종말이 와도 예술 이어질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축지법과 비행술' 선봬	http://economy.hankooki.com/lpage/entv/201504/e20150409203517118180.htm
8	2015-04-09	연합뉴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는 '축지법과 비행술'(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09/0200000000AKR20150409057551005.HTML?input=1195m
9	2015-04-09	헤럴드경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베니스에서 묻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090009 18&md=20150409150630_BL
10	2015-04-10	서울신문	베니스로 간 한국예술 20년… 현대미술의 미래를 묻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410029020
11	2015-04-10	중앙일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20주년 … '물에 잠긴 가상 미래' 미술로 묻다	http://news.joins.com/article/17556584
12	2015-04-10	MBN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축지법과 비행술'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2293728
13	2015-04-11	이데일리	'축지법과 비행술' 세계미술계 사로잡을까?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I41&newsid=01863046609335136&DCD=A404&OutLnkChk=Y
14	2015-04-14	세계일보	종말 맞은 가상의 미래서 예술의 역할을 묻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4/14/20150414003787.html?OutUrl=naver
15	2015-04-14	한국일보	종말 뒤 살아남은 인류에게 예술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http://www.hankookilbo.com/v/3e21a5e7d7a34b8388bddd8a196144ef
16	2015-04-27	광주매일신문	광주비엔날레 등 지역 기반 작가들 대거 포진 '관심'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4301331113474 39006
17	2015-05-03	국민일보	미리 보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설치될 '축지법과 비행술'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04580&code=61171111&cp=nv
18	2015-05-03	매일경제	제 56회 베니스비엔날레 9일 개막… '세계의 미래'와 미술한류가 만난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22369
19	2015-05-04	국민일보	[미리 가 본 베니스비엔날레 D-6] 한국 현대미술, '물의 도시'에 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62482&code=13110000&cp=nv
20	2015-05-04	연합뉴스	현대미술축제 '베니스 비엔날레' 6일 시작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3/0200000000AKR20150503000400005.HTML?input=1195m
21	2015-05-04	연합뉴스	미리 보는 2015년 베니스 비엔날레 미술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24/0200000000AKR20150424168300005.HTML?input=1195m
22	2015-05-04	한국경제	베니스 누비는 광주비엔날레 주역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0370711
23	2015-05-04	헤럴드경제	세계 3대 미술축제, 베니스 비엔날레 9일 공식 개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040000 98&md=20150504082921_BL
24	2015-05-05	서울신문	미술 한류의 미래 '물의 도시'서 묻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05018005
25	2015-05-07	국민일보	미래 베니스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국관… 전 세계 예술가들 찬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417577&code=61171611&cp=nv

26	2015-05-07	뉴시스	‘모든 세계의 미술’ 한 자리에…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507_0013647125&cID=10701&pID=10700
27	2015-05-07	매일경제	20년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혁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36364
28	2015-05-07	연합뉴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설치된 ‘축지법과 비행술’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0507149500013&input=1196m
29	2015-05-07	연합뉴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와 작가들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50507010500005&input=1196m
30	2015-05-07	연합뉴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하나뿐인 작품이 되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030800005.HTML?input=1195m
31	2015-05-07	연합뉴스	세계 현대미술 경연장 ‘베니스 비엔날레’ 막 올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07/0200000000AKR20150507024600005.HTML?input=1195m
32	2015-05-07	중앙일보	세계 최대의 미술축제, 베니스 비엔날레 9일 개막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752350&cloc=olink|article|default
33	2015-05-07	한겨레	베네치아 한국관 외벽에 쏜 ‘임수정 영상’ 눈길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690205.html
34	2015-05-07	헤럴드경제	[베니스비엔날레] 백남준의 후예들, 베니스를 사로잡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5070001436&md=20150507173442_BL
35	2015-05-08	국민일보	베니스비엔날레 공식 개막 前 사전공개 행사에 가보니… 유리에 싸인 한국관, 곡면 LED 영상 눈길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067867&code=13110000&cp=nv
36	2015-05-08	뉴스핌	임수정 참여작 ‘축지법과 비행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서 첫선 ‘주목’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50508000085
37	2015-05-08	동아일보	전쟁-기아-소외… 미래에 던진 묵직한 질문	http://news.donga.com/3/all/20150508/71128185/1
38	2015-05-08	매일경제	곡면 유리와 LED로 둘러싼 한국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438181
39	2015-05-08	서울신문	백남준 후예들 베니스 홀리다… “건축과 하나 된 실험적인 영상미… 시적이고 매혹적”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508019002
40	2015-05-08	세계일보	‘축지법과 비행술’ 물의 도시를 관통하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07/20150507003931.html?OutUrl=naver
41	2015-05-08	스타데일리뉴스	임수정 참여작 ‘축지법과 비행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서 첫 선	http://www.stardail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274
42	2015-05-08	스포츠동아	임수정 참여 미술작품, 베니스 비엔날레서 찬사	http://sports.donga.com/3/all/20150508/71133814/2
43	2015-05-08	스포츠동아	임수정 참여 ‘축지법과 비행술’, 베니스 비엔날레서 첫 선	http://sports.donga.com/3/all/20150508/71130816/2
44	2015-05-08	스포츠월드	임수정 참여 ‘축지법과 비행술’, 베니스 비엔날레서 첫 선	http://www.sportsworldi.com/content/html/2015/05/08/20150508000681.html?OutUrl=naver
45	2015-05-08	스포츠조선	임수정 출연 설치미술, ‘베니스 비엔날레’서 관심 폭발 뜨거운 반응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50508010008103000546 0&servicedate=20150508
46	2015-05-08	스포츠한국	임수정 참여작 ‘축지법과 비행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서 첫 선 ‘주목’	http://sports.hankooki.com/lpage/entv/201505/sp20150508111742136730.htm
47	2015-05-08	아시아뉴스통신	임수정 참여작 ‘축지법과 비행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서 첫 선 ‘주목’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822424&thread=07r05
48	2015-05-08	울산매일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설치된 ‘축지법과 비행술’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960
49	2015-05-08	이데일리	베니스 비엔날레에 임수정이? ‘은발 신인류’ 파격	http://starin.edaily.co.kr/news/NewsRead.edy?SCD=EA31&newsid=01223446609366952&DCD=A10102
50	2015-05-08	중앙일보	SF영화 같은 베니스 한국관 … 백남준도 기뻐하겠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754842&cloc=olink|article|default
51	2015-05-08	티브이데일리	임수정 재능기부 영상설치작 베니스 비엔날레서 주목 ‘파격 비주얼’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310412679007 11008

52	2015-05-08	한경닷컴	임수정 출연 영상설치작품,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서 첫 선 '찬사 이어져'	http://starn.hankyung.com/ news/index.html?no=377750
53	2015-05-08	한국경제TV	임수정 참여작 '축지법과 비행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서 첫 선 '주목'	http://wowstar.wowtv.co.kr/ news/view.asp?newsid=62735
54	2015-05-08	헤럴드경제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의 이름으로 '오늘'을 발언하다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1505080000061& md=20150508080057_BL
55	2015-05-08	헤럴드POP	임수정 참여작 '축지법과 비행술',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서 공개	http://pop.heraldcorp.com/view. php?ud=2015050808233880888 37_1
56	2015-05-08	CNB저널	제56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축지법과 비행술' 개막	http://weekly.cnbnews.com/ news/article.html?no=115939
57	2015-05-08	enews24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설치된 '축지법과 비행술'	http://enews24.interest.me/ news/article.asp?nsID=744846
58	2015-05-08	Metro	임수정, 영상설치작품 '축지법과 비행술'로 베니스 비엔날레 빛내	http://www.metroseoul.co.kr/ news/newsview?newscd=2015 050800100
59	2015-05-08	News1	백남준 후예들, '축지법과 비행술'로 베니스를 유혹	http://news1.kr/ articles/?2222050
60	2015-05-08	TV리포트	임수정 맞아? 베니스 달군 파격 은발 비주얼	http://www.tvreport.co.kr/?c=new s&m=newsview&idx=705865
61	2015-05-10	한겨레	'암중모색' 골목 지나…'물오른' 한국미술 고동치다	http://www.hani.co.kr/arti/ culture/music/690553.html
62	2015-05-11	경향신문	'세계의 미래' 여러대 TV로 동시에 보듯… 큐레이터 김선정씨의 베니스 비엔날레 참관기	http://news.khan.co.kr/kh_news/ khan_art_view.html?artid=201505 112118275&code=960202
63	2015-05-11	파이낸셜뉴스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의 마지막 인류	http://www.fnnews.com/ news/201505111658455141
64	2015-05-11	헤럴드경제	미술의 언어로 '거친 오늘'을 고발하다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150511000327& md=20150511110640_BL
65	2015-05-11	SBS뉴스	베니스 비엔날레…임흥순 다큐멘터리 로 '은사자상'	http://news.sbs.co.kr/news/ endPage.do?news_id=N1002969 663&plink=ORI&cooper=NAVER
66	2015-05-14	헤럴드경제	외교전 밀린 한국…日과 문화로 붙었다	http://news.heraldcorp.com/ view.php?ud=20150514000660& md=20150514112909_BL
67	2015-05-15	광주일보	'모든 세계의 미래'에 '오늘' 있다	http://www.kwangju.co.kr/read. php3?aid=1431615600550266 007
68	2015-05-17	중앙 SUNDAY MAGAZINE	작품 하나하나에 무한 에너지 관객 향해 소리없는 아우성	http://sunday.joins.com/article/ view.asp?aid=38036
69	2015-06-05	매일경제	글로벌 호황 속 국내 미술도 상승세	http://news.mk.co.kr/newsRead. php?year=2015&no=541521

2) 국내 월간지 기사 모음

아트인컬쳐 | 2015년 5월호, 90~99 pg





SPECIAL FEATURE ❷
Korean Pavilion

'축지법과 비행술' 예술가의 시간 여행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이 개관했다. 올해로 개관 20주년. 이 특별한 순간을 기념할 전시의 주인공은 바로 작가 듀오 문경원&전준호. 이들이 선보일 〈축지법과 비행술(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에서 '축지법'은 마치 항술 점토이 국경을 손쉬간에 넘나드는 기술을, '비행술'은 끊임없이 날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을 가리킨다. 종말적 재앙 이후의 미래를 그린 영상 설치, 멀로 블록버스터 SF영화가 떠오르지만, 작품 속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예술가. 유일한 생존자인 그는 사운간을 초월해 한국관과 베니스비엔날레의 역사 곳곳을 누빈다. 베니스에 있는 한국관을 남양주 세트장에 그대로 재현해 촬영했다. 전시 개막에 앞서 두 작가는 물론, 전시의 공요한 협업자인 이숙경 커미셔너와 함께 심층적인 대화를 나눴다. 두 작가가 함께 고민한 '예술가는 우리 사회에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결론은 무엇일까? / 재연 기자

왼 - 〈축지법과 비행술〉 제작과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포스터. Kindred Studio/Andrew Fairclough의 일러스트 작품
오른쪽 페이지: 2014년 4월 아르코미술관에서 열린 베니스비엔날레 이슬란 커미셔너 및 참여작가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문경원 이숙경 전준호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글로벌 담론에 대응하여 한국미술의 독자성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지금까지 10회의 미술전, 9회의 건축전을 열었으며, 개관 직후 3회 연속으로 특별상(1995년 전수경, 1997년 강익중, 1999년 이불)을 수상했다. 2014년 건축전 〈한강도 오강도〉는 처음으로 황금사자상을 받는 쾌거를 이룩했다. 지난해 4월, 한국관 측은 11번째 미술전의 새 커미셔너로 런던 테이트브리튼현대미술관큐레이터 출신 윤혜선의 이숙경과 함께 문경원&전준호를 선정했다고 알표했다. 2015년 4월 현재, 한국관 최초의 '팀 작가'가 준비한 영상 설치 프로젝트 〈축지법과 비행술〉이 주목을 열 채비를 마쳤다. 지구에 종말적 재앙이 닥쳐 전 세계 대부분이 잠기고, 베니스도 가라앉았을 때, 한국관만이 유일하게 부표처럼 떠올랐다는 시놉시스에서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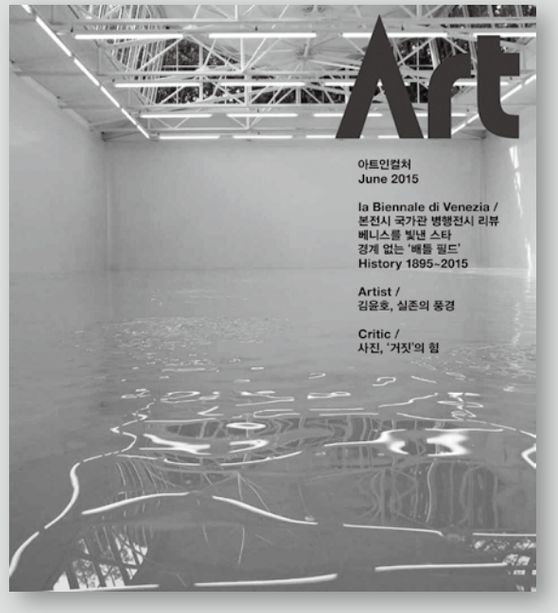
Art 작품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베니스비엔날레는 각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현대미술의 각축장이기도 하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한국관의 전시 작가로 문경원&전준호를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숙경(이하 이) 작품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작가들을 줄 세워 '최고'를 휩는다는 논리는 더 이상 동시대 미술에서 통용될 수 없다. 또한 한국 미술계에 실력 있고 우수한 작가도 너무나 많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주목할 가치가 있는 작업을 택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작업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될 것이다. 글로벌리즘에 종승한 무국적 자본의 폐해를 비판하는 작업이나 자연재해, 전염병, 테러 등 인류의 재앙에 맞서는 작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문경원과 전준호는 그간의 개별 활동 중 동일 작업에서 '미술적 사회성'이란 측면을 다각적으로 보여 왔다. 이들의 작업이 한국미술계만 아니라 세계미술에서 관련 담론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 오쿠이 엔윈저 역시 이러한 주제에 주곤히 관심을 보여 온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 이 두 작가의 발언이 어떤 비엔날레에서 더의 있는 역할을 하리라 판단했다.

Art 마직 전시를 보기 전이어서 그런지, 전시 제목 〈축지법과 비행술〉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낯설었다. '축지법'과 '비행술'의 차이는 무엇이고, 작품 안에서 시작적으로 어떻게 구현했나?

문경원&전준호(이하 문&전) 속지법은 말 그대로 '땅을 접는 방법'이라는 동서이다. 베니스에 있는 한국관을 남양주 세트장에 그대로 재현해 촬영했다. 영상을 본 관객은 이 작업이 마치 베니스에 있는 한국관에서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다. 주인공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들이 7개 채널 안에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따로 흩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서사 구조는 영상 설치라는 장치를 통해 극대화된다. 실제 시공간은 물론, 현실과 상상이 교차되고 섞이며 뒤치는 것이다. 한편, 비행술은 인간이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땅을 들 나는 기술을 말한다. 중력 때문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아트인컬쳐 | 2015년 6월호, 112~115 pg





❷ Korean Pavilion

한국관 20년의 영웅들

이용우 / 삼하이 하입라이티술관 관장

지난 5월 4일 카르다시에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개막식이 열렸다. 윤혜선 커미셔너, 윤경원, 전준호 작가 참관호

오른쪽 페이지
문경원&전준호 〈축지법과 비행술〉 HD 영상 설치 가변크기 2015

베니스비엔날레가 100주년을 맞은 1995년, 자르디니에는 예상치 않은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이 새로운 파빌리온을 신축, 개관한 것이다. 카디오은 건축 법규와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로 새로운 국가관이 더 이상 들어설 수 없을 것이라던 자르디니에 한국관이 스물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국가관으로 개관했다.

한국관 건립의 배경에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적 이상주의와 열원이 있었다. 이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갑격하게 무너지고 통독이 달성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의 이상주의적 분위기가 잘 반영된 것이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예술가 백남준이 한국관 건립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예술을 통한 정치적 치유"라는 아름다운 상호간은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평할 수 없는 아름다운 아우라로 이미 힘을 얻어 가고 있었다. 백남준은 베니스 정부의 노벨평화상 가능성까지 들먹이며 한국관 건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세월이 많이 지났으므로 나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역사를 바로 기록하기 위한 종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노정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역사에 없는 영웅적 영웅의 등장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시작을 주도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한국관 건립에 결정적 공을 남긴 작가 백남준과 건축가 김석철의 업적을 역사의 반열에 올려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한국관 공동 설계자인 이탈리아의 프랑코 만쿠조 IUAV 교수, 마시모 카찌미 베니스 시장, 리니오 브루토메소 베니스시 수상도시연구소장, 또한 당시 한 국정부의 집순규 문화관광부 예술국장과 이럽제 보시도 올라바 1993년 베니스비엔날레 예술감독 등은 정말이지 '생신물'이다.

이야기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당시 프랑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한지를 소재로 한 국제 현대미술 전시를 2명의 퍼국인 비평가, 큐레이터와 함께 기획하고 있었다. 로버트 라우션버그, 조지 시걸 등 세계 주요 작가 60명을 상대로 한지를 제공하고 한지 조개의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를 하는 내용이었다. 이 전시는 시장 제도를 깊고 있었는데, 당시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이탈리아 트랜스아방기르드 철시작인 아킬레 보니토 올리바였다. 그러던 중 1992년 어느 날, 올리바가 공교롭게도 베니스비엔날레의 예술총감독에 임명됐다. 나는 그를 다시 대전엑스포 개별초청관 전시의 심사위원으로 아심을 깊고 초빙했으며, 당시 대전엑스포에서 전시를 하고 있던 백남준과 함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서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 후 올리바는 베니스비엔날레 책임 이사장과 이사들에게 한국관을 건립할 경우 남북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을 내세워 설득을 시작했다.

1993년 당시 예술감은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에 한스 하케(Hans Haacke)와 함께 출품작가로 선정되었으며, 그러한 이유로 베니스를 자주 오가고 있었다. 그러고 2년째 작전을 주행하기 위하여 베니스 시 정부와 문화재청을 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봐내고 있었다. 베니스비엔날레가 개막할 즈음 백남준의 레이저맛에 당시 베니스대학에서 초빙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던 건축가 김석철이

아트인아시아 | 2015년 5-6월호, 48~57 pg



"If you set the story after the apocalypse you essentially press the 'reset' button. It is a device that allows us to break from conventional thoughts and beliefs. Once civilization is underwater and the only survivor is left in a desolate environment, what will she need to start again? As an artist, an architect, or a fashion designer, what can we do for her? That was the central question of our project."
– Moon Kyungwon & Jeon Joonho

Below and opposite page: behind the scenes of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Next page
Above: El Fin del Mundo, 2012, HD Film, 13' 35".
Film still ©The artists
Below: MYCHYANGSANGWA, 2014, HD Film, 22' 5".
Film still ©The artis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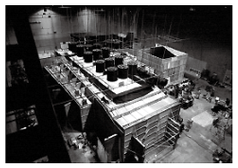




Art That kind of approach seems to be in line with the main theme of the 56th Venice Biennale, *All the World's Futures*.
Moon & Jeon Of course Okwui Enwezor's suggested theme of rethinking the basic issues that will be a problem in the future, influenced us to a degree. However, if you look at our past works you can see that this theme has always been a part of our work. Our work has consistently asked the question towards restoring the role of art and the real influence art can have in our daily lives.
Art You referenced William Morris' book for *News from Nowhere*. Is there any historical or scientific reference you had drawn from to form the future shown in your new work?
Moon & Jeon Back in 2014 there was a case where MIT professor, Tonegawa Susumu, put optical fibers in the brain of a lab rat and then stimulated its neurons, and then overwrote new memories. This neuro-technology is called optogenetics. This technology triggered the concept of the main character in the film. All of her thoughts and actions are controlled by a light signal, called "bio light." The setting allows us to examine the effects of science when it can predict and control human thoughts and actions. It essentially allowed us to express our concerns about how humans and art can develop together in the future. We were also inspired by Greek myths, which helped us solidify and create useful details for our own story.

Experimentations in and outside the Korean Pavi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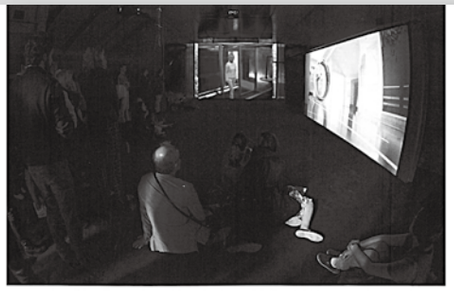
Art One of the things that stands out about your new project is that there are seven channels for the video installation, unlike your single or double channel methods from previous projects. What effect has that element brought to the plot?
Moon & Jeon The main character living in the Korean Pavilion stays constant, but through the use of the seven channels we were able to show different situations from different angles. So that we could get a fuller picture of this character and the surrounding events. You can think of the seven channels as seven different times, locations and views. The channels eventually interconnect into one story. This is a proactive metho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curved glass pavilion, especially compared to a conventional white cube or black box. While our previous projects juxtaposed some props with a single or two channel video installation in the exhibit room, the new project used the full capacity of the site itself, which plays inside and outside the video. The location isn't simply just a background for the video, but the properties of the space, symbolisms and the historic background of the location become the basis of the plot.
Art It's interesting that you decided not to use any dialogue in the video.
Moon & Jeon We didn't want to make a loud statement with it. There are certain emotions that could be touched with very mundane and routine events. Our hope is that each viewer will interpret the video in their own way and not to be affected by any dialogue or language in the video. We hope the viewers sense or experience the video like a poem. They can ask their own questions through it and arrive at their own answers.
Art Was it also influenced by the fact that there would be a lot of foreign viewers?
Lee Yes, despite any cultural differences that may exist between the art and the viewers, we have created a storyline that anyone that is interested in contemporary art will be able to understand. Instead of focusing on a specific narrative, we purposefully alluded to abstract situations. Moon & Jeon planned to connect with the viewers only with visual and nonverbal audio elements.
Art The fact that the artist made this film brings the mise-en-scene to focus. In the few stills that have been released before the show, there was a carpet with several black lines on it, and a round picture frame with an image of what looks like a person hammering in the dark, and there seems to be many other interesting props. Also, when you took part in the 'Korean Artist Prize' of 2012 at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you used props like the posters of international art exhibitions with texts deleted. There was also a carpet with a face of Gustave Courbet deleted from *Bonjour, Monsieur Courbet* (1854). What is the visual aim with such props?
Moon & Jeon We aim to bring attention to the history of art, the constant changing and creation of the values of human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ity in visual language. Now that I've said it out loud it sounds a bit pretentious (laugh). But in all seriousness these are all topics we put a lot of thought into when we started this project.
Art The actress, Im Soo-jung, is known to be the best in her field. Why did you choose such a famous actress?
Moon & Jeon We feel like this question comes up so many times. When we participate in such a large scale art event, like Venice Biennale, her fame as a Korean celebrity may not cause a major impact on the context of the work. The main reason we selected her was because it was a very demanding role so we needed an experienced actress. We held a lot of auditions and at the end we decided to go with her. We also had to find an actress that was okay accepting our terms of no payment. The reason we decided on such terms was our desire to find someone who is willing to be a sincere collaborator as an actor or actress, performing for the sake of art and not money.
Art In the story, Im stays alone at the laboratory. She experiments alone without talking to anyone. How does one character with no dialogue start a dialogue about art and society?
Moon & Jeon Realiz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self, and innovation of his or her thoughts, all start from one individual before integrating into the larger part of society. Through series of experiments, the protagonist would look into the meaning and influences of art, which is a sort of gesture we hope to encourage more people to reflect upon to upend and break the mold that modern industrialized societies has placed upon th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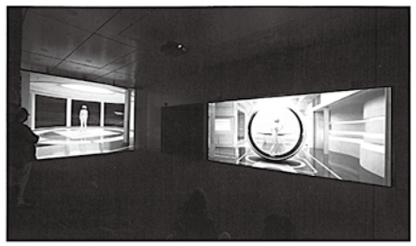


월간미술 | 2015년 6월호, 102~105 pg





백지영과 비행술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zoom in

영상과 건축,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다

올해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이 제관 20주년을 맞이한 동갑은 해다. 1995년 지정다고 공원해 한국관이 세워지는 것을 아직하신 분 이상 국가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 당시에 큰 화제를 모았기도 했다. 5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탄생 이후을 큰하이어야 분관된 전문로 두 작가도 비로 이번 참을 이식해 작품을 제작했다고 설명다. 이 큰하이어의 설명이다. "올림픽 (축제)과 비엔날은 한국관의 대해답을 그리로 제한한 세계에서 활발한 것입니다. 심험실로 변한 한국관을 이해 주인공의 하루 있과기 없이지나 장소로 설정했습니다." 두 작가는 이들 비밀으로 작업의 내용과 형식에 관크했고 그것이 큰하이어의 논리한 주된 내용이었다. "주어 내용에서는 예술이 지진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시대성이 집목 그리고 비노스하는 현장성이라 인개에 대한 것이었고, 형식에서는 존재된 시간과 시간의 파편을 디제널로 표현하의 한국관의 건축적 특징과 부합하는 설치 형식이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관 전시가 비엔날레하는 큰 역학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한국관의 건축적 특성을 '한계'가 아닌 '특수성'으로 보고 재해석하려 했다. 그래서 한국관의 유리에이 제인으로 지어스럽게 활용된 것은 아닐까? 실제 현장에서는 지어이 집계 놀이선 관계들이 백관 디스플레이를 통해 적인을 가져 한 것 같다고 김진에서 다시 한나는 경험을 하게 됐다. 지진다에 들어선 국가관 홀, 이적된 외부 벽면을 활용한 작품은 몇 군데 없었다.

〈육지없과 비행술〉은 영화 형식이지만 대사가 없다. 제기는 이 점을 공유선택(optogenetics)으로 들어 적용해 탄생했다. "시각적 언어로 해석로 하는 이술 표현 방식에 적합한 의사 표현 수단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작품 배경에 등장한 상상해할 자극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사운드가 들어된 작품은 고인종 관객 끝없도를 놓인 효과를 놓았다. 관객들은 제기가 고심하게 쓸어놓은 숨은 장치들을 슬적이며 찾아보기의 영화하는 한편다. "각 배경의 시간들이 서로 상호가 맞게 연결된다든지, 각 배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시간과 시간에서 그 사이적 장치들이 서로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관이 갖이었는 지로다느는 결기에 넘치면서도 작국을 대표한다는 경에서 오는 경장심까기 조리는 군이다. 이런 국제는 이곳을 '열림'의에 넘어서 생명을 경험시 당이다. 그러나 이 큰하이어는 오히려 〈육지없과 비행술〉이 이러한 관점 구도의 경계를 없애라. 더 큰 국경 설정에 존관이 당혹적 있다고 설명한. 그래서 이 작품은 일이에 2015년 처른다니로일을 맞을 또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경계적인 구도로 보는 것은 사실 이술 및 문화시장을 통해 국가 브랜드를 고양해하는 이러 정부 기관의 입장기이면서 이 큰하이는 "이술의 경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사기이다는 점 또한 인정되에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이술 관광기술과 전문들이 비엔날레 주세였지 국가경을 평가하는 것이는 예술적인 것이이 국가에 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냐고 하는 근에을 받았다. 국가관이 한 국가이술 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경향구는는 예에에서 '한국관이 역할을 두고 건축 국가적 공개를 유제하는 문제와 예술적 경쟁력 확보'에는 두 사안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그래 보도하는 데서 생긴 현상인 생이다. 이 작업은 프레스 오픈 때 많은 관객을 불러들이며 '흥행몰이를 이어갔다. 비록 몇 일등건과 독일관에서는 보지 못한 기대감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 큰하이어는 "한인 시민이든 갤러로도 티켓이가 비싸기만 한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는 비진이어도 신구이든 박남준 선생님이 보았다면 정말 기뻐했겠다"며 "경상적들의 진화된 단계를 보여주었다고 초평했습니다. 이무를 적기 또한 '집합만 공간에 가두어 놓듯이 하고 보여주는 데다이 적용은 실현에 이 적용은 정말 할 구성되었다고 하기에 했어요"며 현지의 평가에 코멘트를 건넸다.

전시에 참여한 세 사람의 이후 행보도 궁금했다. 먼저 이 큰하이어는 "이전 전시로 한국이술과 국제성에 대해 문제의식과 고민에서 벗습니다"며 "한에 벗어지는 한술의 도장들을 대비했이 어떤 대한들이 인물적 국제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다. 문경원 전준호 작가도 "고난 학교 실은 학업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보람되었습니다. 앞으로 8월 일 스위스 취리히 미그로스 현대이술관에서 제작 프로젝트 전시가 열리고, 특일의 2X씨의 프로스 힘에서 단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문경원 작가는 일본 YCAM에서 열리는 개인전을 준비 중이고, 전준호 작가는 그 동안 넘던 글을 정리해 책을 하나의 합니다"라고 참후 계획을 밝혔다.





공간 | 2015년 7월호, 74~81 pg





2015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기사모음

(국내 미술 전문지 및 기타 월간지)

번호	구분	날짜	매체명	페이지	기사제목
1	미술 및 건축 전문지	2015년 5월호	Art in Culture	90~99 pg	'축지법과 비행술' 예술가의 시간 여행
2		2015년 6월호	Art in Culture	112~115 pg	한국관 20년의 영웅들
3		2015년 5-6월호	Art in Asia	48~57 pg	Korean Artists as Time Travellers
4		2015년 6월호	월간미술	102~105 pg	영상과 건축, 시간과 공간을 넘나들다
5		2015년 7월호	공간	74~81 pg	한국관: 예술을 통한 영속성의 추구
6	기타 월간지	2015년 5월호	HEREN	426~429 pg	예술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7		2015년 7월호	BAZAAR	247~253 pg	Venice is the new art

3) 해외 기사 모음

미술전문지 | The Art Newspaper

2015-3-13 (아트바젤 홍콩 기간 내 배포)


DOWNLOAD OUR DAILIES

UBS

INTERNATIONAL EDITION

THE ART NEWSPAPER

U. ALLEMANDI & CO. PUBLISHING LTD. TURIN LONDON NEW YORK PARIS ATHENS MOSCOW BEIJING

ART BASEL IN HONG KONG DAILY EDITION 13-14 MARCH 2015

US AND CHINA

M+ MUSEUM

VENICE BIENNALE

More than brand names and biennial favourites

For many Western collectors, the fair provides a chance to discover young Asian artists

NEWS IN BRIEF

Met gets Swiss as modern

Hermitage plans Moscow satellite

"Whitney Biennial-type surveys fin Asia] are often just plain chaotic"

Collector to bring rain to Bali rainforest

Budi Tek's plan for "art theme park" includes underground spaces for monumental works

SCULPTURE PARK

Julian Opie

LISSON GALLERY

일간지 | Sette-Il Corriere della Sera

2015-5-1


Biennale di Venezia Anteprima dei Padiglioni

Dall'acqua emerge l'arte che vuole mutare il mondo

Dall'iceberg d'acciaio ai disegni dei rifugiati. Poi il debutto dello scheletro di una balena e uno sguardo verso il Nuovo Testamento

di Francesca Pini

미술전문지 | Frieze

2015년 6-7월호


frieze

CONTEMPORARY ART AND CULTURE

MARIA LOBODA *Hiding in Plain Sight*

VENICE BIENNALE *6 Reviews*

Design WHAT IS METAHAVEN?

Plus

KEVIN BEASLEY

HERMAN DE VRIES

LATOYA RUBY FRAZ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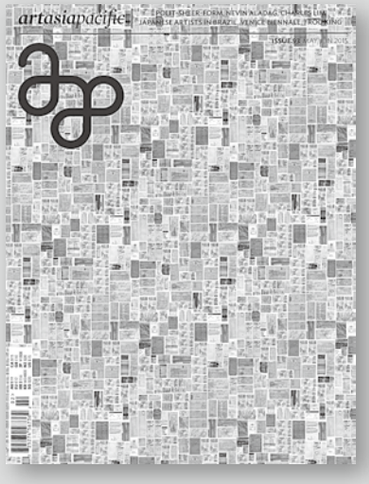
NICHOLAS MANGAN


VENICE BIENNALE

ASIA IN VENICE

미술전문지 | Art Asia Pacific

2015년 5-6월호


artasiapacific


SOOK-KYUNG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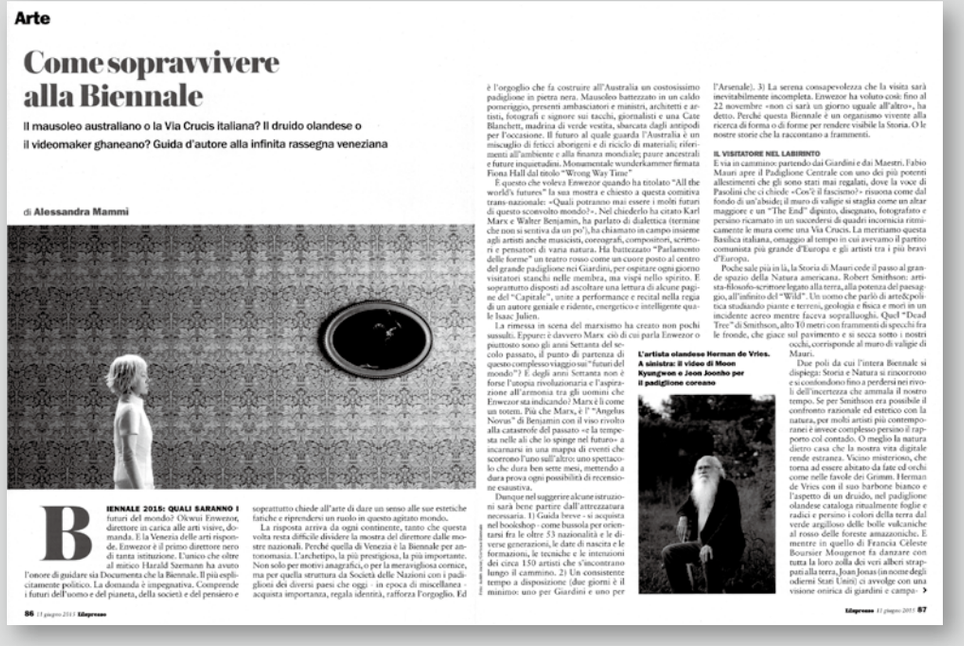
A Meeting of Minds

BY DENISE CHU


Profiles

월간지 | L'Espresso

2015-6-11


Arte

Come sopravvivere alla Biennale

Il mausoleo australiano o la Via Crucis italiana? Il druido olandese o il videomaker ghaneano? Guida d'autore alla infinita rassegna veneziana

di Alessandra Mammi

L'artista olandese Herman de Vries. A sinistra: il video di Moon Kyungwon e Jeon Joonho per il padiglione coreano

미술전문지 | Espoarte

2015-7-1



SPECIALE BIENNALE

MOON KYUNGWON & JEON JOONHO

PIEGARE LO SPAZIO

Intervista di **IGOR ZANTI**

Moon Kyungwon & Jeon Joonho sono il duo artistico che rappresenta la Corea alla 56. Biennale d'Arte di Venezia. In mostra hanno presentato *The Ways of Folding Space and Flying*, una raffinatissima installazione video multicanale dedicata al senso ed al valore sociale dell'arte. Esperarte li ha incontrati per farsi raccontare dell'esperienza alla Biennale e dei loro progetti futuri.

COME NASCE L'IDEA DI REALIZZARE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Il titolo dell'installazione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deriva dal due termini coreani *chuljiboop* e *bihaengsul*. *Chuljiboop* indica un modo per "piegare lo spazio" che consenta di percorrere una distanza sostanziale in un breve lasso di tempo. Il termine descrive varie tecniche per consentire un movimento accelerato e letteralmente rappresenta l'energia necessaria per ridurre la distanza fisica.
Bihaengsul indica, invece, il potere soprannaturale di levitare, volare e viaggiare attraverso lo spazio e il tempo. Il potere nasce dal desiderio di sfidare e superare le limitazioni fisiche dell'essere umano per raggiungere una dimensione sconosciuta. Nella storia della cultura orientale, questi concetti sono stati esplorati non solo come pratiche di meditazione, ma anche come metodi per raggiungere uno stato di totale emancipazione della mente e del corpo dalle limitazioni fisiche e dalle forze della natura.
Chuljiboop e *bihaengsul* rappresentano dalle vie per superare le limitazioni umane attraverso il potere dell'immaginazione. Questi concetti, che possono sembrare assurdi o irrazionali, sono però alla base della nostra pratica artistica in quanto manifestazioni creative del desiderio umano di superare le barriere e le strutture che ci vincolano. In questo contesto, intendiamo mostrare lo sforzo costante dell'uomo di esplorare nuovi territori e sfidare se stesso.
Nel realizzare l'installazione abbiamo applicato letteralmente questa idea del "piegare lo spazio" spostando il Padiglione Coreano a Seoul, attraverso la costruzione di una replica a grandezza naturale del Padiglione per il video. Sia la struttura sia il contesto del video sono molto vicini all'idea del *chuljiboop* in cui tempo, spazio, realtà e immaginazione sono intrecciati, piegati ed espansi.

QUAL È IL VALORE CHE DATE ALL'ARTE?

Come definire e concepire il valore dell'arte? Questa idea è stata indagata in maniera sottomessa nel Padiglione Coreano. Il laboratorio che abbiamo ricreato nel video ci permette di allontanarci dal concetto tradizionale di *art system* per guardare all'arte con un punto di vista differente e introspettivo.
Il protagonista nel laboratorio inizia a mettere in discussione la propria esistenza. Questa riflessione, partendo dall'esperienza personale, si riverbera sulla società. L'arte diviene il mezzo privilegiato per concepire questa riflessi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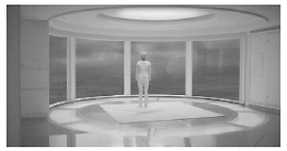
CI SONO RIFERIMENTI CINEMATOGRAFICI NEL VOSTRO VIDEO?

Nessuno in particolare.

CHE RELAZIONE C'È TRA LO SPAZIO FISICO DEL PADIGLIONE E LO SPAZIO IMMAGINARIO DEL VIDEO?

Il padiglione della Corea è stato l'ultimo padiglione realizzato ai Giardini e la sua costru-

In questa pagina:
Moon Kyungwon & Jeon Joonho,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2015, HD film installation, 12' 30"
Opera dell'artista



zione è stata condizionata da diversi vincoli che lo hanno reso uno spazio poco adatto a ospitare delle mostre. Il *filo rouge* della video installazione è strettamente connesso al nostro progetto *News from Nowhere*. Il video inizia con la promessa che la Terra abbia subito dei cambiamenti apocalittici e il padiglione coreano sia l'unica testimonianza sopravvissuta del glorioso passato dei Giardini. All'interno di questo limitato spazio, il protagonista fa delle esperienze attraverso le quali esploriamo la nostra idea della futurione dell'arte. Per realizzare il video abbiamo ricreato il padiglione, in versione futuristica, in un set in Corea, in modo da dare l'impressione al visitatore che il video sia stato girato nel padiglione originale.

CI POTETE RACCONTARE QUALCOSA SUL VOSTRO FUTURO PROGETTO A ZURIGO?

Negli ultimi sette anni ci siamo dedicati a *News from Nowhere*, un progetto che pone l'attenzione sulla funzione sociale dell'arte. *News from Nowhere* è stato esposto per la prima volta nel 2012 a Documenta a, nel 2013, all'Art Institute di Chicago. Il progetto diventerà itinerante e si arricchirà dalle esperienze e dai contributi raccolti in questa città. La prossima tappa sarà, nel mese di agosto, il Migros Museum für Gegenwartskunst di Zurigo.
La mostra di Zurigo si focalizzerà sulla progettazione di una comunità. La comunità sono tradizionalmente concepita come aggregazioni meramente urbane, noi, invece, desideriamo indagare in maniera diversa questo concetto applicandolo anche all'idea di spazio pubblico. Una parte della mostra di Zurigo prevede una collaborazione con lo Urban

In questa pagina:
Moon Kyungwon & Jeon Joonho,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2015, HD film installation, 12' 30"
Opera dell'artista





Think Thank, un gruppo di ricerca interdisciplinare affiliato all'ETH di Zurigo per costruire un'agorà mobile che raccolga diversi punti di vista e idee. La mostra è concepita come uno spazio aperto e flessibile dove ospitare seminari e workshop sul tema.

Moon Kyungwon è nata a Seul, Repubblica di Corea, nel 1969. Vive e lavora a Seul. **Jeon Joonho** è nato a Busan, Repubblica di Corea, nel 1969. Vive e lavora a Busan.
http://newsfromnowhere.kr

Eventi in corso:
Moon Kyungwon & Jeon Joonho.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Commissario e Curatore: Sook-Kyung Lee
56. Esposizione Internazionale d'Arte La Biennale di Venezia
Padiglione Corea
Giardini di Castello, Venezia
9 maggio - 22 novembre 2015
www.koreanpavilion2015.com

Moon Kyungwon & Jeon Joonho. *News from Nowhere: Zurich Laboratory*
a cura di Hakiu Munzar
Migros Musuum für Gegenwartskunst
Limmatstrasse 270, Zurigo (Svizzera)
29 agosto - 8 novembre 2015
www.migrosmuseum.ch



Ritratto di
Moon Kyungwon & Jeon Joonho

온라인 | ArtReview

2015-4-22



ArtReview

The Venice Questionnaire 2015 #14: Moon Kyungwon & Jeon Joonho

Representing Korea at the 2015 Venice Biennale, Moon Kyungwon & Jeon Joonho answered our short questionnaire

온라인 | The New York Times

2015-5-6



The New York Times — Art & Design

A Look Inside the 2015 Venice Biennale

온라인 | Wallpaper

2015-5-14



Wallpaper*

Pavilion party: the 20 best artistic offerings from the Venice Biennale 2015

온라인 | Kunstforum

2015-6-26



KUNSTFORUM. Band 233

Korea
MOON Kyungwon & JEON Joonho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Kommissar: Sook-Kyung Lee.
Kurator: Sook-Kyung Lee.
Ort: Pavillon in den Giardini

2015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기사모음

(해외 일간지, 미술 전문지, 온라인 외)

번호	날짜	매체명	구분	언어	기사제목
1	2015-03-13	The Art Newspaper	지면	영어	Venice Biennale: Our guide to the artists picked to transform Asian Pavilions
2	2015-04-01	ArtMediaAgency	온라인	영어	The Korean Pavilion at the Venice Biennale
3	2015-04-01	Anti-Utopias	온라인	영어	The Ways of Folding Space and Flying. A project by Moon Kyungwon & Jeon Joonho
4	2015-04-22	ArtReview	온라인	영어	The Venice Questionnaire 2015 #14: Moon Kyungwon & Jeon Joonho
5	2015년 여름호	ArtReview Asia	지면/온라인	영어	ArtReview Asia previews ten Venice National Pavilions
6	2015년 5-6월호	Art Asia Pacific	지면	영어	A Meeting of Minds (Interview with Sook-Kyung Lee)
7	2015-05-01	Artribune	온라인	이탈리아어	Biennale di Venezia. Il padiglione della Corea raccontato da Sook-Kyung Lee
8	2015-05-01	Sette – Il Corriere della Sera	지면	이탈리아어	Dall' acqua emerge l'arte che vuole mutare il mondo
9	2015-05-04	Artsy	온라인	영어	Republic of Korea Pavilion at the 56th Venice Biennale
10	2015-05-04	Artnet News	온라인	영어	Get a sneak peek inside the 56th Venice Biennale on Instagram
11	2015-05-05	Artribune	온라인	이탈리아어	Venezia Updates: immagini e video dai padiglioni "megas" ai Giardini. Dalla Gran Bretagna alla Germania, Francia, Corea, Giappone, USA
12	2015-05-05	Contessanally	온라인	영어	Venice: La Biennale – Pick of the Day – May 5
13	2015-05-05	Artforum	온라인	영어	instagram post
14	2015-05-05	Art Asia Pacific	온라인	영어	instagram post
15	2015-05-06	Exibart	온라인	이탈리아어	Venezia, primo giro ai giardini: pollice verso per Francia e Slovacchia, mentre sono grandi gli scandinavi, e anche Sarah Lucas
16	2015-05-06	The New York Times	온라인	영어	A look inside the 2015 Venice Biennale
17	2015-05-06	Blouinart	온라인	영어	Slideshow: Korean Pavilion at Venice Biennale 2015
18	2015-05-06	La Nuova Venezia	지면	이탈리아어	Eros e colore, la bellezza esplode nei Padiglioni
19	2015-05-07	The Huffington Post UK	온라인	영어	Bad Gurls
20	2015-05-07	ARTnews	온라인	영어	In deep water: the Pavilions of Hong Kong, Singapore, Indonesia and Tuvalu in Venice
21	2015-05-07	Digitalarti	온라인	영어	Folding space at Biennale of Venice
22	2015-05-07	Il Piccolo	지면	이탈리아어	La Biennale di Enwezor concentra a Venezia tutti i futuri del mondo
23	2015-05-07	Il Giornale	지면	이탈리아어	Gli stranieri
24	2015-05-08	ArtRadar	온라인	영어	10 pavilions to see at the 56th Venice Biennale
25	2015-05-08	Getty Images	온라인	영어	The Korean Pavillion in the Giardini, Venice Biennale. May 2015.(Photo by Romano Cagnoni/ Getty Images)
26	2015-05-08	Artlyst	온라인	영어	Art Review: Korean Pavilion: Moon Kyungwon & Jeon Joonho – Venice Biennale 2015
27	2015-05-08	La Gazzetta di Parma	지면	이탈리아어	Arte. Il mondo riflesso in laguna
28	2015-05-09	Askanews	온라인	이탈리아어	Alla scoperta della Biennale d'Arte: la scena orientale. La bellezza e il mistero: Giappone e Corea
29	2015-05-09	Liberation – Weekend	지면	불어	Aux Giardini, l'effect pavillons
30	2015-05-10	Rai Radio 3	온라인	이탈리아어	A3 Il Formato dell'Arte: Speciale Biennale di Venezia

31	2015-05-10	Domenica – Il Sole 24 Ore	지면	이탈리아어	Creativi dal mondo
32	2015-05-11	Class TV	온라인	이탈리아어	Venice Biennale 2015. Tuffo nell' arte in Laguna
33	2015-05-11	Dove Viaggi – Il Corriere della Sera	온라인	이탈리아어	Biennale d'Arte di Venezia: i 10 Padiglioni migliori
34	2015-05-11	DXD 2015	온라인	영어	Venice Biennale 2015: The Ways of Folding Space and Flying at the Korean Pavilion
35	2015-05-11	Bestdesignevents.com	온라인	영어	Korean Pavilion at Venice Art Biennale 2015
36	2015-05-11	DesignBoom	온라인	영어	Korean Pavilion at Venice Art Biennale 2015 by Moon Kyungwon & Jeon Joonho
37	2015-05-12	Aidanews	온라인	이탈리아어	La ricerca archeologica della civiltà umana di Moon Kyungwon & Jeon Joonho
38	2015-05-12	Art-Sheep	온라인	영어	Venice Biennale 2015: the futuristic Korean Pavilion
39	2015-05-12	Waave + Dada	온라인	영어	"The Ways of Folding Space and Flying", Venice
40	2015-05-13	Vanity Fair Italia	지면	이탈리아어	Puntate qui le lancette
41	2015-05-14	Wallpaper	온라인	영어	Pavilion party: the best 20 artistic offerings from the Venice Biennale 2015
42	2015-05-14	CubeBreaker	온라인	영어	Korean Pavilion at Venice Art Biennale explores the role of art in the modern world
43	2015-05-16	South China Morning Post	온라인	영어	China and rest of Asia make strong showing at Venice Biennale
44	2015-05-26	Complex	온라인	영어	The 2015 Venice Biennale shows us Shows Us "All The World's Futures"
45	2015년 6-7월호	Frieze	지면/온라인	영어	56th Venice Biennale – Asia in Venice
46	2015-06-01	Elle Decor	지면	이탈리아어	Venezia, top ten dell'arte
47	2015-06-01	Cinemazero	지면	이탈리아어	Cine-artisti alla Biennale Enwezor
48	2015-06-01	Art Actuelle	지면	불어	Biennale de Venise 2015. Hissez haut les Pavillons!
49	2015-06-07	Il Messaggero	지면	이탈리아어	Arte. A gonfie vele la Biennale che racconta caos e futuro
50	2015-06-11	L'Espresso	지면	이탈리아어	Come sopravvivere alla Biennale
51	2015-06-20	Beaux Arts Magazine	지면	불어	Le Pavillion Coreén. Surpasser la physique
52	2015-06-26	Kunstforum	온라인	독어	Moon Kyungwon & Jeon Joonho
53	2015-07-01	art Magazin	지면	독어	Korea: Im virtuellen Hamsterrad
54	2015-07-01	Espoarte	지면	이탈리아어	Moon Kyungwon & Jeon Joonho. Piegare lo spazio
55	2015-07-27	Sky Arte HD	TV방송/온라인	이탈리아어	Tutti i Paesi del mondo, a Venezia per la Biennale
56	2015-08-18	The Wall Street Journal	온라인	영어	'All the World's Futures,' 56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La Biennale di Venezia Review
57	2015-08-28	Il Gazzettino di Venezia	지면	이탈리아어	Il viaggio e la pace utopie lontane
58	2015-09-01	MCD Musiques Et Cultures Digitales	지면	불어	56e Biennale de Venise: tous les futurs des mondes
59	2015-09-01	Connaisances Des Arts	지면	불어	Formes Et Couleurs Coréennes
60	2015-09-01	Lapiz	지면	스페인어	56a Biennale di Venezia
61	2015-10-01	L'Espresso	지면	이탈리아어	Dalla Corea il tecnico androgino
62	2015-10-08	Karmanews	온라인	이탈리아어	Kyungwon & Joonho: il colore evanescente
63	2015-10-16	this is tomorrow	온라인	영어	Venice Biennale 2015 – Moon Kyungwon & Jeon Joonho: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
64	2015-11-23	Diario de Teruel	지면	스페인어	Venecia es una metáfora en sí misma de la decandente sociedad occidental

SYMPOSIUM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 전시 성과 보고 심포지엄

일시 | 2015년 12월 15일(수) 오후 2시~5시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
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프로그램 및 강연자 소개

임기현(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부)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 한국관의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2015년 한국관 전시는 2014년 초 커미셔너를 선정한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5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었습니다. 문경원, 전준호 작가 두 분은 이번 전시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작업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 전시의 마무리를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들과 생각해야 할 지점들을 남겨서 앞으로도 더 많은 담론들이 오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한국관 커미셔너이자 현 테이트 모던 큐레이터이신 이숙경 큐레이터를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숙경 안녕하십니까. 한국관 보고 사업 중에 하나인 심포지엄에 이렇게 직접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관 커미셔너이자 큐레이터를 맡았었으며 오늘 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한국관 전시를 직접 오셔서 관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셨던 분들께도 어떤 하나의 공유의 장을 마련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이미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자리매김을 한 국제적으로 유서 깊은 미술 행사이고 또 한국관도 20년 동안 독립적인 장소를 가지고 참여를 해왔는데요.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고 또 2015년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던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세계에 대해서도 들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 작가들이 이제까지 함께 작업해 온 주제들이 우리 시대와 사회와 맺는 관계 또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의 첫 순서로는 2012년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미지에서 온 소식(News from Nowhere)〉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주셨고 또 다른 관점에서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미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해주고 계시는 문학평론가이자 정치철학자인 조정환 선생님께서 강연을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조정환 선생님께서는 『예술인간의 탄생』이라는 저서를 최근에 집필하셨고 이 부분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전시를 통해 보여드린 작업과 상당히 흥미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이번 심포지엄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기획자의 입장에서 베니스비엔날레 전체의 맥락 안에서 한국관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었는지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고, 세 번째로는 문경원, 전준호 작가님께서 올해 한국관 전시 참여 작가로서 작업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는지를 말씀해주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의 운영부장이신 기혜경 선생님의 모더레이팅과 함께 전체 강연자들이 함께 토론을 하고 또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정환 선생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술인간의 탄생 (발제자 | 조정환)

반갑습니다. 조정환이라고 합니다. 문경원, 전준호 작가와는 수년 전부터 함께 만나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관 전시 성과 보고 심포지엄에까지 초청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있으니 간략한 방식으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시대의 상황과 예술의 위치, 예술이 현재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떤 경험을 겪어나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쓴 『예술인간의 탄생』에서 다뤘던 내용으로, 예술가의 범주란 18세기경에 생겨나서 2-3세기 정도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개념인데 이것이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예술가의 영역을 넘어서 바로 우리들의 사회적 노동 세계가 예술가들의 세계를 벤치마킹하고 생산 영역에 복제함으로써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를 닮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예술가가 지금까지 요구받았던 능력과 자질을 노동 현장에서 요구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예술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와 예술이 담당하는 주체성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다룬 책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아르코미술관이기도 하고 예술가분들도 많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하여, 예술가를 중심에 놓고 아방가르드의 전통과 예술인간의 관계가 어떠할지에 관한 주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을 제가 아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간 겪고 감상하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두 분의 작품 세계와 예술인간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20세기 초는 자본주의의 긴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전환의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자본주의가 자기 스스로를 대중 속에 주입하고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개념 중의 하나가 '앞으로는 잘 될 것이다.

성장하면 함께 잘 살 수 있고, 파이가 커지면 고루 나누어 먹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미래에 대한 선전을 엄청나게 해 왔는데,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그럴지도 몰라. 지금 내 삶도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야.'라고 믿게 했던 것들이 지난 2008년을 전후로 설득력을 잃고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들이 무너져 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그 붕괴를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비전도 아직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 이후에도 신자유주의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하자면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달리던 말의 목을 쳐도 상당히 오랫동안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신자유주의의 기본적인 포맷은 이미 허물어졌고 사실상 지금까지의 관성과 가속도가 유지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과 폭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현재의 불만을 다스려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이라크 전쟁을 포함하여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전운과 난민 행렬에 이르기까지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 곳에서 지고 있으며, 중국이라고 하는 세계의 공장마저도 지금은 비전을 일정하게 잃어가며 기울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이상 낙관적인 비전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래가 더 나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초 미래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것입니다. 발전을 통해서 인류가 새로운 수준과 단계로 나아갈 것이라는 희망들이 미래주의자들에 의해서 제시되어 왔었는데, 비록 자본주의의 성장과는 다른 패턴과 길로 이야기가 되어왔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20세기 초의 미래주의적 이상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둡게 되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Franco Berardi Bifo)는 『미래 이후』라는 책에서 미래주의적 비전의 완전한 종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설득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예술의 상황을 보게 되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80 : 20에서, 90 : 10으로, 이제는 99 : 1로의 극단적인 사회적인 양극화를 가져왔으며, 예술세계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술세계 내에서의 양극화도 심화되어 극소수의 예술가들을 제외한 많은 예술가들이 극빈 속에서 굶주리거나 자살을 선택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양극화되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과 사회적인 억압, 정치적인 전망 상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그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제기되는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편을 필연적으로 강조하는 징후이고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세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양극적 현실과 예술가 대부분이 느끼고 있는 '비참함과 전망 상실'은 예술가의 세계가 달라져야만 한다고 하는 요구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 전반과 예술세계가 달라져야 함은 인지가 되었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20세기로 예를 들자면, 예술계 내에서 예술계의 변화를 촉구하고 스스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아방가르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방가르드란 속도적인 면에서 앞서간다는 의미겠죠. 예술계라고 하는 닫힌 세계를 전복시키거나 열어젖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아방가르드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고, 일례로 미래주의도 19세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적 현실로부터 바라보면 무언가 달라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특히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대서 변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우리들이 지금의 난관을 타개한다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다다이스트의 경우에는 기존 질서의 무자비한 파괴를 통해서 기존의 예술적 세계의 변화를 추구했으며, 초현실주의의 경우 예술이 머물러 있는 현실세계의 영역을 넘어 무의식이나 감성적 세계 등 그 이전에 예술이 깊이 다루지 않았던 미지의 영역을 예술세계 속으로 끌어오려는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상황주의자들은 우리의 삶을 예술 속으로 가져와서, 예술이 삶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술을 매개로 새로운 상황을 끊임없이 창출해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추구했던 바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와 영역을 개척해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플럭서스의 경우 지금의 질서나 체계가 삶을 편집증적으로 고정시키는 경향을 타파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흐르게 하려고 노력했기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액체화 시키고 유동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근대성이 우리를 묶고 있는 단단한 각질을 벗어



던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고 이것이 음악에서는 잡음 같은 것을 음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작업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방가르드 움직임이 기존 미술세계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매우 진지한 노력들을 기울였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낳았으나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술계 내부에서의 고뇌, 예술계가 제기한 문제에서 출발하여 풀려고 하는 것에 갇혀있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0세기 말과 21세기는 아방가르드가 추구했던 예술과 삶의 결합이라고 하는 문제를 예술 영역 밖에서부터 풀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노동 현장, 삶의 현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예술성을 갖지 않으면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는 자본에 의해 강요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창의성을 테스트하고 이를 성적으로 표기하고, 공장에서도 예전에는 조용히 일하는 환경을 지향했다면 지금의 포스트-포드주의 공장의 경우 '자유롭게 떠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아라. 실행에서 그치지 말고 구상과 실행을 결합시켜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육체노동에서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기획하는 구상자, 창조자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지금 정부도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모든 사람에게 '창조성'을 의무적인 덕목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창조성은 명령을 교란시키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소로 간주되었는데 지금은 전 사회적으로 누구나 지녀야 할 덕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은 예술가 집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술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변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 전 세계적인 지평 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압박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예술가적인 모습들을 현실 속에서 알던 모르던 실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몸 자체, 음성, 도시, 생태를 디자인하는 등 창조성이 발휘되어야 할 영역이 실로 광범위하고 심지어 감정노동처럼 마음까지 디자인하도록 요구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인 거죠. 창의성, 사고력, 표현능력, 솜씨 같은 것이 노동이라는 강요된 활동 속에 편입된다는 것은 불행을 야기합니다. 하지만 강요의 측면만 벗겨낸다면 이것은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 속에서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드러내는 능력들이 인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자 구체적인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주제로 문경원, 전준호 작가가 작업에서 보여준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제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것은 미래에 대한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저편(El Fin del Mundo)〉에서도 세상의 종말을 대전제로 삼고 그 이후를 그리고 있는데, 이 종말적 사유를 예술 활동의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비포가 언급했던 미래주의 이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 지어볼 수 있겠는데, 미래성에 대한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유토피아의 반대말이 아니라, 유토피아적인 것이 부정적인 형태로 실현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어떤 것들이 억눌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작가의 작업에서는 부정적으로 실현된 유토피아로부터 벗어나고자 사유하고, 실현된 미래의 디스토피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들이 예술을 통해 사유되고 모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술계에서 추구되어 왔던 그런 전통적인 방법만이 아니고 광범위한 과학기술적인 실험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예를 들어, 물이 없는 종말에 이른 세계에서 사용될 물 공급 장치를 연구하기 위해 사막의 뱀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예술과 연결되는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미군도 이라크 전쟁에서 보다 효율적인 전투력을 발휘하는 로봇 제작을 위해 뱀과 바퀴벌레 등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을 응용하는 방식으로 동물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죠. 저는 문경원, 전준호 작가 두 분이 자연과 기계, 과학이라는 사유와 예술가가 혼연일체되는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엑소더스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 속의 주인공은 항상 폐쇄된 환경에 있는데 결말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발견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지면서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죠. 이것은 디스토피아적인 현실로부터 어떻게 적극적으로 탈출할 것인지를 사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관 전시 제목이었던 '축지법과 비행술'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축지법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도한 과학적 발견들로 인해서 인간과 세계가 빠르게 소통하고 동일한 것만 반복되는 좋아진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보았었습니다. '축지법과 비행술'인지 '축지법 대 비행술'인지는 해석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비행술의 경우, 엑소더스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질 들뢰즈와 펠릭스 가타리가 평생 추구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도주선은 'line of flight'라는 뜻이고 'flight'에는 물론 '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표면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개념은 표면에서 활공을 하는 것이지 상공으로 날아간다는 표상은 없다고 했었죠.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업에서 'flight'는 표면에서 일지라도 주어진 닫힌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경계를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두 작가는 각각 예술가로서 조각이나 회화를 다루었지만 공동작업으로 영상에 출발점을 두면서 기존의 활동경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인, 과학자, 정치철학자, 문학평론가, 영화감독 등과 만나가면서 새로운 영역들과의 만남을 추구해왔는데 이를 협력 작업(콜라보레이션)이라 표현하고 있더군요. 이러한 협력 작업을 통해 '예술세계 속에 갇혀있던 예술이 무엇이고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광범위한 사회 속에 개방하는 것이 콜라보레이션 작업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탐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처한 이미 실현된 미래로부터의 탈주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경계를 넘어서야 하고, 다양한 사람들, 기계, 동물과 같은 자연계와의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서 인간과 예술이 무엇일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자하는 노력이 작품을 통해 표현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예술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들 중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매개와 교류의 플랫폼 (발제자 | 이숙경)

저는 구체적으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특히 기획의 과정과 작가 선택의 배경 그리고 제가 나름 추구했던 베니스비엔날레 안에서의 한국관의 위치를 중점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획은 전시 속에서 잘 드러나기도 하지만 또 숨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 자리를 통해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토론의 장에서 좋은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올해 56회를 맞이했습니다. 조정환 선생님께서 좋은 기조를 마련해주셨듯이 베니스비엔날레는 예술이 예술에 대해 얘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세계와 사회가 변화하고 예술에 의해 요구되는 목적도 변화하면서 베니스비엔날레도 전환의 시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5년은 나이지리아 출신 오쿠이 엔위저가 총감독을 맡게 되면서 백인 남성 중심의 예술적 관점에 큰 도전을 제기하였다고 봅니다. 예술 감독이 다룬 주제인 〈모든 세계의 미래들(All the World's Futures)〉도 상당히 흥미로운 것으로, 제목에서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으로서의 미래를 내포하고자 미래를 복수적인 개념으로 제기했고 또 이것과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바라보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계라는 것을 예술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예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을 지칭하는 개념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지요. 엔위저는 정치학을 전공한 이후 비평가로 활동을 하다 큐레이터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개념들과 변화에 대해서 감수성 있는 방식으로 해석한 전시를 많이 보여주었었죠.

제가 작년 초 커미셔너로 선정되었을 때는 이미 총감독이 선정된 이후였으며, 국가관 전시 자체도 여러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겠지만 전체 비엔날레의 예술적 취지와 대화될 수 있는 프로젝트로 한국관이 꾸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동조이건 반대이건 전체 주제에 반응하는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술 감독은 'International Exhibition'이라고 불리는 국제전을 담당하게 되고, 이것이 자르디니의 센트럴 파빌리온과 아르세날레라는 두 개의 큰 장소에서 전시됩니다. 나머지 국가관 전시는 올해만 89개국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국가관은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시기에 설립된 베니스비엔날레의 유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슬로바니아처럼 지금은 없어진 나라의 국가관도 있고 노르딕관처럼 여러 국가가 함께 전시관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관의 경우에는 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하고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후발국가 중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국가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국가관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직접 국가관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도 문체부 산하 기관인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여튼 국가관 체제는 굉장히 흥미로운 형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베니스비엔날레가 미술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오늘날 국가적 경계를 의식하며 작업하는 작가는 드문데, 베니스비엔날레는 여전히 이런 틀을 고수하고 있으니 작가들이 진행하는 개별 작업과 충돌되는 지점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예술감독은 국가관이 어떠한 전시를 하던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대체적으로 강합니다. 또 국가관마다 커미셔너나 큐레이터에 따라서 매해 대응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의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의 국제전은 강력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전시였습니다. 정치적인 예술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겠는데, 21세기 초인 현재 정치적인 미술이 어떤 형식을 갖게 되는가, 어떤 문제들을 다루는가를 봤을 때 시사적인 작업들이 많이 등장

한 전시였습니다. 냉소적으로 전시를 보는 사람들의 경우 'CNN 뉴스를 보는 것인지, 전시를 관람하고 있는 것 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반응도 보였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시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었고, 특히나 이슬람과의 전쟁이 주로 다루어졌으며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대중매체를 통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다루는 작가들도 많았고요. 난민 문제라든지 개별적, 인간적 차원에서 정치적인 문제의 영향을 다루는 작업도 많았어요. 그리고 20세기 미술에서 가장 간과되었다고 보여지는 아프리카 출신의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점도 주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방가르드의 마지막 주자라고 볼 수 있는 60~70년대의 개념적인 미술을 대표하는 로버트 스미슨(Robert Smithson), 한스 하케(Hans Haacke) 등의 회고적인 작업을 다시 보여주는 전시장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방식으로 예술감독이 제안한 공간은 건축가 데이비드 아제(David Adjaye)가 아레나라는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 안에서 전시기간 내내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아레나에서 이루어진 퍼포먼스 중의 하나로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계속해서 낭독하는 〈Das Kapital Oratorio〉가 있었죠. 이에 대해 '자본론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는가' 등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르세날레는 조선소이자 병기창고로 쓰이기도 했던 곳입니다. 건물 전체를 아우르는 설치작업부터 석유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어요. 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으로 영상작업이 많았는데, 이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영상작업이 사회적인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점과 time-based media로서 내러티브 구조를 갖기 좋다는 점을 꼽을 수 있죠.

또한 'Collateral Events'라고 불리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병행전시도 약 40여 개가 있었는데 그 외에 개인적으로 개최되는 전시들까지 합친다면 베니스비엔날레는 시각적인 메시지가 차고 넘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한국이 베니스비엔날레에 참여했던 역사를 짚어본다면, 86년에 처음 한국작가들이 참여하셨고 베니스비엔날레가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백남준 작가가 1993년 독일관 전시에 참여해서 한스 하케와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사건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로 뻗어 나가는 교류가 중시되었던 시기인데, 한국 출신의 작가가 세계적인 플랫폼에서 주목받는 것을 고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95년도에 한국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자르디니 공원 안에 들어간 마지막 국가관으로 이전에 화장실로 쓰이던 공간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자르디니 공원에서 시정부의 어려운 허가를 받아 많은 노력 끝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국가관의 설립을 놓고 봤을 때 당시 위상이 높아지고 있던 중국이 유력했다고는 하나, 분단국가로서 정치적인 설득력이 있는 제안이 있었기에 획득하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이 어떠하였든 결과적으로 한국관의 건립은 한국미술을 얘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이 생겼음을 의미하고 매우 고무적인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베니스비엔날레는 영화제처럼 시상제도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올해의 국가관 황금사자상은 아르메니아관에게 돌아갔습니다. 아르메니아관은 리도(Lido)로 가는 길에 있는 아르메니아 수도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몇 백 년 전 아르메니아의 수도사들이 베니스에 와서 성서를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하던 수도원이었습니다. 또한 올해는 터키인들에 의한 아르메니아인의 대학살을 기리는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요소들이 수상에 도움이 되기는 했다고 봅니다만, 전시 자체도 수도원의 인쇄기와 같은 유물을 그대로 살려두고 이것들이 현대미술 작업들이 함께 어우러진 설치로 풀어내어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분산되어서 시리아, 이란, 이라크, 유럽, 미국 등 다양한 지역으로 이민을 갔었는데 그들의 자손들이 '아르메니아



성'이란 무엇인가를 두고 작업한 결과물이 전시로 나왔어요. 부모 세대의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전쟁과 이민의 역사 그리고 인종학살의 문제를 다룬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봤던 전시 중의 하나는 독일관이었습니다. 히토 스테얼(Hito Steyerl) 같은 작가의 경우에는 아주 극도로 발전한 미디어의 문제, 매체를 통한 광고의 문제, 게임 같은 매체 중심의 시각 경험을 해석하는 작업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관의 경우에는 공간의 안팎에 설치된 나무에 센서를 부착해서 이동하는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이나 기계 등 전 인류가 공통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이슈가 많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미국관은 뒤늦게 인지도가 조성된 70대의 조안 조나스(Joan Jonas)가 단독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퍼포먼스가 예술영역 안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70년대부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작가로서 재조명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국가관들을 잠시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처럼 비엔날레에 다양한 목소리와 방식의 전시들이 등장을 했고 여러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시의 우열을 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색깔을 갖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굳이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시점은 현재 혹은 미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등의 고민들이 있었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문경원, 전준호 작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아까 조정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분이 이제까지 작업했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국 하나의 회고가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 미래라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고 향후를 예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았습니다. 미래를 결정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르들 중에서 특히 예술이라는 것이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두 분의 공동작업 중에서 특히 2012년 카셀 도쿠멘타에서 선보여졌던 〈미지에서 온 소식(News from Nowhere)〉이 다루었던 예술 밖의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두 작가분들과 베니스라는 맥락

속에서 새로운 작업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관 건물을 실제로 접하면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20여년 전에 이 건물이 들어섰을 때 많은 건축적 제약이 있었고, 2013년 김수자 작가님께서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많이 진행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때에도 사실 한국관이 벌거벗은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나서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관이 나중에 들어선 건물이 다 보니 나무를 피해서 건물이 세워졌고, 사진 왼쪽에 보이는 벽돌 건물이 철거가 불가능한 화장실로 사용되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치 임시 구조물과도 같이 철재와 유리를 이용해서 김석철 건축가님이 설계를 하셨죠. 예술작품의 원형을 가장 잘 보여주려면 화이트 큐브나 블랙박스의 공간이 적격인데 한국관은 이 전형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간 참여한 작가분들이나 커미셔너분들이 이것 자체를 미술 전시에 적합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고, 건물 자체의 특성이 너무 강해서 작가들이 힘들어하는 공간 중에 하나였죠. 사실은 건축적으로 특이한 국가관은 한국관뿐만이 아닙니다. 1895년에 제국주의가 만연하던 시절(독일의 제3공화국 시절)에 베니스비엔날레가 창설되었기 때문에 독일관은 매우 나치적인 야심이 드러나는 건축물로 설립되었었습니다. 일본관도 중정에 원형 구멍이 있고 영국관도 티하우스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둘러보면서 보기에는 좋은 전시장을 갖고 있어요. 결국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받아들이고 작가분들과 의논을 거듭하던 중 영상을 한국관 외부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핵심으로 작용했었습니다. 영상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작가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해주실 것이고요.

건물 자체가 주요한 작업의 동기이자 조건으로 작용을 했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남양주 영화 세트장에 한국관과 똑같은 스케일의 건물을 만들었어요. 공간 내부는 하나의 실험실로 재탄생 되었습니다. 일종의 평행선상의 다른 우주라고나 할까요? 이후 많은 컴퓨터그래픽 작업이 덧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설치될 때의 모습을 보시면, 최대한 건축 본래의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여주되 많은 양의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록이라던지 인쇄물을 통해 전시의 개념을 어떻게 잘 보여줄까를 고민하다가 70년대 공상과학 만화, 미래주의적인 삽화들을 생각했고요. 저희 관람객이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세대라 생각했기에 이런 식의 전시 메인 이미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전시 홍보 가방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작품 속에서 매우 암시적이기는 하지만 미래적인 상황이 제시되면서 환경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복을 만들고 남아 폐기되는 원단을 제일모직으로부터 협찬받고 정구호 패션디자이너가 그 모직의 조각을 덧대어서 디자인한 친환경 가방을 만들게 되었어요. 도록에는 여러 사람들과의 인터뷰와 에세이가 들어갔습니다.

전시 오프닝 기간에 치러지는 개막식도 행사성이 강해서 비엔날레가 전하는 메시지와는 충돌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아주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비엔날레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부호 컬렉터들이 오프닝 기간에 와서 관람을 하니 여러 가지 모순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보다 광범위한 전시 홍보를 위해서 토크 프로그램이나 기자간담회를 전시 준비 기간에도 지속했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후원이 필요했기에 국내의 기업들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7개월간의 긴 전시기간과 철수 작업이 끝난 후 현재의 한국관을 담은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다시 건축 전시의 해로 돌아가서 한국관이 건축전을 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후에 있을 토론의 시간도 있지만, 전시의 맥락이 어떤 방식에서 시도되었는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공유하는 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부] 축지법과 비행술 (발제자 | 문경원, 전준호)

전준호 앞에서 조정환 선생님과 이숙경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우리가 이 작업을 왜 했고, 이 작업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지법과 비행술'을 떠올리면 합정역에서 보이는 동명의 학원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저희가 궁금해서 이 학원을 가봤는데, 3개월짜리 단기속성부터 1년짜리 장기속성반까지 다양하더군요. 어렵사리 절판된 교본을 구했는데 축지법을 할 수 있는 걸음걸이 방식과 날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적혀있었어요. 실제로 배우는 사람도 꽤 있다고 합니다. 학원을 방문했을 때는 아무도 없긴 했었지만요. 2층에는 이주노동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 있고 여튼 건물 자체가 아주 초현실적인 분위기였어요.

왜 '축지법과 비행술'을 저희 작품과 전시 제목으로 정했느냐? 이것이 저희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단어는 인간이 절대로 행할 수 없고 실현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이 갈망하고 실천을 해오던 방식이에요. 이것이 '예술적 언어와 굉장히 닮아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정했는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안 되더군요. 이숙경 선생님과 저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개념을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고민했더니, 일단 축지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사회에서는 없어요. 서구에서는 웜홀 트랜스포테이션(wormhole transportation)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타트렉(Star Trek)〉에 나오는 '빔미업, 스카티(Beam me up, Scotty)' 등 분자가 재조합 되는 차원의 이동은 있지만 축지법은 물리적인 거리를 단순히 빨리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한자의 뜻을 풀면 땅을 접어서 이어 붙인다는 말이죠. 굉장히 관념적이고 의식의 흐름의 통로를 상징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온 단어였습니다만 영어로 풀기에는 어려운 번역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협의를 이룬 번역본이 'The Ways of Folding Space & Flying'이었습니다. 축지법을 살펴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증거들이 보여요. 화면을 보시면 해인사 대웅전에 있는 팔상도 옆에 있는 그림인데 한 도사가 바위를 타고 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오랜 수행을 거치고 나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실제로 벌어질 수 없는 것을 행할 수 있기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하라는 암시적인 메시지가 새겨진 것들이죠.

문경원 조정환 선생님께서도 '축지법과 비행술'이냐 아니면 '축지법 대 비행술'이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접근했던 개념은 인간이 가진 유한함이나 욕망, 이런 한계의 지점을 끊임없이 극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들이나 모습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예술에서 추구되는 태도들과 닮아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고요. 특히 비행술의 경우, 아까 조정환 선생님께서 철학적 개념으로서 도주선도 언급하셨는데, 유한함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무수히 실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고자 했던 부분은 그런 물리적인 장치들을 넘어서서 인간 스스로 한계의 상황을 극복하여 날고자 하는, 그러나 평면적이기보다는 좀 더 상상력에 근거한 인식의 측면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제목이 암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은유나 상징은 예술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예술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또 다른 인식의 차원을 열어준다는 점에 있어서 유사한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축지법의 경우에는 이를 접근하는 서구와 동양의 사고가 매우 달랐습니다. 처음에 접근했을 때 저희는 좀 더 동양적인 사고의 틀에서 알고 있는 물리적인 수행에 집중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는 현대 사회에서의 소통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 축지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축지법과 비행술,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라는 역사적인 특징과 한국관의 건축적 특성을 다 어우르면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고 그 내용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축지라는 것 자체가 상징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접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의 네트워킹이나 공간, 차원 이동 등 축지의 여러 가지 예시들이 이미 저희 삶 속에 녹아들어 있는데요. 이런 개념을 토대로 마치 땅을 접어서 베니스의 한국관을 저희가 작품을 촬영한 세트장으로 그대로 이동해서 촬영을 하고 다시 베니스의 한국관에서 그 영상을 펼쳐서 보여주자는 생각을 갖고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글라스 파빌리온 형태로 설계된 한국관의 역사적 배경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자르디니 공원 내에 마지막으로 남은 부지이자 가장 고도가 높은 위치에 있는 지역에 한국관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흐르는 운하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건축적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합니다. 베니스비엔날레 안에서 '축지법과 비행술'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풀어내고 싶었고, 이것이 공간적인 이동을 재현해서 베니스 현장에서 다시 펼치는 형식의 작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전준호 작품 만들기 전에 영화를 제작하듯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는데 그 이전에 많은 분들 찾아뵙곤 합니다. 이번 작업을 위해 저희가 찾아뵀던 분들 중에는 뇌과학자, 언어학자이자 신화학자 등이 계셨고, 이분들을 만나서 저희의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이것을 펼치는데에 어떤 방식들이 있는지 그분들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조언을 듣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에 한 인물이 마치 관처럼 된 공간에 누워있습니다. 우선 다양한 복선이 있습니다만, 시각적으로 이 한 인물을 중심으로 내용이 펼쳐져요. 이 인물은 지구 멸망 후 최후의 생존자로, 베니스는 물에 가라앉고 이곳에서 벌어지던 예술과 미술행사 역시 사라지고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 내에 가장 고도가 높은 부지에 설립된 한국관만이 망망대해에서 마치 부표처럼 떠도는데 그 안에서 이전의 문명을 캐는 아키비스트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누군가에 의해서 덧씌워진 어떤 가상의 기억과 경험입니다. 이 영상에 드러나지 않지만 작업에는 제3의 눈이 있어요. 이 인물을 이 제한된 공간에 넣고 이 실험체를 통해서 이 인물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예술 과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를 연구하는 보이지 않는 제3의 주체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전체 작업의 내용을 끌고 가는 큰 중심으로 작용합니다.

저희들이 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연 '보편적 언어라는 것이 있을까?' 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인물에 대한 생각과 상황을 한국말로 영상에서 보여준다면 이탈리아어와 영어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넣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7개의 영상 채널 마다 자막을 넣는다면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관람객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언어가 사라지고 난 미래에는 하나로 귀결되는 어떤 보편적 언어가 탄생할 것인가? 이런 현실적인 제약에서 비롯된 발상을 미완의 숙제로 생각하던 중에 저희가 찾아간 분들이 뇌과학자였습니다. 뇌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 광유전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대뇌의 전두엽 내에 광섬유를 꽂으면 대뇌에 작용하고 있는 전기신호가 빛의 신호로 인식되서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목소리가 아닌 빛으로 인식되어 소통이 가능한 실험이 실제로 미국 MIT 미디어랩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쥐 실험이 끝난 상태라고 하는데 빛으로 쥐의 생각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어요. 디스토피아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합니다. 철학계와 굉장히 흥미롭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저희는 그래서 이 광유전학을 적극적으로 작품에 차용하기로 했습니다. 작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감정이나 사건에 대한 해석들은 대사 없이 이 인물의 이마에 꽂혀있는 빛의 신호로 반응되는 것으로서 전달된다는 가상적 시나리오로 펼쳐집니다.

이 인물에게는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자각도 없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서 삶이 시작하고 하루의 끝에 눈을 감으면서 생을 마감하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입니다.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기억이 자기의 자아라고 생각하면서 아키비스트로서의 임무를 혼자 충실히 끝냈을 때 행복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존재하는 거죠. 인도 신화를 살펴보면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브라만'이 육체적인 것이라면 아트만은 정신적인 것이고 '목숨'의 어떤 결정체인데 이 아트만이 처음 망망대해에서 눈을 뜨면서 '아, 나 로구나'하면서 존재를 자각합니다. 영상의 주인공 역시 제한된 공간에서 눈을 뜨면서 자기 존재를 본능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똑같은 반복적 패턴의 생활을 영위하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한국관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사람의 반복된 삶이 작품 한 켠에서 계속 지



루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심적으로 진행되는 스크린에서는 반복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특별한 '어떤 날'을 보여줍니다. 이 날은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치 꿈처럼 과거의 사건이 인물의 삶에 개입이 된다던지 그리고 시스템에 오류가 나서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오브제가 등장하기도 하고 결국 '내가 어디에 있고,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자각의 순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문경원 저희가 한국관을 그대로 재현해서 세트장을 지어 촬영을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7개의 채널 안에 담긴 반복되는 하루하루를 다양한 시각으로 담으면서 실제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촬영하고, 배우의 동선과 움직임, 느낌 자체를 사운드와 맞물려서 전시 현장에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관이 마치 하나의 빛 덩어리처럼 글라스 파빌리온 외부에서도 이 인물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점에서 촬영된 두 개의 영상을 건물 외부에서 보이도록 설치하였습니다. 특별한 어떤 날을 담은 1개의 채널 외에는 모두 인물이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반복적인 하루의 에피소드를 담았는데요. 이 하루는 저희가 생각하는 예술의 내용을 담기 위해서 현재이자 미래이기도 하고 그 순간순간이 매일매일 탄생하는 현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7채널에는 미술사나 역사에서 차용한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뜬금없는 사건들로 인물의 일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인물로부터 반응을 유도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상상할 수 있을지 단초를 제공합니다. 이를 충실한 이미지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리서치 끝에 찾은 레퍼런스들이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그럼 저희가 7채널을 15분짜리로 묶어서 편집한 영상을 보시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준호 이 인물이 살면서 따르는 반복적인 패턴은 의학실험에서 실행되고 있는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 했어요. 깨워서 먹이고 신진대사 활동을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뜬금없는 사건을 개입시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관찰하는 거죠.

문경원 초반부에 나오는 스크린은 편의상 저희가 2번 스크린이라고 부르는 이 인물의 반복된 삶을 담은 채널입니다. 또 CC카메라처럼 설치된 5번 스크린에서는 감시자의 시점에서 인물의 행동을 들여다보고 있는듯한 각도로 촬영을 해서 전시장에서 보여졌습니다. 7채널 모두 인물이 눈을 뜨면서 시작하도록 한꺼번에 싱크를 시켰고 그러면서 뜬금없는 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채널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한쪽에서 다른 사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클로즈업이나 상상의 장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 3번 방(화장실이 있던 벽돌방)에서는 다른 시대와 시간 속에서 살았던 여러 모습의 자신을 만나는 스크린이 설치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크린의 개별적인 위치 설정이나 영상을 7개로 분리했던 이유 중에는 이 내용을 다루면서 저희가 담고자 했던 예술의 현장인 베니스비엔날레의 역사라던지, 한국관의 20주년, 또 건축적 특성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동시에 미술사 속의 많은 상징들을 가져오려고 했던 부분들이 컸습니다. 예를 들어 설치장면을 보시면, 스크린 위에 보이는 베네치안 코발트 블루의 색을 띈 반달창이나 만테냐(Andrea Mantegna)의 〈죽은 예수〉라는 작품에서 가져온 레퍼런스를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작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연스레 촬영 과정에서도 동일한 장면을 수없이 반복 촬영해야 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축지법과 비행술을 방법론적으로 풀기는 했는데, 마지막에 문이 열리면서 전시 오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현재 베니스 자르디니 공원의 모습을 주인공이 마주하는 결말로 끝나는 작업이었습니다.

전준호 그렇다면 '너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예술이 무엇이고 이 시대에 우리 삶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2007년부터 계속해서 답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많은 분들이 세상 속에서의 예술가 혹은 창작자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바가 '새로운 것의 제시'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와 부응이 창작자에게 아마 가장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거예요. 어제 저희들이 조정환 선생님을 찾아뵙고 '새로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선생님께서 가슴을 울리는 한 마디로 답하시기를 '예술계 내에서 요구되고 있는 새로움이란 예술계가 생산한 범주 안에서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굉장히 좁은 시각이다. 세계는 끊임없이 새롭다. 하나도 굳어있는 것 없이 늘 매시간 매초 모든 것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새롭게 탄생하는 발아의 현상인데 그것을 단지 깨닫지 못할 뿐이다. 매번 발아하는 그 순간, 깨어나고 움직이는 그 순간에 각성과 자각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예술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하셨어요. 아마 이것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프로젝트를 해오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4부] 토론, 질의 및 응답

모더레이터 | 기혜경
참여자 | 이숙경, 문경원, 전준호, 조정환

기혜경 2015년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및 한국관 전시 성과 보고 심포지엄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우선 조정환 선생님께서 '예술인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경제적 인간에서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예술인간의 탄생, 그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동시대의 상황의 변화를 예를 들어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먼저 조정환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20세기 말 이후부터 삶과 예술의 영역이 결합되어 누구에게나 노동과 삶의 현장에서 예술성이 요구시 되고 있으며 이것이 제도적으로 강압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지 강압적인 것만 걷어낼 수 있다면 예술인간의 탄생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강요의 측면을 걷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정환 '예술인간'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속에서 강압을 느끼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의 상황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높은 담에 둘러쌓인 공장이라는 환경이 있어서 그 속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경직된 상태로 조용히 일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노동자라고 부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는 프랑스어의 'travail'에서 비롯되었는데 어원적으로는 그리스 로마시대 때 노예들이 정상적인 노동을 하다가 말을 안 들으면 고문을 시행할 때 사용한 언어입니다. 즉, 고문을 받으면서 수행하는 활동을 노동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기에 열악한 공장이라는 환경에서의 작업을 노동이라 부르는 것은 쉬웠었는데 지금에 와서 멋진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멋을 내는 우리들을 노동자로 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술가들은 좀처럼 자신들의 활동을 노동이라 부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노동자 정체성을 인정해달라고 하고 그 요구를 정부 측에서 수용한 방식이 예술가 복지법이라는 형태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술가에게 노동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죠. 복장, 생활양식, 말하는 내용, 활동하는 환경과 내용이 달라졌기에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이지 사실상 사회 속에 흩어져서 평범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 과학적 연구를 하는 사람, 교사 등 이러한 인지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 모두 노동자일뿐만 아니라 인지자본주의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노동 중의 노동으로 봅니다.

기혜경 선생님의 질문은 대체 이런 활동이 어떻게 강압적 요소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집단적으로 생각해서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첫째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타인에게 팔아야 되는 상황, 즉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 예술적 활동을 파는 것도 속하는데요. 팔아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팔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든 간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에서부터 강요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임금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을 요구하며 투쟁했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고나 실업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고 실업의 상태에도 노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가시적인 그림자 노동의 상황 속에서 재고용, 정규직화 등 수동적으로 내몰려 투쟁을 하는 형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소득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 소득이 확보된다면 우리가 몸을 팔아야 할 이유도 없고, 욕망에 따라서 자유롭게 생산하고 삶을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문제의 해법으로써 기본소득이나 무조건적인 보장소득 등의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는데, 성별, 직업, 연령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생존 가능한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강요를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들 자신의 집합 합을 찾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뿔뿔이 흩어진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서로 접속되면서 생각이나 힘을 하나로 모아서 권력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안정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혜경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제안으로 들립니다. 강의에서 문경원, 전준호 작가의 작품세계와 예술인간의 관련성을 설명해주실 때 든 또 한가지 생각이 있는데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예술가의 '스파이 되기'라는 말씀을 동명의 저서에서도 언급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두 작가의 작품에서 그 '스파이 되기'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시는지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정환 예전에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요셉 보이스의 '모든 사람이 예술가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더니 청중의 반응이 찬반으로 딱 갈라졌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한 분들 중에는 예술가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기억나지만 그중에서 예술가들이 지원받고 있는 서포트조차 더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져야 하지 않는지, 재능의 선천적 격차 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두 분을 만났을 때, 전준호 작가님이 '예술가로서보다 예술인간으로서 이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두 작가분들이 예술가로서 서포트도 받고 예술계 내에 속한 영역에서 일련의 활동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실 겁니다. 예술가 아니면 참가하기 어려운 비엔날레에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예술가로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지방법 일텐데 작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업체에서 주어지는 후원이든 예술제도 속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작품 유통 공간으로서의 비엔날레인 셈인데 이러한 전시회 속의 〈축지법과 비행술〉의 경우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 특징이죠.

기존의 예술가들의 경우 예술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줘야만 예술계에서 일정하게 안정된 행보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예술 그 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다루는 것은 극한에 처하기 전에는 던지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두 작가가 활동하는 환경과 활동할 때 주어지는 자본, 작가 자신의 재능 등을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는 환경으로 던져내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자들이나 사회과학자, 인문학자, 정치철학자와의 대화라는 것은 예술이 이제까지 고립되어 있던 환경에서 탈출해서 예술이 국면한 정체를 삶 속으로 열어젖히려고 하는 몸부림이 들어가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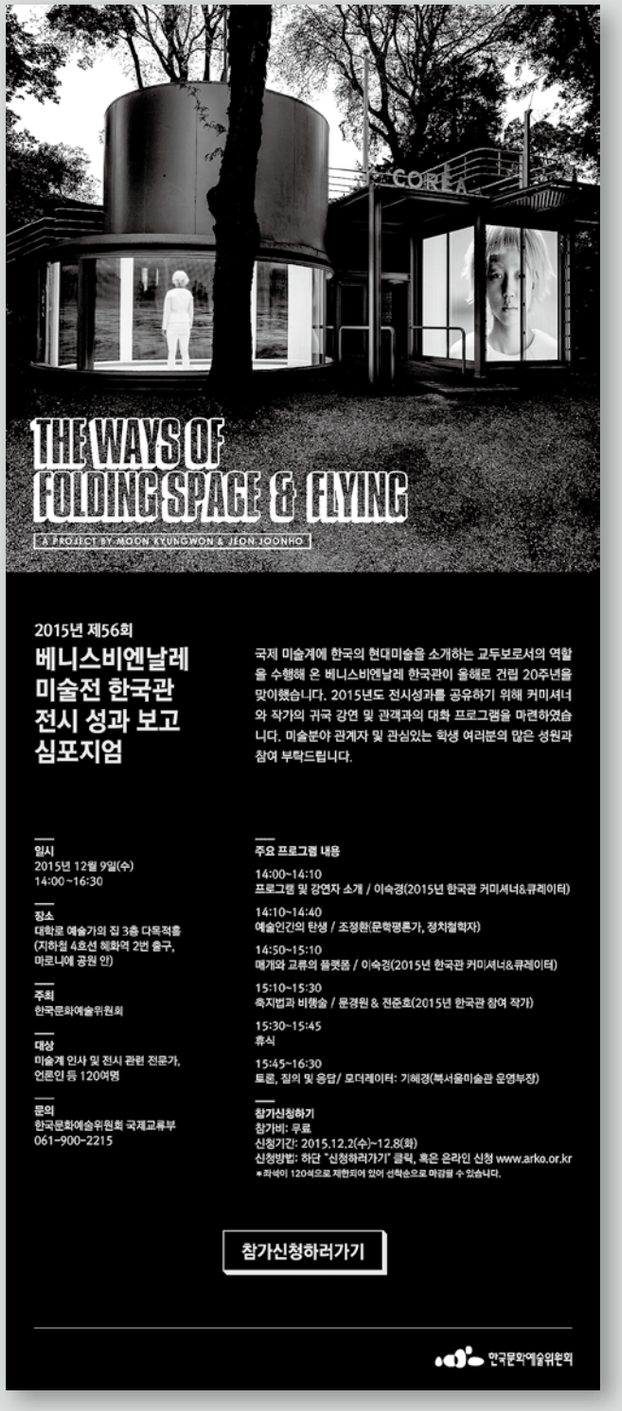
예술가로 이미 정체성을 갖고 있고 명성을 확보한 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예술계의 좁은 한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적, 사회적 삶의 무대로 관심을 옮기고 그곳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내재화 시키고 다시 작품으로 표출 시키려 하는 노력은 예술의 자원, 예술적 능력, 예술가의 자원, 예술계의 환경을 삶으로 훔쳐내온다고 봅니다. 영어로 'contemplation'이라는 단어의 'temp'는 엿본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훔쳐내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술계의 닫힌 환경에 있는 것들을 끌어내어 우리의 삶과 결합시키는 작업에서 두 작가가 하나의 예시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스파이 활동과 연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기혜경 의미 깊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 선생님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커미셔너이자 큐레이터로 한국관 전시에 참여하신 이숙경 큐레이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테이트 등 여러 기관에서 전시를 하셨었는데 그런 기관에서의 전시와 국가관 전시의 차이점 그리고 다음 커미셔너들을 위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오쿠이 엔위저가 기획한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 All the World's Futures〉의 다양한 특징들을 짚어 주셨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베니스비엔날레를 3-4일 정도 관람하면서 한마디로 이 전시를 '정치적이지 못한 정치적인 것의 결정판'이라고 가늠했었습니다. 이 앞의 정치적인 것과 뒤의 정치적인 것이 상당히 다른데, 이숙경 선생님이 생각하는 제56회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숙경 우선 미술관의 큐레이터와 한 시점을 두고 행사로서 벌어지는 전시의 큐레이터는 큰 차이를 가진다고 봅니다. 미술관 소속 큐레이터의 경우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 미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관객층에 대해서 항상 주목을 하게 됩니다. 미술관 전시에도 적합하고 베니스비엔날레에도 맞는 작가가 있겠지만 큐레이터로서 항상 맥락을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맥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객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큐레이터로서의 제 입장을 관객과 작가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설정합니다. 관객의 차이 때문에 두 전시를 접근하는 방식에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미술관마다 역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 미술관의 어떤 큐레이터가 전시기획을 해도 그 미술관 고유의 목소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과천에만 있을 시절인 90년대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미술관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대미술에서 제일 유명하고 흥미로운 것을 찾았고, 그런 것이 기관 자체에서 용인되는 분위기였고 국제적인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였습니다. 예를 들어 휘트니비엔날레(93년도)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보여지기도 했었고, 또 전문 미술 관람객층이 아닌 보다 넓은 범주의 관객과의 대화를 모색하기 위해 고구려 고분벽화 전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던 시기였죠. 그 안에서 제게 주어졌던 역할은 주로 국제적인 전시 기획이었습니다. 지금 YBA(Young British Artists)라 불리는 당시 젊은 영국 작가들의 전시를 하게 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영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 웹초청장



테이트 미술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영국 자체가 사회주의적인 시각이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는 곳에 있다 보니 미술관에서 좌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공익으로 간주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야 하는 지점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고 입장료를 받는 기획전이 있기도 하지만 전체 전시공간의 70%는 무료 관람이 가능한 공간으로 기획됩니다. 미술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서 공유되고 소비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매우 강한 거죠. 그래서 관객들에게 말하는 언어의 수준도 좀 다르고요.

베니스의 경우 아주 다양한 관객층이 있어서 이러한 설정이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제 기획을 비평적으로 바라볼 제 동료들, 즉 앞으로 제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어야 하지만(이 사람들 대부분 개막식에 참석하는 인원이고), 작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큐레이터의 역할로서 봐야 하는 지점도 있고요. 한국에서 세금을 내서 좋은 작가를 세계무대에서 보여주자는 좋은 의도를 갖고 있으나 그렇다고 올림픽처럼 대표 선수를 뽑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는 뽑기가 쉬운데 세계 미술계가 모여서 담론을 형성하는 장에서 한국관이 어떠한 목소리를 낼 것인가를 얘기할 때는 다른 고려의 대상들이 존재하죠. 한국작가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작가를 우열을 가려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작가 선정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두 분처럼 국제적인 전시 경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작가들을 찾았어요. 너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지만 무명의 작가도 아니면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기존의 작업과 연결해서 앞으로의 작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작가를 찾고자 했습니다. '모든 세계의 미래'라는 국제전의 주제가 제시되기 이전에 한국관 작가 선정을 했었는데, '미래'라는 주제가 언급되면서 한국관 전시와 긴밀히 맞닿은 지점은 우연과 선견지명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결국 현재에 대해 무언가를 발언하고 싶은 사람들이 미래를 언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괴이한 상황들이 만연하는 현재의 상황과 예술계도 지난 10여 년간 극도로 상업화되면서 공공미술관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개인의 후원을 받고 기업체의 지원을 받고 사적인 재산을 받아서 전시하는 우리가 얼마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생각했을 때 한국의 미술가들이 세계 미술과 직접 교류를 하면서 아주 다양한 목소리를 이미 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작가분들 중에서 한국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공감하고 확성기처럼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다루고 계신 작가로서 문경원, 전준호 작가분들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오쿠이 엔위저의 전시의 경우 정치적인 미술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주제 자체의 무거움과 고민들이 있지만 미술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내부 지향적이고 본연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성격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미술조차 잠식해버리는 힘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많은 부분에 있어 예술이라는 언어 자체가 사치스러울 만큼 첨예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베니스비엔날레가 다른 국제 미술행사 중에서도 좀 더 일반적이고 자본, 상업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행사로서 이러한 전시가 맞는 프레임이었는가를 생각해봅니다. 정치적인 것과 베니스가 표상하는 아주 예술 지향적인 것이 충돌했는데 정치적인 부분이 좀 약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혜경 제가 이번 베니스비엔날레 국제전을 '정치적인 것을 지향했으되 정치적이지 못한, 자본에 의해서 레이어가 많이 갈리고 또 다른 의미의 정치적인 것의 결정판'이라 바라봤듯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숙경 큐레이

터의 '매개와 교류의 플랫폼'으로서의 한국관 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었는데요. 베니스 자체가 이를 구성하는 오쿠이 엔위저의 베니스비엔날레 국제전, 국가관 전시, 그 외의 병행전, 그리고 관객과 작가, 작가와 큐레이터의 관계, 미술계와 한국관 등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매개와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의 역할을 했음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이숙경 큐레이터가 문경원, 전준호 두 분 작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국제 미술계에 대해서 발화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작업의 지속 가능성이 있고 이 기회를 통해 이 두 작가의 목소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면에 방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7채널의 작품을 싱글채널로 모은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봤습니다. 2009년에 〈News from Nowhere(미지에서 온 소식)〉로 공동작업을 시작하면서 '예술이 과연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문화계, 정치계, 종교계의 많은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술이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해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첫 번째 단계라 한다면,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선보인 〈축지법과 비행술〉은 작품 제목이 암시하듯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두 분이 어떠한 규정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관련하여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전준호 저희들이 처음 〈미지에서 온 소식〉 작업을 시작할 때에 단초가 되었던 키워드는 지금과는 사뭇 다르게 '이 시대에 예술이 필요한가' 였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나'라기보다는 훨씬 더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나'의 문제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기혜경 선생님이나 다른 분들께서 저희가 처음에는 마치 안갯속에서 헤매다가 이제는 돌파구를 찾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는 이러한 저희 태도의 변화가 보였기 때문이 아닌지 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나'는 여전히 유효한 질문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얻는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내려질 수 없듯이 저희 질문 자체가 메아리로 저희 스스로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고 세계관을 접하면서 협소한 예술계를 벗어나서 훨씬 더 확장된 영역으로 나아갔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닌 저희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된 프로젝트라 생각합니다. 예술가로서 가지고 있던 믿음과 신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들이 스스로 어떤 존재의 증명과 이유를 찾으면서 시작된 프로젝트였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저희가 말하고자 한 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이 세계, 늘 발아하고 죽고 탄생하는 것이 반복되는 세계 속에서 어떤 자각의 순간과 계기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동시에 관객들에게 던지고자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문경원 생각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 저희 두 작가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두 작가의 충돌과 합의의 과정 자체가 일종의 첫 번째 단초로서 모든 프로젝트에서 질문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기혜경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는 저희들 스스로도 궁금하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그런 좀 더 추상적인 단계에서 질문들을 만들었다면, 조금씩 저희들의 태도에서 달라진 지점이 있다면, 긍정적인 에너지나 가능성을 많이 엿보게 되는 계기를 스스로 가지면서 저희들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된 점을 전준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질문은 본인 스스로가 답을 어느 정도 예측하면서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 예상되거나 기대하는 답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봐주시는 측면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혜경 네,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두 분 작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셨기 때문이에요. 공동작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두 분이 협업을 시작하시기 이전에 개별 작가로 제 전시에 두 분을 각각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 분이 자본에 의해 휘둘리는 미술계와 문화 권력이 분권화되는 현실 속에서 예술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회의를 갖고 이야기하시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았었습니다. 2008년 정도부터 협업을 시작하시고도 두 분이 각각의 개인전을 개최하셨고 또 현재 진행 중에 계십니다. 최근의 개인전들에서 보여진 작업들이 이전의 '결'과 굉장히 많이 다른 지점들을 보았기 때문에 공동작업이 또 개인작업에 단초를 제공하고 등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예상했던 시간이 훨씬 초과되어서 지금부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질문을 하실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관객1 먼저 이숙경 큐레이터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관 전시의 성과에 관련해서 수치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전시 준비에 앞서 설정하신 목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작가분들께서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예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으셨다고 하셨는데, 국제전의 주제인 '모든 세계의 미래'라는 주제와는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숙경 제가 먼저 답을 드리자면, 저 스스로도 많이 생각해보고 있는 지점인데요. 우선 수치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36만 명의 관람객이 한국관 전시를 관람하고 가셨습니다. 작품의 특성상 많은 관람객들이 전시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영상을 보고 또 내부에 들어가서도 전시가 이어졌었습니다. 7채널 각각이 10분 30초의 영상인 관계로 모든 채널을 다 보려면 7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10여 분 안에도 7채널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설치로 구성되었었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 관람객들의 편차에 대해서도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많은 관객들을 전부 충족 시킬 수는 없겠으나 사람들의 선지식, 선호도에 따라 각각 다른 목적을 갖고 온 관람객들이 다 뭐라도 하나씩은 얻어 가는 경험을 선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목표였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자막도 없는 영상이지만 1분 잠깐 전시장에 들려서도 시각적으로 강력한 힘을 전달하는 영향력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장시간에 걸쳐 관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관객으로서 비엔날레를 감상할 때 나흘을 보내도 다 못 보고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두 곳에서 개최되는 국제전만도 하루 이상이 걸리고 도시 안 이곳저곳에서 펼쳐지는 전시들을 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관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관람객들을 마주하면 뜻깊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그 관람객이 한국관 전시를 통해 무엇을 생각하던 가슴으로 느끼던 두 분 작가의 작업이 여러 관람객층의 다양한 차이들이 요구하는 지점을 충족시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준호 사실상 전시 개막 이전에 저희 작업 설치를 위해 국제전은 전혀 관람하지 못한 채 개막 후에 한국에 돌아왔었어요. 해외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번에 전시를 철수하러 갔을 때 비로소 다른 전시들을 꼼꼼히 볼 수 있었죠. 많은 분들이 '너희가 생각하는 미래와 오쿠이가 생각하는 미래가 많이 다르던데? 헛다리 짚은 것 아니야?'라고 코멘트를 주시기도 했었어요. 저는 헛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렌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쿠이 엔위저 총감독은 파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파도는 잔잔했다가 요동을 치면서 겁나게 밀려오기도 하고 늘 변하잖아요?

저희는 조금 더 그 파도 밑의 심연을 보려고 했었어요. 파도를 일으키는 힘이 무엇인가? 왜 인간은 이런 존재여야만 하나? 왜 이런 반복된 역사로 끊임없이 점철되는가? 우리는 과거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미래로부터 무엇을 보려고 하나? 심연의 바다와 표면의 바다 사이의 간극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다에 대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객 2 지난 2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함께 한 예술위원회 직원으로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위원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이번 미술전의 성과를 정리하자면 2012년 건축전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2014년 그 대안으로 공모 방식을 도입해서 커미셔너 선정을 했고, 2015년 이숙경 커미셔너님이 미술전으로서는 처음 공모 방식을 통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고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성과를 잡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국관 건물이 특이하다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2013년 김승덕 커미셔너님, 김수자 작가님의 전시 때부터 오히려 한국관의 건축적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전시를 시작하셨습니다. 2014년 건축전의 경우 내부에 존재하는 수십 개의 코너들에 작품을 다 설치하여 한국관 건물을 잘 살렸습니다. 또 9월부터 베니스에 해가 일찍 지면 되려 한국관 건물만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등의 장점을 부각시켰습니다. 2015년도 똑같이 한국관 건물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오히려 다른 국가관들과는 달리 이 반사되는 효과를 활용했습니다. 예술위 측에서는 이 두 지점을 성과로 바라보고자 하는데 커미셔너님과 작가분들께서는 그 지점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시는지와 좀 더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숙경 네 일단 저는 공모를 통해 선정이 됐을 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 지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경쟁 방식이어서가 아니라 먼저 전시 기획안을 의논하고 인정을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큐레이터의 능력을 인정해서 뽑는 것이 이전의 방식이었다면, 이 사람이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에 의해 뽑는 방식으로 바뀐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베니스비엔날레와 같은 프로젝트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전시라 생각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의 성과를 보고 공수표를 주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고 보고요. 저는 이미 선정이 될 때부터 문경원, 전준호 작가분들을 말씀드렸었고, 한국관의 건축을 많이 이용해서 등대나 횃불 같은 작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골격을 들으시고 선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관의 건축물은 물론 다시 짓는 방법이 있겠죠? 호주관의 경우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서 두 번째로 신축한 건물을 올해 개장했어요. 새로 신축이야 가능하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들과 시간에 달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 기획에 있어서 설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슨 상황에서든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는 작품은 없다고 봅니다. 주어진 맥락에서 의미가 있는 작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니스의 경우 관객층도 주어진 것이고, 건축적 요소도 결국 주어진 조건이죠? 주어진 조건에 대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미술관, 갤러리 다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조건에 답을 줄 수 있는 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가 작업을 바꾸면서까지 공간에 타협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로 이미 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중점을 둔 전시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모든 국가사업은 잘 점검하고 향후 개선점을 숙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치도 중요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peer-review 형태의 평가도 중요할 것이고,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와 국제 미술계의 반응 역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저도 다른 국가관에서 평가를 요청하며 보내온 설문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의 평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고민하는 것 같긴 해요. 공적인 국가사업이다 보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가자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술위에서도 평가 위원회도 위촉하셨을 텐데, 얼마나 다양한 관점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인가가 평가의 질을 확보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문경원 작가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공간에서 전시를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일단 저희가 그 바뀐 시스템에서 좋았던 점은 이전에는 커미셔너가 선정된 후 작가를 리서치해서 선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면에서 기획안이 왔을 때 꼭 선정이 되리라는 법은 없지만 처음부터 함께 구상하고 준비를 했다는 점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적인 부분도, 작가들이 화이트큐브에서 전시를 한다는 것이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환경과 장소를 경험하느냐에 따라 작업이 성장하고 작가 자신이 바뀔 수 있는 계기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관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부담감, 그리고 그것을 도전적으로 해석해야 했음이 저희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의 작가들에게도 건축적 특성을 작품에 반영을 해야 함의 유무를 떠나서 공간 자체를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작업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는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전준호 질문의 요지는 지금 한국관을 이대로 유지할까 아니면 부수고 새로 지을까 이거 아닌가요? 이번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전에 전시했던 선배나 동료 작가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건축물에 대한 불평을 들었습니다. 전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와 돈을 다 쓴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프로젝트 전에 이런 단점을 한번 장점으로 이용해 볼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유리로 된 파빌리온에 캔버스를 만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 봅니다.

문경원 실제로 설치와 철수의 과정에서 접한 것은 건축물의 많은 부분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관을 재건축할지도 모른다는 것은 모르고 진행을 했었는데, 가능하다면 다시 지어지면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전준호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면 건축가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관에서 전시했던 작가들,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짓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충분히 의논하고 숙지한 다음에 삽을 떠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혜경 이번 한국관 전시에 대해서 해외 평들은 건물이 갖고 있는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을 적절하게 접목해서 영상미학과 건축이 잘 조화된 하나의 토탈의 미술로 평가되는 것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 작가분들과 커미셔너께서 각고의 고군분투를 하신 것이 이 자리에서 울분으로 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코 측에서도 만약 건축물을 고치실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고려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옮겨갔는데 서울관에서도 그렇고 건축된 지 2년이 된 북서울미술관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게 될 큐레이터와 작가의 조언 없이 지어진 건물이 얼마나 허튼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건물로 자리매김하는가를 아주 여실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기회가 있다면 실제로 사용했던 사람들, 사용할 사람들의 조언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온라인상으로 조

정환 선생님께 사전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그 답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 네, 질문은 '예술인간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보일 앞으로의 영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간이라고 말했을 때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로 설정하게 되는 셈인데요, 예술인간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가 함께 숙고해보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린 마굴리스(Lynn Margulis)라는 여성 생물학자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마고리스는 우주에 주인공이 있다면 인간이 아니고 바이러스이고 이 미생물적 존재가 우주를 다 끌고 있는 상태이고 인간은 오히려 거기에 기생하고 있는 이차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술계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곰곰히 들여다보면 많은 부분들이 예술 영역 밖에서 이미 이루어진 성과들을 예술계 안으로 수렴해서 작품으로 혹은 성과물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체제도 마찬가지지요. 국가나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그 시스템이 포괄, 포섭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그것이 자연계이든 인간이든)의 활동들을 가치화시켜서 화폐로 전환시키고 축적하는 식으로 가동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술인간이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어찌 보면 이미 때늦은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숨어있는 수많은 예술인간적 활동들은 그 영향력을 예술계를 통해 이미 발휘해 왔다고 말할 수 있으니깐요. 그런데 예술계라는 세계가 위태롭게 되고 그것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지자본주의에서 예술인간이라는 것은 조금 더 가시적이고 표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예술인간은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미래적인 질문은 아직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봅니다. 스피노자(Spinoza)가 우리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그 답과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들이 홀로 혹은 여럿이 서로 연결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뜻이죠. 그 말인즉슨, 사실상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들의 신체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분 작가분이 콜라보레이션하는 것을 공동작업이라고 번역해서 표현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콜라보레이션은 'co'에 'labor'를 더해서 '같이 작업한다'는 뜻인데 '누가 누구와 얼마만큼 공동으로 작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현재 두 분의 경우에는 예술가와 전문가들의 공동작업이고 거기에 일정한 정도의 범위 확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 영역을 더 넘어선 공동작업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공동작업의 범위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 미생물 세계나 과학기술, 기계의 세계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역으로의 콜라보레이션을 확대시켰을 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넘어서 열려있는 문제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혜경 네, 조정환 선생님께서 예술인간이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도래와 맞물려 어떤 역할을 우리 사회에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예술계에 횡행하고 있는 예술 종말론과 반대적인 입장에서 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느낌을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직 질문들이 더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정했던 시간보다 많이 흘렀기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긴 시간 참여해주신 발제자 분들과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포지엄 참여자 소개

기혜경
현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 2002~2015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를 역임하며 기획한 주요 전시로는 《20세기 라틴아메리카 거장전》(2008), 《신호탄》(2009), 《메이드인 팝랜드》(2010), 《올해의 작가상 2012》 외 다수의 전시가 있으며 공동기획전은 《광복 70주년 기념-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2015)가 있다.

문경원 & 전준호
2015년 한국관 참여 작가. 2009년부터 공동작업을 시작하여 카셀 도쿠멘타(2012), 광주 비엔날레(2012),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2》, 후쿠오카 트리엔날레(2014),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 10주년 기념전 《교감》(2014), ZKM 카를스루에 아트 & 미디어센터 《GLOBALE: Exo-Evolution》(2015) 외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한 바 있다. 전시 개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확장되어가는 〈뉴스프롬노웨어〉 프로젝트는 미국 시카고 예술대학 설리번 갤러리(2013), 스위스 취리히 미그로스 미술관(2015)에서 진행되었다.

이숙경
2015년 한국관 커미셔너 & 큐레이터. 현 영국 테이트 미술관 아시아 미술 연구소의 수석 리서치 큐레이터이자 아시아 태평양 소장품 구입 위원회의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2007~2012년 테이트 리버풀의 전시 큐레이터를 역임하였다. 테이트에서의 주요 기획전으로는 《백남준》(2011), 《Doug Aitken: The Source》(2012), 《Thresholds (Liverpool Biennial 2012)》 등이 있으며 국제 현대미술에 대한 집필과 강연 활동을 국내외에서 지속해 왔다.

조정환
문학평론가 & 정치철학자. 한국근대문학을 연구했고 1980년대 초부터 〈민중미학연구회〉와 그 후신인 〈문학예술연구소〉에서 민중미학을 공부했다. 현재 〈다중지성의 정원〉(http://daziwon.net) 대표 겸 상임강사, 도서출판 갈무리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정치철학과 정치미학을 연구하면서 화폐형태 및 주권형태의 변형과 정치의 새로운 주체성의 형성에 관한 저작들을 준비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아우또노미아』(갈무리, 2003), 『인지자본주의』(갈무리, 2011), 『예술인간의 탄생』(갈무리,2015) 등이 있다.



Photo by Sara Sagui
Courtesy: la Biennale di Venezia

2015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한국관 백서

정리 및 편집
김은지

감수
이숙경

자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류재수, 임수연, 임기현, 변서영

디자인
박수미

발행일
2016년 3월 18일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전화
(061) 900-2100

Arts Council Korea

이 책에 사용된 이미지 및 글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승인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비매품]